

利川郡 郷土文化資料 總覽

第三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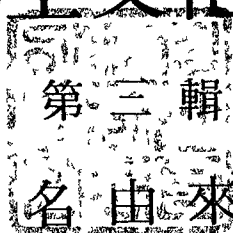
(地名由來編)

利川文化院

기	중
100	원
원	일

R
094
이영희 b
V 3
C. 2

利川郡 郷土文化資料 總覽



(地名由來編)

이천시립도서관



EM45992

기	증
1998년 8월 29일	
이천문화원	

利川文化院



여

백

發 刊 辭

郷土史의 연구에는 地名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地名과 郷土史는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편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地名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당시 생활모습이나 신앙을 살필 수도 있고, 숨겨진 문화유산을 찾아낼 수도 있으며, 또 우리문화 속에 스며든 외래문화의 영향이나 문헌에는 나와있지 않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찾아낼 수도 있다.

더구나 우리 利川郡의 경우처럼 郷土史 관계의 문헌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더 地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우리 文化院이 郷土傳統文化資料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地名由來編〉을 서둘러 펴내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 利川文化院은 지난 1979년부터 郷土傳統文化資料 조사사업에 착안하여 그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거니와, 최근 정부에서 文化院 활성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또 추진되는 단계에서 地方文化院의 그 지역내 전통문화 발굴조사와 보존 및 전승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郷土史 郷土文化의 연구는 진정으로 그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郷土人들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뒹구는 발이랑의 기와쪽 하나,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 골짜기의 이름 하나에도 빈틈없는 관심과 정성이 깃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며, 그와같은 정성을

가진 많은 郷土人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地名의 조사연구에는 그 지역의 역사·인물·풍토·일화 전설 등의 종합적인 연구와 함께 심지어는 고금을 통한 언어학의 광범위한 지식까지도 필요하다 이 많은 분야들을 모두 망라하기엔 역부족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한 셈이다 앞으로도 꾸준한 조사와 연구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 잘못된 점들을 보완해 나갈 생각이며 끝으로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84 년 7 월 일

社 團 法 人 利 川 文 化 院 長

柳 光 烈

地 名 에 .대 하 여

事務局長 李 仁 洙

1 地名의 變遷

이 땅에 처음 사람들이 들어와 터를 잡고 무리를 이루어 살기 시작하면서 地名은 생겨났다 장구한 세월을 통해 내려오면서 地名은 새로 생겨 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음이나 뜻으로 바뀌어 지기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목이나 짐승의 이름들이 그랬던 것처럼 地名들도 처음에는 달래내·곰나루·솔피·응달말과 같은 정답고도 순수한 우리말이었음이 틀림없다 그 후 중국의 문물과 함께 한자가 들어와 마땅한 기록수단이 없었던 우리의 문자를 대신하게 되고, 地名을 기록하려다 보니까 먼저 이를 한자화하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었다

순수한 우리말 地名을 음운체계가 다른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비슷한 음을 취해 적기도 했고 어떤것은 뜻을 취해 적기도 했다 또 이 音借와 訓借가 하나의 고유명사 속에 뒤섞이기도 했으니,『三國史記』地理誌를 비롯한 옛 문헌에 나타난 삼국시대의 지명들이 모두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景德王 16년(서기 757) 통일신라가 전국토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면서 地名의 일대 개편작업이 함께 이루어 졌다 利川의 처음

명칭인 南川(南買)이 黃武縣으로 개칭된 것도 이 때의 일로서, 利川의 경우나 骨内斤이 黃驍로, 沙伏忽이 赤城으로, 買忽이 水城으로 개칭된 예에서 보듯 당시의 개칭작업이 철저하게 뜻을 취한 訓借를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래의 음과는 더욱 더 거리가 먼 지명들이 생겨났다

이렇듯 처음의 우리말 지명들이 갖고 있던 고유한 음은 표기를 위한 한자화 과정에서 아주 없어져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와같은 사정은 뿌리 깊은 모화사상에 기인하여 우리 글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日人들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地名의 변화는 더욱 심하여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구실아래 老坪里와 塔村이 합해져 엉뚱하게 「老塔里」로 둔갑하는 식의, 전래의 전통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한 횡포가 자행되었다 老坪里는 우리말 명칭인 「노들」의 한자화한 지명이며 塔村은 「탑거리」이다 이것이 老塔里로 둔갑을 했으니 굳이 그 뜻을 해석하자면 〈늙은 탑이 있는 마을〉이 되는 셈인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梧倉里와 南川洞이 「梧南里」가 되고 樹谷里와 鶯山洞이 「樹山里」로 둔갑하는 이같은 예는 당시 일인들이 정한 명칭을 대부분 그대로 이어받은 오늘날의 里名들 중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으며, 「神社山」과 같은 지명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식민지통치의 잔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실체는 어디론가 날아가 숨어 버리고 껍데

기만 남은 기호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오늘날의 地名들이다. 그래도 일부 자연부락의 이름들 중에는 구전을 통해 내려온 우리말 이름의 편린이 남아 있어 지명의 뜻을 캐는 작업에 청량제가 되어 준다.

지명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간 우리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며, 이 땅을 스쳐 지나간 역사의 현장과도 만나게 된다. 그 밖에도 숨어 있는 순수한 우리말 지명을 밝혀 보존하는 일이 이 지명조사의 중요한 목적임을 밝혀 둔다.

2. 地名研究의 問題

옛 문헌에 나타난 地名은 이 고장의 당시 地名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다. 따라서 향토지명연구의 첫 단계가 『三國史記』 이래 각종 문헌에 나타난 이 고장의 지명조사이며, 때로는 신도비나 묘비와 같은 금석문이나 족보, 문집 등의 가전기록 중에서 생 각지 않았던 중요한 자료를 찾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옛 지명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중첩되는 문제점과 부딪치게 된다. 이를테면 우리가 利川의 처음 명칭인 「南川」을 해석하려고 할 때, 그 어원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우선은 南川이라는 한자어가 당시 이 지방을 지칭하는 어떤 우리말 고유명사에 대한 차용어라는 점에 주목하고, 지명이 생겨난 시대인 고대 高句麗語의 어휘들 중에서 「南」과 「川」, 혹은 「南川」이

라는 합성어의 음이나 뜻을 가진 어휘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南川의 어원이 어느 학자의 주장처럼 「늑내」였다고 가정할 때,
그것이 과연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은 「늑내」로 발음되었느냐 하는
음운상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차용어인 「南川」의 발음문제도
마찬가지이며, 통일신라로, 고려를 거쳐 다시 조선으로 시대가 달라져도
사정은 같다

결국 지명이 생겨난 동시대 언어에 대한 음운관계를 비롯한 문자·
문법·어휘·방언 등 언어학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
는데, 이 분야에 대한 우리 학자들의 많은 연구업적에도 불구하고 학
자들에 따라 의견차이가 있어 수학공식을 풀듯 푼 떨어진 해답을 구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따라서 금번 지명조사에서는 각
지명의 어원까지를 밝히는 근원적인 지명연구에는 미치지 못한 채 후
일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다

지명연구의 다음 단계는 그것이 처음 생겨나게 된 동거나 유래를
밝히는 일이다

지명생성의 동거나 유래는 매우 다양한데 가장 흔한 형태는 그 마을
의 지형이나 특징이 마을명이 되는 경우로서 마을이 솔뚜껑처럼 오목
한 곳에 있다고 하여 소당골(釜蓋洞) 마을에 소나무가 많다고 하여
솔골(松谷)이라 부르는 식이다 장이 섰던 곳이면 장골, 도자기나 용
기를 굽던 곳이면 점탈이 된다 또 산속에 자리잡아 산골(山村)이
라 부르고 넓은 들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벌말(坪村)이라 했다가,
그 후 근처에 다른 마을이 생기면 새말(新村)이 되고 넘말(越村)

이니 뒷말 (後洞)이 생겨났다

그 다음은 기억하기 쉬운 어떤 건물이나 표적물에 의해 마을이름이 생기는 경우로서 서당골·절골·파발막·당고개·원하 (院下)·비석거리·미륵당·정문말 등이 이에 속한다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 널리 구전되어 내려온 전설이나 역사적인 사실에서 지명이 생겨나기도 했고 마을 주변에 산이나 내, 또는 바위명에서 유래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마을이름들 중에는 생성동기를 전혀 알 수 없는 것들도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무레기」라 했을 때 이 마을에 대한 유래도 알려진 것이 없고 그 어원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결국은 생성동기를 밝히는 일이 곧 어원상의 문제와 직결되어 처음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다시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3. 收錄內容

이 책에는 利川郡의 郡名과 각 邑面명칭의 유래와 변천과정, 그리고 현존하는 132개 法定里와 400여개에 달하는 마을지명의 유래를 가능한 한도까지 조사하여 수록하였다

마을명에 얽힌 전설이나 일화 중에는 「기치미고개와 냇고개」의 전설과 같이 후세 사람들이 지명의 음이나 뜻에 맞게 지어낸 것으로 생각되는 이야기나, 생성동기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신빙성이 희박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명과 관련되어 채집된 이야기는 되도록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단, 전설의 경우는 本院의 傳統文化資料 조사사업에서

별도 항목으로 다룰 예정으로 있기에 상세한 기술은 피하고 개략적인 것만을 소개하였다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 조사된 기록은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해 보충해 나갈 예정이며 어원을 찾는 본격적인 지명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4 自然部落名の 分類

이 분류는 편의상 자연부락명 뒤에 붙는 접미어를 분류대상으로 하였다

다른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을을 일컫는 洞村 골(谷)·말·실·울·터(塙) 등의 끝말이 붙는 형태가 가장 많고, 그 밖에도 들(坪) 거리·내(川) 고개·바위·봉·城 미 개·안(內)·下 前·머리 다리 배미·나리·물·일 등의 명사형 접미어가 사용되고 있다

(1) 洞·村 골(谷)·말

洞·村·谷은 반드시 한자어로 된 지명 뒤에 오는데 우리말인 골말의 경우는 일정하지가 않다 실제로는 지동-못골 후동-윗말 신촌-새말·평촌-벌말 등과 같이 같은 뜻의 한자명과 우리말 지명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 ① 洞-지동 노동·학암동·후동 상동·신대동·소론동·가목동
앵산동·쿠로동·목동 자은동·연화동 등

② 村-경촌·석교촌·송촌·쌍촌·하남촌·검촌·산촌·전촌 행

십촌 · 월촌 · 다래촌 · 무릉촌 옥야촌 등

③ 골(谷)-사기막골 구자골 · 고래골 · 방가골 · 살개골 · 상곡 죽곡
· 노가지골 · 남정골 · 장골 시미골 · 송곡 자리골 · 원적골 · 밤골 등

④ 말-중말 새말 진말 · 오창말 · 국말 · 빙정말 · 넘어말 · 수평말
· 섬말 · 고갯말 · 벌말 · 앞말 · 하낙말 · 풍덕말 · 샘말 · 우영말 · 정문말 등

(2) 실 · 울

「~실」 「~울」은 골·말(村)의 뜻과 같다

【예】① 실-행기실 뒷고실 · 달개실 · 토끼실 · 도니실 · 압실 · 사기실
새실 우무실 · 포기실 등

② 울-소래울 · 가래울 · 새울 · 여귀울 · 도지울 · 매지울 · 가재울 자
개울 · 장자울 각시울 · 도니울 · 소리울 · 갈매울 · 미리울 등

(3) 터(垆) · 들(坪 · 벌) · 거리

【예】① 터(垆)-새터 (신대) · 장터 · 벌터 · 경기터 · 장개터 · 사누터
한터 · 마전터 · 산대 · 둔터 배터 등

② 들(坪 · 벌) -노들 · 군들 · 윗들 (상평) · 덕들 (덕경) 황
새벌 장군벌 · 쇠경들 보들 팡평 · 윗들 (후평) 등

③ 거리-사거리 서문거리 · 탑거리 · 주막거리 윗거리 · 대거리
왜거리 · 사장거리 · 비석거리 · 당거리 등

(4) 미 고개 (峴 재) 바위(巖) 봉

【예】① 미 뫼(山)의 변음으로 추정된다-갈미 기치미 · 도리미 오
미 공다리미 도달미 등

② 고개-밤고개 넓고개 회고개 붓고개 당재 두무재 호현

망재 등

③ 바위 - 계암 · 도월암 응암 호암 · 봉바위 · 검바위 · 두름바위 등

④ 봉 - 고봉 · 종태봉

(5) 내(川) · 개 나리 · 물

【예】 ① 내 - 한내 · 단내 · 황그내 · 남천 · 북하 · 개여울 등

② 개 물가에 인접한 마을의 경우에 붙는다 - 배증개 · 삼정개 · 거지개

③ 나리, 내(川) 또는 나루(津)의 뜻으로 추정된다 - 미나리 · 거치라리 (거친나리) · 퇴포

④ 물; 샘(泉)의 뜻이다 - 물우물 · 찬샘물

(6) 안(內) 下 · 前

【예】 능안 · 진안 (진내) 산안 (산내) · 병목안 · 읍내 · 원하 · 내하 · 당전 (당앞)

(7) 머리(頭) 다리 (橋)

【예】 용머리 · 원머리 도구머리 · 떡정머리 · 유다리 · 마다리 · 회다리 · 보름다리

(8) 배미

「논배미」에서 나온 지명으로 추정된다

【예】 신니미 개배미 굿배미 인두배미

(9) 里

【예】 아리 · 비피리 · 양아리 · 자위리 골문리

(10) 일

길(道) 또는 골(谷)의 변음형으로 추정된다

【 예 】 안매일 쇠일 (소일) .

(11) 城

【 예 】 황성 · 설성 반월성 금성

(12) 니

【 예 】 주바구니 · 자무니 · 소도니

(13) 이 기

【 예 】 ① 이 - 미륵덩이 · 원양이 · 용민이 · 쇠쟁이 금산이 도봉이 · 어
산이 · 매쟁이 · 대왕이 · 계념이 · 작별이 · 등안이 범홍이 높은절이 · 장
승이 억만이 · 삼승이 · 고담이 · 긴뿔이 · 지시랭이 등

② 기 - 무레기 · 장노기 · 무지기 · 매지기 · 분디기 · 나라모르기 등

(1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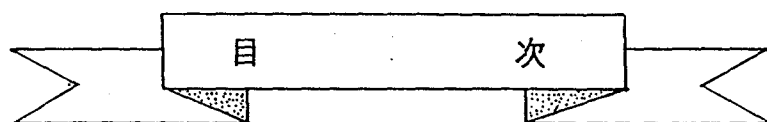
【 예 】 구시장 파발탁 · 나무가지 · 갈월 · 개자워 · 금호 · 홍시 · 풍토 · 한성
부 · 온방 · 도니피 · 버리앗 · 자옥 · 아미릿 · 송침 · 소새 · 소고지 · 송삼 ·
장률 제갈 반월

〈 參 考 文 獻 〉

- 『三國史記』
- 『世宗實錄 地理誌』 利川・陰竹編
- 『新增東國輿地勝覽』 利川都護府・陰竹縣編
- 『輿地圖書』
- 『東史綱目』
- 『京畿道誌』 利川・陰竹編
- 『京畿誌』 利川・陰竹編
- 『利川郡邑誌』 光武3年刊
- 『陰竹郡邑誌』
- 『利川大觀』 利川大觀編纂委員會 發行, 1955年
- 『京畿道史』 京畿道史編纂委員會 發行, 1979年
- 『韓國史大事典』 教育出版公社 刊
- 『韓國史大系』 千寬字編, 三珍社刊
- 『韓國古代漢字音의 研究 I』 俞昌均著, 啓明大學校出版部 發行
- 『古語辭典』 南廣祐編, 一潮閣刊
- 『국어대사전』 이희승編, 민중서림刊
- 『우리말큰사전』 신기철 신용철編

利川郡鄉土文化資料總覽集

地名由來編



發刊辭	院長 柳 光 烈	
地名에 대하여	事務局長 李 仁 洙	
第一編 地名의 變遷		17
1. 利川郡 地名의 變遷		19
가. 三國時代		21
나. 統一新羅時代		25
다. 高麗時代		25
라. 朝鮮時代		26
마. 甲午更張 以後		27
바. 陰竹郡의 變遷		28
2. 邑·面 行政區域과 地名의 變遷		31
3. 里別 地名의 變遷		39
第二編 地名의 由來		55
1. 利川의 地名由來		57
가. 「南川」의 由來		59
나. 「利川」의 由來		60

다. 「陰竹」의 由來	61
2. 各 邑面의 地名由來	63
가. 利川邑	65
나. 長湖院邑	65
다. 新屯面	66
라. 栢沙面	66
마. 夫鉢面	67
바. 戶法面	67
사. 麻長面	67
아. 大月面	68
자. 暮加面	68
차. 雪星面	69
카. 栗 面	69
3. 部落名의 由來	71
가. 利川邑編	73
나. 長湖院邑編	81
다. 新屯面編	93
라. 栢沙面編	101
마. 夫鉢面編	102
바. 戶法面編	121
사. 麻長面編	130
아. 大月面編	139

자. 暮加面編	148
차. 雪星面編	155
카. 栗面編	165
〈附 錄〉	173
各里別 自然部落名	175
利川文化院 會員名單	189

여

백

第一編 地 名 의 變 遷

여

백

1. 利川郡地名의變遷

여

백

利川郡 地名의 變遷

가 三國時代

문헌에 나타난 利川郡의 처음 명칭은 고구려때의 「南川縣」과 「奴音竹縣」이다 「南川」은 다른 명칭을 「南買」라고도 했는데¹⁾ 당시 지명의 한자표기에 있어 「川」과 「買」는 같은 뜻으로 쓰였다

이천지방은 처음 馬韓의 속국이었다가 河南慰禮城에 도움을 정한 백제가 차츰 세력을 넓혀 가면서 자연 백제의 영지가 된다 이천이 고구려의 영지가 된것은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의해 漢城함락이 실현되던 서기 475년(長壽王 63) 이후부터라고 생각되며, 그 이전인 백제시대에 이 지방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웠는지는 상고할 길이 없다

李丙壽 박사는 부족국가들의 연합체인 마한 54國 중 「奴藍國」과 「咨離牟盧國」 등 2개의 소국이 이천지방에 위치했던 나라들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노람」과 「자리모로」라는 부족국가의 명칭이 아주 오랜 옛날 이 지방의 지명과 어떤 연관을 지닌 명칭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에는 위치의 확실성 여부, 순수한 우리말 명칭을 한자로 표기하는데 따른 음운상의 문제, 어원의 문제 등 여러가지

註 1) 『高麗史』 利川郡本高句麗南川縣(一云 南買)

문제가 있어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의 郡·縣제도가 어느 시기에 와서 확립되었는지는 단언을 내리기 어렵고 서기 505년(신라 智證王 5) 신라가 州·郡·縣제도를 정비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대략 6세기 초반부터가 아닌가 여겨진다 『東史綱目』에 의하면 삼국의 행정제도로는 백제가 4部(또는 5部)를 두고 부에는 10郡이 있다고 했으며 고구려에는 5部가 있다고 했다 또 신라는 안에 6部가 있으며 郡·邑에는 각각 軍主를 두었다고 했다

한편 신라의 읍은 안에 있는 것을 陟評이라 하고 밖에 있는 것을 邑勒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중국의 郡·縣과 같으며 전국에 6탁평과 52읍록이 있으니 6탁평이 곧 6부라고 했다²⁾ 이 部나 郡, 또는 陟評·邑勒과 같은 행정단위가 어느 정도의 규모와 기능을 갖고 있었는지, 또 이와같은 행정조직의 제도화가 어느 시기부터 실현된 것인지는 문헌상 상고할 길이 없다

郡·縣제도는 처음 중국을 통일한 秦의 始皇帝가 실시했다고 하며, 그 후 漢의 武帝가 위만조선을 멸하고 정복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郡縣을 두었으니 이른바 漢四郡이다 삼국이 차츰 부족국가의 형태를 벗어나 고대국가로 성장하면서, 지방제도 정비의 필요에 따라 漢의 군현제도를 모방하여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중국식 군현제도의 도입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註 2) 『東史綱目』 第1下 계유년條

고구려는 중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접촉이 용이했던 점과, 樂浪을 비롯한 漢의 세력과 오랜 투쟁을 통해서 중국의 문물제도를 삼국 중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었다 따라서 군현제도 역시 고구려가 먼저 이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백제로부터 탈취한 한강유역을 비롯한 경기 충청도 일대에 설치했던 고구려의 제 군현들이었다 「南川縣」과 「奴音竹縣」이 이들 군현들 중에 하나였음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이천은 그 후 백제와 신라연합군에 의한 고구려 공략으로 한강유역 일대의 失地회복이 실현되던 시기 551년까지 76년간을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다가 다시 백제에 영지가 되며, 그 2년 후인 553년(신라 眞興王 14)에는 신라군이 백제를 공략하여 이 지역을 다시 장악함으로써 이 후부터는 신라의 영지로 존속하게 된다

이천지방에 대하여 언급한 문헌상 최초의 기록은 『三國史記』 진흥왕 29년 조에 나오는 〈신라가 「北漢山州」를 폐하고 「南川州」를 설치했다〉는 기록이다³⁾ 이 기록을 통하여 당시 신라는 삼국의 세력이 교차하는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특히 이 지방을 중요하게 평가하여 南川縣을 州로 승격시키고 처음에는 北漢山州(지금의 廣州)에 두었던 州置를 이곳에 이동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신라는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州置를 南川州와 北漢山州로 번갈아 이동 배치하게 되니, 眞平王 26년(604)에는 南川州를

註 3) 冬十月, 廢北漢山州, 置南川州

폐하고 다시 北漢山州를 설치했다가 삼국통일 무렵에 와서는 이 땅에 「南川停」을 두어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킨다 이로써 이천지방은 서서히 막이 오른 삼국통일의 중요무대로 등장하게 되는데, 太宗武烈王 7년(660) 왕이 직접 거느린 신라군 정병 5만이 南川停에 주둔하고,⁴⁾ 배자 法敏과 金庾信 등을 德勿島(지금의 德積島)에 보내어 蘇定方の 唐軍 12만을 영접케 함으로써 마침내 삼국통일에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 『三國史記』列傳 金庾信 條를 보면 다음 왕인 文武王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南川州에 행차하여, 배편으로 鞋浦에 상륙하여 역시 南川州에 이른 唐의 장수 劉仁願과 회합했다는 기록이 보인다⁵⁾ 이때의 명칭이 南川停이 아닌 南川州이다

州는 행정단위이며 停은 당시의 군사조직이었다 眞平王 26년 이후 이 땅에 南川州를 설치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文武王 원년(661) 기록에 軍官 蘇世·高純을 南川州總管으로 삼았다는 대목이 있어 이 해에 州置를 다시 부활시켰던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註 4) 『三國史記』(太宗武烈王 7年條) 夏五月二十六日 王與庾信, 眞珠, 天存等 領兵出京, 六月十八日次 南川停

5) 『同上書』 於是 文武大王率 庾信, 仁問, 文訓等 發大兵向 高句麗 行次 南川州 鎮守 劉仁願以所領兵 自泗沘泛船至 鞋浦下陸. 亦營於南川州 .

나. 統一新羅時代

통일신라는 그 확대된 영토로 인하여 자연히 행정구역에 대한 재편성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 땅에서 당나라의 세력이 완전히 축출되는 文武王 17 ~ 18 년 (677 ~ 678) 경부터 神文王 7 년 (687) 사이에 완성된 9州 5小京이 그것이다

군사구역으로는 중앙에 9 摠廳을 두고 지방에는 10 停을 두었는데 10 停은 각 주마다 1 정씩을 두고 지역이 넓고 국방상 중요한 지역인 漢山州에만 2 개의 정을 설치했다 이들이 「南川停」과 「骨內斤停」으로 지금의 이천과 여주지방이었다

35 대 景德王 16 년 (757) 에 이르러 전국의 행정구역과 명칭의 당의 제도를 모방하여 개편하면서, 이때 이천은 「黃武縣」(혹은 荒武·貴武)으로 개칭되어 漢州의 領縣으로 삼고 縣衙를 지금의 新屯面 高尺里에 두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高麗時代

高麗 건국 19 년 (936) 太祖王建이 後百濟의 잔존세력과 마지막 결전을 위해 출병하여 이천을 지나가게 되었다 때마침 홍수가 나서 탁류가 가득한 福河川을 건너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차에 孝養山에 살던 이천사람 徐穆이란 이가 나서서 물길을 인도하여 모든 군사들이 무사히 내를 건널 수 있었다 그 후 후백제를 격파하여 통일을 성취하고 개선한 太祖가 〈利涉大川〉의 고사에서

인용하여 지금의 「利川」이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하며 ⁶⁾ 이것이 「利川」의 명칭이 처음 생겨나게 된 유래다

같은 왕 23년(940) 廣州 任內에 속하게 되고 17대 仁宗 21년(1143)에 監務를 두었다 고려시대의 郡 縣에는 領군현과 屬군현의 구별이 있어 영군현은 地方官을 설치한 군현을 말하고, 속군현은 별도로 지방관을 두지 않고 영군현이나 京, 또는 大都護府牧에 예속시켜 지방행정을 맡게 한 군현을 말한다 따라서 利川縣에 監務를 둔 것은 속현에서 영현으로 승격이 이루어진 셈이 되는 것이다

高宗 44년(1257)에는 「永昌縣」이라 개칭하고 縣衙를 新屯面 長洞里로 옮겼다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恭讓王 2년(1390) 왕의 할머니인 申씨의 고향이 이 곳이라고 하여 「南川郡」으로 승격시키며 ⁷⁾衙門을 다시 지금의 麻長面 午川里로 옮겼다

라 朝鮮時代

朝鮮 전국 이듬해인 1393(太祖 2) 南川郡을 「利川縣」으로 명칭을 바꾸어 監務를 두었다 太宗 13년(1423)에는 縣監을 두었고 世宗 13년(1431) 縣監의 직제를 다시 知縣事로 바꾸었다 분명한 기록은 나와있지 않으나 이 무렵에 麻長面 午川里에 있던 衙門이 邑內面(지금의 利川邑)으로 옮겨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천군지

註 6) 『東國輿地勝覽』 高麗太祖南征 郡人 徐穆導之 利步故賜今名爲郡仍屬 廣州

7) 『同上書』 恭讓王以祖妣申氏之鄉陞爲 南川郡

방행정의 중심지가 된다

世宗 26 年 (1444) 고을안에 민가호수가 1 천호 이상이 되었으므로 예에 따라 「利川都護府」로 승격시켜⁸⁾ 중 3 품 품계인 府使의 봉임지가 되었다 참고로 『世宗實錄』 地理志에 나타난 당시 통계를 보면 이천도호부의 戶가 1 천 2 십 6 에 인구는 3 천 8 백 9 십 8 인이었다

그 후 利川都護府는 고을안에서 역모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縣으로 강등되었다가 얼마간의 시일이 지나면 다시 府로 복원되는 과정을 되풀이 하게 되니, 光海君 5 年 (1613) 李景俊의 역모사건이 일어나 縣으로 강등되었다가 仁祖 1 年 (1623) 府로 환원되고, 같은 왕 22 年 (1644) 에는 洪陽傑의 역모사건으로 다시 縣으로 강등되었다가 孝宗 4 年 (1653) 에 가서 환원이 된다 또 英祖 5 年 (1729) 에는 朴弼祥의 역모사건이 고을안에서 발생하여 강등되었다가 같은 왕 14 年 (1738) 府로 환원이 되고, 正祖 1 年 (1785) 柳翰申의 역모사건으로 강등되었다가 같은 왕 9 年 (1785) 에 가서 다시 환원이 되었다

마 甲午更張 以後

갑오경장 이듬해인 1895 年 (高宗 32) 5 월 지방관계를 전국 23 府 331 郡으로 개편하면서 이천도호부를 「利川郡」으로 고쳐 「陰竹郡」과 함께 忠州府에 예속시켰다가 그 이듬해인 1896 年 8 월 23 府

註 8) 『同上書』 世宗二十六年以千戶以上例陞都護府

를 다시 13道로 개편하면서 京畿道에 편입시켜 四等郡이 되었다
 日帝하인 1914년⁹⁾ 전국 317郡을 재정비하여 12府 218郡으로
 郡·面을 통폐합하면서 陰竹郡의 대부분을 병합하여 오늘날과 같
 은 지역관도를 갖게 되었다

바. 陰竹郡의 變遷

陰竹郡은 高句麗때의 「奴音竹縣」으로 「雪城」이라는 다른 명칭
 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삼국통일 이후인 景德王 16년 전국의 지방
 관제를 개편하면서 「陰竹縣」으로 개칭하여 介山郡(지금의 安城郡)
 의 領縣으로 삼았다¹⁰⁾

고려 顯宗 9년(1018) 忠州 任內에 속하였다가 뒤에 監務를 두었
 다 조선 太宗 13년(1423) 충청도로부터 경기도에 예속시켜 縣監을
 두었다

1895년 지방관제 개편과 함께 「陰竹郡」이 되어 利川郡과 더불
 어 忠州府에 예속되었다가 이듬해 경기도로 편입되어 四等郡이 되
 었다

註 9) 1955년 발행 『利川大觀』에 의하면 利川郡과 陰竹郡의 통폐합
 년도가 단기 4246년(1913) 12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통
 폐합은 1914년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 『世宗實錄地理志』 本高句麗奴音竹縣 新羅改今名爲介山郡領縣

1914 년 郡을 撤하고 이천군에 병합되면서 東面 老坪里 일부와 下栗面 叢谷里 일부, 上栗面 八星里 일부 및 石橋村 일부지역이 충청북도 음성군에 분할예속되고, 그 나머지 전 지역과 음성군 法旺面 石院里 일부 및 谷衣面 龜山里가 이천군에 래합하였다 <表 1 >

< 表 1 > 利川郡 郡名の 變遷

시 대	연 대 별	利 川 郡	陰 竹 郡
고 구 려	A D 475 ~ 551	南川縣 (南買)	奴音竹縣 (雪城)
신 라	568 (진 흥왕 29)	南 川 州	
통일신라	757 년 이후	黃武縣 (荒武·貴武)	陰 竹 縣
고 려	940 (태조 23)	利 川 縣	陰 竹 縣
	1257 (고종 44)	永 昌 縣	
	1390 (공양왕 2)	南 川 郡	
조 선	1393 (태조 2)	利 川 縣	陰 竹 郡
	1444 (세종 26)	利川 都 護 府	
	1895 (고종 22)	利 川 郡	
일제시대	1914	利 川 郡	(利川郡에 併合)

여

백

2. 邑・面 行政區域과 地名の 變遷

여

백

邑・面 行政區域과 地名의 變遷

州・府나 郡・縣 밑에 面 또는 社(주로 咸鏡道지방)・坊(주로 平安道지방)과 같은 하부 행정조직이 차츰 정비되어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조선시대 전기에 와서였다 面・社・坊의 長은 風憲・約正・執綱・面任・坊首・坊長・社長・檢督・都平・里正長・管領 등의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웠으며, 이들은 座首・別監의 천거에 의해 지방수령이 임명하여 郡・縣으로부터 시달되는 정치적 명령의 전달, 賦稅의 독촉 등 지방자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케 했다

面の 밑으로 洞, 또는 里・村이 있고 그 밑의 기본조직으로는 五家作統의 법이라 하여 5戶를 1統으로 정하고, 統主를 두었다 5統을 한 데 묶어 里가 되고 몇개의 里를 합하여 面을 이루었으며, 面에는 별도로 勸農官을 두었다.

그러나 당시 面的 기능은 郡・縣과 洞・里 사이에 연락기관에 불과했던 것으로 邑・面이 오늘날과 같은 지방자치기구로 성격을 굳힌 것은 한일합방 이후에 실시된 지방관계 개편이후 부터가 된다

이천군의 경우 각 面的 명칭과 구분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기도 역시 조선시대 전기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1530년(中宗 25)에 증보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당시 이천도호부의 坊里로 屯之山을 비롯한 13개의 地名을 열거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面的 명칭이 붙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지명을 당시 이천도호부에 예속된 각 面的 조직과 명칭으로 단정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陰竹縣의 경우를 보면 東面・南面・無極面 등의 엄연한 面 행정지명이 열거되어 있어 이천도호부의 경우도 坊里편에 나타난 지명 전부를 당시의 面조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는 『輿地圖書』를 비롯한 다른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이천의 坊里는 屯之山(西 15 里)・新洞・沙北・陌土里(北 20 里)・夫老谷(東 20 里)・苧枝谷・月陽村(南 20 里)葛麻洞(南 40 里)・母山(西南 30 里)・大陽(南 20 里)・戸法(西南 20 里)・長水旺(西 20 里)・麻田洞(西北 20 里)의 13개이나 여기에 邑內面을 추가하여 14개 面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陰竹縣의 坊里로는 縣內(10 里)・東面(始 10 里, 終 25 里)・南面(始 10 里, 終 25 里) 西面(始 10 里, 終 20 里)・北面(始 15 里, 終 23 里)・下栗(始 20 里, 終 40 里)・上栗(南 30 里)・無極(南 始 20 里, 終 20 里)의 8개面이 있다고 나와 있다

그 후 1760년(英祖 36)에 간행된 『輿地圖書』에 의하면 이천의 坊里가 夫毛谷面・鉢山面・草枝谷面・月良村面・加麻洞面・暮山面・大陽面 戸法面・長壽旺面 麻田面・屯知山面・新洞面・沙北面・陌土里面・ 邑內面의 15개 面에 里가 93개 里, 호수 4,056 호, 인구가 도합 2만 2천 5백 4십 4 명으로 나와있어 東國輿地勝覽의 기록보다 邑內・鉢山 등 2개의 面이 추가되었고 명칭의 漢字표기도 약간씩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한편 陰竹縣은 邑內・東面 北面・西面・南面・下栗面・上栗面・無極面의 8개 面으로 변동된 점을 볼 수 없다

道光 22년(1842년 憲宗 8)에 간행된 『京畿誌』 이천・음죽편이나 光武 3년(1899년・高宗 36)에 간행된 『利川郡邑誌』와 『陰竹邑誌』의

기록도 輿地圖書와 일치하여 1백여년 이상이 지나도록 행정구역의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1905년(高宗 42) 面 행정구역과 명칭의 일부 개편이 이루어져 新洞面이 「新面」으로 屯之山面이 「屯面」으로 개칭되었고, 沙北面은 「沙面」, 陌土里面은 「栢面」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夫毛谷面과 鉢山面이 「夫面」과 「鉢面」으로 개칭되면서 鉢面の 馬岩리가 夫面に 편입되었고, 暮山面과 加麻洞面이 「暮面」과 「加面」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1910년에는 麻田洞面과 長水旺面이 「麻面」과 「長面」으로 개칭되었다 한편 陰竹郡의 北面이 西面の 금당리를 병합하여 「近北面」과 「遠北面」으로 개칭되었는데 그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한일합방 이후인 1912년 당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 의하면 利川郡이 15개 面 126개 里로서 15개 面은 呂內·新面·屯面·栢面·沙面 夫面·鉢面·戸法面·麻面·長面·大面·草面 月面·暮面·加面이었다 또 陰竹郡은 呂內面·東面·南面·近北面 遠北面·上栗面·下栗面·無極面の 8개 面과 80개 里가 있었다

1914년 4월 1일 전국 郡·面을 대상으로한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 面の 경우는 면적이 약 4方里, 호구수 약 800호를 최저기준으로 한 각 面の 통계합이 실시되었다 이 때 陰竹郡의 대부분이 利川郡으로 흡수되어 오늘날과 같은 지역관도를 갖게 되며 함께 실시된 면의 통계합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新屯面

新面과 屯面을 합하여 「新屯面」으로 개칭하면서 沙面(백사면)

長洞里와 道峰里를 편입.

○ 栢沙面

栢面과 沙面을 합하여 「栢沙面」으로 개칭하면서 沙面 長洞里와 道峰리가 新屯面으로 분리 편입됨.

○ 夫鉢面

夫面과 鉢面을 합하여 「夫鉢面」으로 통합개칭

○ 戶法面

명칭은 그대로 둔 채 大陽面 松葛山里와 暮山面 石塘村里, 長面 土谷리가 새로 편입됨.

○ 麻長面

麻面과 長面이 麻長面으로 통합 개칭되면서 長面 土谷리가 戶法面으로 분리 편입됨.

○ 大月面

大面・草面・月面이 하나로 합해져 「大月面」으로 개칭되면서 大面 松葛山里가 戶法面으로 분리 편입됨.

○ 暮加面

暮面과 加面을 합하여 「暮加面」으로 개칭하면서 暮面 石唐村里가 戶法面に 분할 예속됨

○ 清溪面

陰竹郡의 呂內面(縣內)・東面・南面을 합하여 「清溪面」으로 개칭하면서 東面 老坪里 일부지역이 忠北 陰城郡에 분할 예속됨

○ 雪星面

陰竹郡의 近北面・遠北面・西面을 통합하면서 面 동쪽에 있는 雪城山과 서쪽에 있는 老星山の 명칭에서 한 글자씩 따다가 「雪星面」으로 이름하였음

○ 栗面

陰竹郡의 上栗面과 下栗面을 합하여 「栗面」이 되면서 陰城郡과의 경계를 이루는 일부지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 짐. 즉 下栗面 叢谷里 일부 및 上栗面 八星里, 石橋村 일부지역이 陰城郡에 분할 예속되고 陰城郡의 法旺面 石院里, 谷衣面 龜山里 일부지역이 栗面に 래합하였다

○ 無極面

陰竹郡 無極面 전지역이 陰城郡에 편입됨

이렇게 해서 이천군은 邑內面을 포함하여 新屯・栢沙・夫鉢・戸法・麻長・大月・暮加・淸溪・雪星・栗의 11개 面으로 구성되어 邑內面이 利川 邑으로 승격되기 전까지 존속하여 왔다

면제도는 1930년 개정읍면제가 공포됨으로서 그 이듬해부터는 지방 행정의 지역단위가 읍면제도로 바뀌어 오늘날과 비슷한 공적지위와 자격여건을 구비한 邑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이와같은 제도변경에 의해 1938년 10월 1일 邑內面이 「利川邑」으로 승격되었고, 이 때 新屯面의 沙音里와 松亭里, 戸法面의 乾川里(지금의 栗峴里)가 利川邑에 편입되었다 또 1941년 10월 1일에는 淸溪面이 「長湖院邑」으로 승격되어 오늘날과 같은 2 邑 9개 面이 되었다 (表 2)

〈表 2〉 邑・面 行政區域 및 地名의 變遷

邑 面 別	東 興 (1500년대)	興 圖 (1700년대)	1905 ~ 1910	1914 年 이후
利 川 邑		邑 內 面	邑 內 面	邑 內 面 (1938년 利川邑으로 승격)
長 湖 院 邑	縣 東 南 內 面 面	邑 東 南 內 面 面	邑 內 面 (縣 內 面) 東 南 面 面	清 漢 面 (1941년 長湖院邑으로 승격)
新 屯 面	屯 之 山 新 洞	屯 知 山 新 洞 面	屯 面 新 面	新 屯 面
栢 沙 面	陌 土 里 沙 北	栢 土 里 沙 北 面	栢 面 沙 面	栢 沙 面
夫 鉢 面	夫 老 谷	夫 毛 谷 鉢 山 面	夫 面 鉢 面	夫 鉢 面
戶 法 面	戶 法	戶 法 面	戶 法 面	戶 法 面
麻 長 面	麻 田 洞 長 水 旺	麻 田 洞 長 壽 旺 面	麻 面 長 面	麻 長 面
大 月 面	大 亭 枝 月 陽 村	大 陽 面 草 枝 谷 良 村 面	大 草 月 面 面	大 月 面
暮 加 面	母 山 葛 麻 洞	暮 山 面 加 麻 洞 面	暮 面 加 面	暮 加 面
雪 星 面	北 面 西 面	北 面 西 面	近 遠 北 西 面 面	雪 星 面
栗 面	上 栗 下 栗	上 栗 面 下 栗 面	上 栗 面 下 栗 面	栗 面
(陰 竹 郡)	無 極	無 極 面	無 極 面	(陰 城 郡 으로 편입)
計	21	23	24	11

3. 里 別 地 名 의 變 遷

여

백

里別 地名의 變遷

앞 장에서도 언급했던 바와같이 조선시대 지방행정조직의 최소단위는 五家作統의 法이었다 이는 犯罪者의 색출과 税金徵收, 부역의 동원 등을 效果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成宗 16년(1485) 韓明滄의 주장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肅宗 1년(1675)에 비변사에서 五家作統法을 작성하여 조직을 강화했다

다섯 民戶를 한데 묶어 1統이 되고 다섯 개의 統으로 里를 이룬다고 했으니 하나의 里는 대략 스물다섯의 民戶로서 구성되었던 셈이다 이 五戶 1統이 高宗 32년(1895)에 와서는 10戶를 1統으로 하는 제도로 바뀌어 진다 그러나 당시 里를 정하는데 있어 5統이라는 기본구성이 엄격하게 지켜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대략 수십호의 군집되어 있는 하나의 자연부락을 里(또는 洞·村)라 이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각 里·洞·村에도 長이 있어 尊位·約首·洞首·洞長·里正·頭民·坐上·領坐 統首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리웠다

『輿地圖書』에는 利川都護府에 坊里로 모두 15개 面에 93개 里가 있다고 나와 있다 그 후 약 140여년이 지난 光武 3년(1899)에 발행된 『利川郡邑誌』에는 面이 같은 15개에 里의 명칭은 모두 90개만 기록되어 있어 숫자상으로는 오히려 3개의 里가 줄어든 셈이 된다 또 1912년에 나온 조선총독부 자료에는 里의 수효가 126개로 나와 있어 정확한 당시의 里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陰竹郡의 경우는 1842년 발행 『京畿誌』 陰竹編과 1895年(高宗 32) 발행 邑誌, 光武 3년 발행 邑誌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명칭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혼란이 더욱 심하다

1914년 郡·面에 대한 통폐합과 함께 里의 개편과 재조정이 이루어지며 특히 명칭에 대한 전면적인 개칭작업이 실시되어 대략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상 관계문헌에 나타난 里名과 그 변천과정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

〈表 3〉 里別 行政區域과 名稱의 變遷

(1) 利川郡

邑 面 別		京畿邑誌・京畿誌	利川郡邑誌 (1899 年)	1914 年以後	備 考
利 川 邑	邑 内 面	官後里 (局西)	官 後 里	官 庫 里	

邑 面 別		京畿邑誌・京畿誌	利川郡邑誌 (1899 年)	1914 年以後	備 考
新 屯 面			水 下 里	水 下 里 水 廣 里	
	屯知山面	高尺里 (15 里) 後洞里 (") 水南里 (13 里)	高 尺 里 後 洞 里 水 南 里	高 尺 里 印 後 里 水 南 里 南 井 里 小 亭 里 竜 眼 里 馬 橋 里 長 洞 里 道 峰 里	
		(8)	(9)	(13)	沙北面에서 편입 "
栢 沙 面	栢土里面	温方里 (20 里) 上洞里 (20 里) 牛谷里 (15 里) 黎田里 (14 里)	温 方 里 上 洞 里 牛 谷 里 黎 田 里 助邑洞里 道知谷里	玄 方 里 上 竜 里 牛 谷 里 牟 田 里 助 邑 里 道 知 里	
	沙 北 面	黒岩里 (20 里) 道峰里 (8 里)	黒 岩 里 道 峰 里		
					温方里와 합해져 玄 方리가 됨 新屯面으로 편입

邑 面 別		京畿邑誌・京畿誌	利川郡邑誌 (1899 年)	1914 年以後	備 考
栢 沙 面	沙 北 面	長洞里 (10 里)	長 洞 里		新屯面으로 편입
		新垞里 (9 里)	新 垞 里	新 垞 里	
		沙北里 (9 里)	沙 北 里	} 京 沙 里	7 大
		京沙垞里 (14 里)	京土垞里		
		道立里 (15 里)	道 立 里	道 立 里	
		末谷里 (20 里)	末 谷 里	松 末 里	
				内 村 里	
				白 隅 里	
		(12)	(14)	(12)	
夫 鉢 面	夫毛谷面	取里薺里 (13 里)	取里薺里	(未 詳)	山村里地域으로 推定
		巨次牙里 (10 里)	巨次牙里	茂 村 里	
		注洞里 (15 里)	注 洞 里	竹 堂 里	
		元積洞里 (20 里)	元寂洞里	新 元 里	
		大 旺 里 (20 里)	大 旺 里	大 冠 里	
		高 寺 里 (20 里)	高 寺 里	高 白 里	
鉢 山 面	鉢 山 面	馬 巖 里 (5 里)	馬 巖 里	馬 岩 里	---
		梅花谷里 (7 里)	梅花谷里	新 河 里	
		加佐洞里 (8 里)	加佐洞里	加 佐 里	
		峨眉垞里 (10 里)	峨眉垞里	牙 美 里	
		水 井 里 (20 里)	水 井 里	水 井 里	

邑 面 別		京畿邑誌・京畿誌	利川郡邑誌 (1899 年)	1914 年以後	備 考
夫鉢面	鉢山面	麥山里(20里) 鷹巖里(25里)	麥山里 鷹巖里	柯山里 鷹巖里 山村里 松溫里	
		(13)	(13)	(14)	
戸法面	戸法面	乾川里(5里) 酉良谷里(7里) 安古里(10里) 厚美村里(15里) 琥珀村里(16里) 丹川里(16里) 東山色里(18里)	乾川里(栗峴里) 酉良谷里 安古里 厚美村里 琥珀村里 丹川里 東山色里	西山里 安坪里 厚安里 珠珀里 丹川里 東山里 珠美里 梅谷里 松葛里	利川邑으로 편입 長面에서 편입 大陽面 松葛山里와 暮山面 石塘村里에 서 편입
		(7)	(7)	(9)	
麻長面	麻田洞面	億萬里(23里) 五千里(22里) 冠洞里(20里)	億萬里 五川里 冠洞里	灰億里 午川里 冠里	

邑 面 誌		京畿邑誌・京畿誌	利川郡邑誌 (1899 年)	1914 年以後	備 考	
麻 長 面	麻田洞面	雀 別 里 (25 里)	雀 別 里	芍 村 里		
		惠 坪 里 (23 里)	德 坪 里	德 坪 里		
				蟹 越 里		
				陽 村 里		
	長寿旺面	木 洞 里 (5 里)	木 洞 里	木 里		} 長 岩 里
		長寿旺里 (6 里)	長寿旺里			
		門 巖 里 (7 里)	門 巖 里			
		屯 田 里 (10 里)	屯 田 里	標 橋 里 (?)		
		梨 峙 里 (17 里)	梨 峙 里	梨 峙 里		
		泥 坪 里 (20 里)	泥 坪 里	泥 坪 里		
土 谷 里 (35 里)		土 谷 里	(梅谷里)			
		各氏洞里	各 坪 里			
	(12)	(13)	(13)	戸法面으로 편입		
大 月 面	草芝谷面	草芝谷里 (15 里)	草枝谷里	草 芝 里		
		富 必 里 (20 里)	富 必 里	夫 必 里		
		範 興 里 (12 里)	範 興 里	} 大 興 里		
			大 洞 里			
			高垵巖里	高 潭 里		
				已 洞 里		

邑 面 別		京畿邑誌・京畿誌	利川郡邑誌 (1899年)	1914 年以後	備 考
大 月 面	月良村面	夫皇洞里 (18 里)	夫皇洞里	長 坪 里	
		九時洞里 (19 里)	九時洞里	九 時 里	
		松蘿洞里 (20 里)	松蘿洞里	松 蘿 里	
		上郡梁里 (30 里)	上郡梁里	} 郡 - 梁 里	
		下郡梁里 (25 里)	下郡梁里		
	大 陽 面	葛 山 里 (23 里)	葛 山 里	(新葛里)	暮加面으로 편입
		松葛山里 (18 里)	松葛山里	(松葛里)	戸法面으로 편입
		丹月川里 (15 里)	丹月川里	丹 月 里	
		首理洞里 (23 里)	道理洞里	道 理 里	
				大 垓 里	
				大 浦 里	
		(12)	(14)	(14)	
暮 加 面		素 沙 里 (30 里)	素 沙 里	素 沙 里	侍美洞里와 합해져 豆美리로 개칭됨
		元 頭 里 (27 里)	元 頭 里	院 頭 里	
		町古之里 (27 里)	町古之里	所 古 里	
		侍美洞里 (25 里)	侍美洞里	豆 美 里	
		五里洞里 (25 里)	五里洞里	(未 詳)	
		頃 亦 里 (27 里)	豆 亦 里	(豆美里)	
		於陵洞里 (28 里)	於農洞里	於 農 里	
		石塘村里 (29 里)	石塘村里	(松葛里)	

邑 面 別		京畿邑誌・京畿誌	利川郡邑誌 (1899年)	1914年以後	備 考
暮 加 面		郡梁里 (25 里)	郡 梁 里	梁 坪 里	大陽面 葛山里에서 이속
		松谷里 (40 里)	松 谷 里	松 谷 里	
		加洞里 (35 里)	加 洞 里	西 垆 里(?)	
		山内里 (10 里)	山 内 里	山 内 里	
				新 葛 里	
		(12)	(12)	(11)	
計		84	90	97	

(2) 陰竹郡

邑 面 別		京 畿 道 誌	陰 竹 邑 誌 (1895 年)	陰竹邑誌 (1899 年)	1914 年以後	備 考
長 湖 院 邑	郡 内 面 (縣内面)	南山里(南1里) 鄉校里(西2里) 院下里(東2里) 楸洞(西4里) 氷庫里(東2里)	邑 内 院 下 里 善興里(東2) 新 楸 洞	邑 内 院 下 里 善 興 里 楸 洞 方 角 洞 (南2)	善邑里 方楸里	
	南 面	松谷里(南7里) 大井里(南10里) 於云洞(南15里) 階巖里(南15里) 長海院(南13里)	松 谷 里 筆峴里(南15) 近西里(南7) 大 井 里 於 云 洞 階 巖 里 玼村里(南13)	松 谷 筆 峴 近 西 里 大 井 里 於 云 洞 階 巖 長 海 院 坪村里(南15) 石橋村(〃) 南川洞(〃) 梧倉里(〃)	松山里 大西里 於石里 珍岩里 長湖院里 梧南里	
	東 面	留春駅(東5里) 蘆谷里(東7里) 羅來洞(東10里) 上谷里(北10里)	留 春 沢 蘆 洞 羅 來 洞	留 春 駅 蘆 洞 羅 來 洞	(未詳) 梨 黃 里 羅來洞	梨黃里로추정

面 別	京 畿 道 誌	陰 竹 邑 誌 (1895 年)	陰竹邑誌 (1899 年)	1914 年以後	備 考
東 面	尾冶里 (東 10 里)	尾 洞	尾 洞	瓦 峴 里	瓦峴里로추정
	狐峴里 (")	皓 峴 里	皓 峴 里		
	赤界里 (")	赤 界 里	赤 界	} 豐界里	음성군에 일 부 병합 蘆洞과 합하여 梨黃里가 됨.
	竜溪里 (東 8 里)		豐土里 (東 7)		
	巨勿里 (東 15 里)	巨 勿 里	巨 勿 里	} 老塔里	
		老坪里 (東 10)			
		塔 村 (")	塔 村	(梨黃里)	
	黃庭浦 (東 7)				
	(19)	(25)	(22)	(13)	
北 面	黑 石 (北 10 里)	黑 石 里	黑 石	} 自石里	
		自隱洞 (北 10)			
	垂巖里 (")	垂 巖 里	垂 巖 里	} 岩山里	
		九山洞 (北 15)	九 山 里		
	上八界 (北 15 里)	上 八 界	上 八 界	} 松界里	
	下八界 (北 13 里)	下 八 界	下 八 界		
		松洞里 (北 10)	松 洞		
		直山洞 (西 12)	直 山 洞	} 長泉里	
長角里 (北 10)	長角里	長 角 洞			
	寒泉洞 (北 7)	寒 泉 洞			

邑 面 別		京 畿 道 誌	陰 竹 邑 誌 (1895 年)	陰竹邑誌 (1899 年)	1914 年以後 ()	備 考		
雪 星 面		樹谷里 (北 15 里)	樹 谷 里 鶯山洞 (北 20) 城谷里 (北 15) 大山洞 (北 20) 高峰里 (西 13)	樹 谷 大 山 洞	} 樹山里 (未詳) 大 竹 里 上 峰 里	樹山里 또는 大竹里地域으 로 추정		
		細筆里 (西 7 里)	細 筆 里	細 筆 里			新 筆 里	
		松三洞 (西 15 里)	松 三 洞	松 三 洞			金 堂 里	
		蓼 谷 (西 20 里)	蓼 谷 里 諸葛村 (南 15)	蓼 谷 諸 葛 村			} 諸蓼里	
		尸文里 (西 20 里)						
	西 面	興祿洞 (")	興 祿 洞 分竹里 (西 15) 行尋村 (") 新興洞 (西 10) 舟頭村 (西 17) 烏木洞 (西 20)	興 祿 洞 分 竹 里 行 尋 村 新 興 洞 烏 木 洞	} 行竹里	(未詳) (") (")	新筆里地域 으로 추정 安城郡一竹面 唐村里로추정됨	
		(11)	(25)	(20)				(12)
		栗 面	下 栗 面	楸 洞 (西 20 里)				上楸洞 (西 15) 下楸洞 (")
				池谷里 (西 15 里)	池 洞 (南 15) 高尺里 (")	池 洞 高 尺 洞		} 高塘里

區 面 別		京 畿 道 誌	陰 竹 邑 誌 (1895 年)	陰竹邑誌 (1899 年)	1914 年以後	備 考		
甲	下 栗 面	都月里 (南 20 里)	都月里 (南 15)	都 月 里	} 月浦里	陰城郡으로 일부 래속		
		洞門里 (南 15 里)	洞 門 里	洞 門 里				
		退浦里 (南 20 里)	退 浦 里	退 浦 里				
		叢谷里 (")	叢 谷 里	叢 谷 里	叢 谷 里			
	上 栗 面	尺五里 (南 20 里)	尺 五 里	尺 五 里	} 五城里		}	"
		長城洞 (南 25 里)	長 城 洞	長 城 洞				
		下山洞 (")	下 山 洞	下 山 洞	} 山星里			
		上山洞 (")	上 山 洞	上 山 洞				
		八星里 (南 30 里)		石 院 洞				
			石橋村 (南 27)	石 橋 村	石 山 里			
		竜山洞 (南 30 里)	竜 山 洞	竜 山 洞	山 陽 里			
		北頭里 (")	北 頭 里	北 頭 里	北 斗 里			
		本栗洞 (南 25 里)	本 栗 (南 20)	本 栗 洞	} 本竹里			
			竹 栗 (")					
	(14)	(17)	(16)	(10)				
丙 亟 五	無 極 面	舘 村 (南 30 里)	舘 村 里	舘 村 里		陰城郡으로 분할 예속		
		萩山里 (")	屏 山 里	屏 山 里				
		鎮谷里 (南 35 里)						

邑 面 別		京 畿 道 誌	陰 竹 邑 誌 (1895 年)	陰竹邑誌 (1899 年)	1914 年以後	備 考
無 極 面	無 極 面	生湯洞 (南 35 里) 道貫里 (")	生 湯 洞 道 貫 里 無愁洞 (南 30) 陳 洞 (") 新 村 (南 35) 昆池巖 (南 30)	生 湯 洞 道 貫 里 無 愁 洞 陳 洞 新 村 昆 池 巖		陰城郡으로 분할에속
		(5)	(8)	(8)		
計		49	75	66	35	

第二編 地名의由來

여

백

1. 利 川 의 地 名 由 來

여

백

利川の 地名由來

가. 「南川」의 由來

利川은 고구려 때의 南川縣(또는 南買)이었다 그 후 신라가 南川州를 설치했다가 삼국통일 후 黃武縣으로 개칭되었고,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恭讓王이 왕의 할머니인 申氏의 고향이라고 하여 南川郡으로 승격시키기도 했다

辛兌鉉氏는 그의 『三國史記 地理志 研究』에서 「南川」·「南買」를 다음과 같이 풀이 한다¹⁾

南은音が「남」으로「늑」(느르-늘-늑-느-늑)의音借이며「緩」의 뜻이다 「川」은「나라」의訓借이다「南川」은「늑내(緩川)」이고「南買」는「늑므(緩水)」이고,「黃武」는「느르므」이라 하였다 결국 南川·南買는 순수한 토박이 우리말 지명인「늑내」를 한자화한 지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兪昌均 教授는 그의 저서 『韓國 古代漢字音의 研究』에서 南川·南買의 어원을 辛兌鉉氏의 의견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²⁾ 즉 南川의「南」은 南蘇·南部·南海 등의 경우와 같이 방위를 나타내는 訓으로 당시의 발음은「ke l(골)」이라는 것이다.

註 1) 1979 京畿道發行 『京畿道史』 제 1 권, 1287 p

2) 『韓國古代漢字音의 研究』 啓明大學校 出版部發行, 282 ~ 283p

「川」은 訓으로 발음은 「mɛ̃r(물)」이며 南買의 「買」는 川에 대응하는 音이다 따라서 南川 南買는 그 뜻이 「南水」이며 발음은 다같이 「골물」이라고 했다

南川의 어원이 「늪내」나 또는 「골물」이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판가름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다만 여기서는 상반되는 두가지 의견을 모두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이를 토대로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利川」의 由來

이 땅이 「利川」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은 고려건국 이후부터 이다 利川의 지명유래는 『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각종 문헌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고려 건국 19년(936) 太祖 王建이 후백제의 甄萱의 아들 神劍과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출정하는 길에 이천을 지나가게 되었다 때는 여름철이라 때마침 홍수가 나서 탁류가 굽이치는 福河川을 건너지 못하고 망서리고 있는데, 孝養山에 살던 고을사람 徐穆이 나서서 물길을 인도하여 무사히 내를 건널 수 있었다. 그 후 神劍이 거느린 후백제의 잔존세력을 一利川(지금의 善山)에서 크게 무찔러 마침내 후삼국의 통일을 성취하고 개선한 太祖가 〈利涉大川〉의 고사에서 인용하여 利川이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한다

다른 일설에는 당시 출정을 앞둔 太祖가 이 고을에 주둔하여 점을 쳐보았더니, 〈利涉大川〉이라는 점괘를 얻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접패에서 따다가 利川이라는 이름을 내렸다고도 한다

다 「陰竹」의 由來

고구려때 奴音竹縣이었는데 신라 景德王 16年(757) 陰竹縣으로 고쳐서 1914年 利川郡에 병합될 때까지 그대로 존속하여 왔다

『三國史記 地理志 研究』에서 辛兌鉉씨는 奴音竹의 어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奴音竹의 「奴」의 음은 「노」로 「느」의 음借이고 「音」은 「음」으로 「奴音」은 「늬」이다 그리고 그 뜻은 「緩・延・連」이다 「竹」은訓이 「대」로 「닷・닿」의訓借이다 결국 奴音竹縣은 「늬닿골」로 〈늘어져 水邊에 닿는 골〉이라는 뜻이라고 하였으니 南川・南買의 「南」이나 奴音竹의 奴音が 同一한 뜻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兪昌均 教授는 奴音竹의 세음절이 모두 음借로써 고대 고구려어의 당시 발음을 「narem-dak」으로 추정하고 있어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³⁾

奴音竹의 다른 명칭이 「雪城」이다 雪城은 옛날 陰竹縣의 衙門이 있던 善邑里 서편에 있는 옛 城의 명칭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여겨지는데, 석축으로 된 이 山城은 三國時代에 쌓은 城이라고

註 3) 『同上書』p.291

만 알려져 있을 뿐 다른 유래를 알 수 없다 雪城의 우리말 지명은 「눈재」 또는 「눈골」이다

이 雪城이 있는 산의 이름 또한 雪城山으로 『東國輿地勝覽』에는 〈在縣西五里〉라 하여 「城山」으로 나와 있다

2. 各 邑 面 의 地 名 由 來

여

백

各 邑・面の 地名由來

가 利川邑

世宗 26 年(1444) 利川縣을 利川都護府로 승격시키면서 麻長面 午川里에 있던 衙門을 지금의 利川邑으로 이전하고 「邑內面」이라 했는데, 衙門이 이전해온 연대에 관해서는 太祖 2 年(1393) 이라는 설도 있어 분명치가 않다

이후 계속 邑內面으로 불리워 오다가 1938 年 10 月 1 日 邑으로 승격하면서 「利川邑」이 되었다 이 때 新屯面の 沙音里(옛 명칭은 切音里)와 松亭里(옛 명칭은 松亭里와 牙里馱里), 戶法面の 栗峴里(옛 명칭은 乾川里)가 利川邑에 편입되어 오늘의 지역관도를 이루었다

나 長湖院邑

『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현 동쪽 13 里 지점에 「長海院」이 있다고 하여 원래의 명칭은 長海院으로 조선시대의 驛院을 두었던 곳이다 陰竹縣 南面に 속해 있었으며 1899 年 발행 『邑誌』에는 長海院이 長湖院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수록되어 있는데 「長海」나 「長湖」의 어원은 분명치가 않다

1914 年 3 月 행정구역 개편시 利川郡에 통합되면서 陰竹郡의 縣內(邑內面)・東面・南面の 3 개 면을 합하여 「淸溪面」으로 개칭

하였고, 이 때 老坪里 (지금의 老塔里) 지역 일부가 충청북도 陰城郡
으로 분할 예속되었다

1915 년 관내 31 개 里洞을 13 개 里로 개편하면서 大西里 지역
일부가 雪屋面에 편입되었다⁴⁾

1941 年 10 月 1日 改定 邑面制에 따라 邑으로 승격되면서 현재의
「長湖院邑」이 되었다

다 新屯面

원래는 屯之山과 新洞이었다 면제도의 확립과 함께 屯之山面
과 新洞面이 되었다가 1905 年 新面과 屯面으로 개칭되었다

1914 年 3 月 행정구역 개편시 栢沙面の 長洞里와 道峰里가 편입
되면서 「新屯面」으로 개칭되었고, 1938 年 沙音里와 松亭里가 利
川邑으로 분할 예속되어 오늘에 이른다

라 栢沙面

원래는 沙北과 陌土里였다 그 후 沙北面과 栢土里 (또는 陌土里)
面으로 고쳐 부르다가 1905 年 栢面과 沙面으로 개칭되었고, 1914
年 4 月 「栢沙面」으로 통합개칭되면서 長洞里와 道峰里가 新屯面
에 편입되었다

註 4) 『 利川大觀 』, p. 79.

나 夫鉢面

『東國輿地勝覽』에는 夫老谷의 지명만 나와 있다 그 후 夫毛谷面과 鉢山面으로 개칭되었다가 1905 年 7 月 夫面과 鉢面이 되면서 鉢面 馬岩里가 夫面に 편입되었다

1914 年 행정구역 개편시 「夫鉢面」으로 통합개칭되고 이듬해인 1915 年 면내 33 개 里洞을 14 개 里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른다

바 戶法里

『東國輿地勝覽』 利川都護府 土産條에 의하면 〈白玉出護法里〉라고 하여 원래의 명칭은 「護法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戶法面」으로 개칭되었으며 1914 年 행정구역 개편시 大陽面 松葛山里와 暮山面 石塘村里(지금의 松葛里), 長面 土谷里(지금의 梅谷里)가 편입되었고, 1938 年 乾川里(지금의 栗峴里)가 利川邑에 편입되어 오늘날의 지역관도를 이루게 되었다

사. 麻長面

고려말에 南川郡 衙門을 두었으며 조선조에는 午川里에 驛院이 있었다 원래는 長水旺과 麻田洞이었다가 그 후 長水旺面과 麻田洞面으로 개칭되었다

1910 年(純宗 4) 麻面과 長面으로 다시 개칭되고 1914 年「麻長面」으로 통합되면서 土谷里(梅谷里)가 戶法面に 편입되었다

아 大月面

『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大陽・月陽村・苧枝谷은 모두 府 남쪽 20 里에 있다고 했다 그 후 大陽面・月陽村面(또는 月良村面)・草枝谷面으로 부르다가 1905 ~ 1910 年 사이에 大面・月面 草面으로 개칭되었다

1911 年 10 月 3 개 面을 통합하여 「大月面」이 되면서 大面 石塘里(지금의 松葛里)를 戶法面으로 이속시키고 梁坪里(옛 명칭은 郡梁里)와 新葛里(옛 명칭은 葛山里로 추정)를 暮加面에 이속시켰다⁵⁾

1966 年 8 月 9 日 면 중앙에 海龍山이 가로 막혀 소통이 불편함으로 草芝里에 초지출장소를 개설하였다

자 暮加面

원래는 母山과 葛麻洞이었는데 면제도가 확립되면서 暮山面과 加麻洞面으로 개칭되었다 1905 年 7 月 暮面과 加面으로 고쳐 부르다가 1914 年 大月面 梁坪里와 新葛里를 편입시킴과 동시에 「暮加面」으로 통합개칭되어 오늘에 이른다

註 5) 『利川大觀』, p.85.

차 雪星面

원래는 陰竹郡의 北面과 西面이었다 그 후 1905 ~ 1910 년 사이에 北面이 近北面과 遠北面으로 개칭되었고 1914 年 陰竹郡이 利川郡에 병합되면서 「雪星面」으로 개칭되었다 1915 年 淸溪面(지금의 長湖院邑) 大西里 일부지역이 분할예속되어 오늘의 지역관도를 이루게 되었다

「雪星」이라는 지명은 面 동쪽 新筆里와 長湖院邑 善邑里 사이에 있는 「雪城山」과 서쪽 安城郡 一竹面과 雪星面の 경계를 이루는 「老星山」의 山名에서 한 글자씩 따다가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카 栗面

원래는 陰竹郡의 上栗面과 下栗面이었으며 本竹里의 옛 명칭인 本栗洞(밤골)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1914 年 행정구역 개편시 利川郡에 편입되면서 「栗面」으로 개칭되었는데, 이 때 충청북도 음성군과의 경계를 이루는 일부지역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앞 장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여

백

3. 부 락 명 의 由 來

여

백

部落名の 由來

가. 利川邑編

1) 倉前里

倉前里는 1914 年 里의 改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倉前里」와 「司庫前里」 2 개의 部落이었다

『利川郡邑誌』 倉고條를 보면 司倉坐起廳(3 間 在衙舍 東)・左庫(30 間)・右庫(30 間)・官廳坐起廳(3 間 在客舍 前)・庫(10 間)・軍器庫(4 間 在別館 右)・氷庫(5 間 在司倉併)・江倉(4 間 在府東 30 里)라 하여 利川府 管아에 豫속된 各種 倉고의 名칭이 열거되어 있다

倉前里나 司庫前里가 모두 이들 倉고 앞에 위치한 部落이란 뜻에서 나온 지명으로 풀이된다

옛날에는 이천읍 북편을 흐르는 中里川의 수량이 풍부하여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온 稅穀船이 북하천을 거쳐 직접 이천읍까지 드나들었다는 밀도 전해오고 있으나 신빙성이 희박하다

① 사거리 - 倉前 2 里

司庫前里를 司庫里라고도 했는데 이 「사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사방으로 통한 길을 일컫는 말인 사거리(네거리)로 변형되었다

② 이포사거리 - 倉前 3 里

「주막거리」라고도 부르며 梨浦로 통하는 도로 초입에 위치한

사거리란 뜻이다 지금의 이천군교육청 입구로서 도시개발에 따라 옛모습이 없어졌다

③ 북새말－창전 4 리·동새말－창전 6 리

北新村과 東新村의 뜻으로 풀이된다 6.25 동란 이후 실향민들이 들어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이루었고 그 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큰 마을로 변모되었다

2) 官庫里

옛 명칭은 「官後里」였다 『利川郡邑誌』 公廨條를 보면 別館(房 2 間, 大廳 10 間, 越房 7 間)·客舍(8 間 別館西邊)·衙舍(22 間 東野西倉)·討捕廳(衙舍後)·作廳(衙舍外門邊)·使令廳 奴房廳·刑房廳 등 관아에 속한 부속건물들의 명칭이 열거되어 있다 이 건물들은 아리산 밑으로 지금의 이천경찰서와 이천읍사무소의 터를 중심으로 자리했었고, 일제 때에는 일본군수비대의 병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가 6.25 전란시 모두 불타 없어졌다

官後里란 글자 그대로 관아 뒤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며 행정구역 개편시 「官庫里」로 개칭되었다

① 사장거리 - 관고 1 리

원래는 東射場址와 西射場址가 있었다 동사장지는 현재 이천천주교회 아래편이 되며 서사장지는 관고 1 리에 큰 느티나무고목이 서있는 장소 부근이었다 이 곳은 모두 옛날 한량들이 모여 활을 쏘던 활터가 있던 곳으로 「사장거리」는 이 사장터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② 개배미 - 관고 2 리

「개배미」는 지금의 양정여중고 부근 일대의 부락을 말하며 그 유래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고 있다

옛날 어느 해인가 흉년이 몹시 들어 사람들은 풀뿌리와 산나물로 연명해야 했다 그 때 이 마을에 한 농부가 있어 는 한 배미와 개 한 마리를 바꿔 먹었다고 해서 그 때부터 마을 이름을 개배미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부락 근처에 논들이 모두 손바닥만 하고 토질이 나빠 개 한마리와 바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배미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논배미가 모두 손바닥만 하여 개배미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말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일대는 기치미고개에 이어지는 경사지고 협소한 지형으로 논이 모두 규모가 작으며, 우리말에는 개살구·개머루·개떡·개복숭아 등의 예에서 보듯 작고 시원찮은 쪽에 「개」의 접두어를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양정여중고 정문 앞 마을이 「비각거리」인데 이곳에 있던 선정비각으로 인해 유래된 지명이다 서편 산기슭에 자리잡은 마을은 「망재」이다

③ 신배미 마전터 - 관고 3 리

지금의 관고 3 리 마을회관 옆에 공동우물이 있었고 이 우물을 「신배미 (신뱅이) 우물」이라 했으며 일대를 「신배미」라 불렀다 신배미는 개배미의 경우와 같이 논배미에서 유래된 지

명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설봉호수 아래편 일대가 「마전터」인데 마전터의 지명유래로는 두가지의 설이 있다 그 하나는 이 일대가 넓은 벌판이어서 병사들이 말을 달리고 조련하는 훈련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馬戰터」라 했다는 것이다 다른 일설은 피륙을 회계 표백하는 일을 「마전」이라고 하는데⁶⁾ 이곳이 바로 옷감을 마전하던 장소였기 때문에 「마전터」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설봉호수를 축조하기 전인 십수년 전만 해도 설봉산에서 흐르는 개울 양 편을 끼고 넓고 깨끗한 모래밭이 펼쳐져 있어 이곳에서 광목 따위를 빨아 햇볕에 널어 마전하는 부녀자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이곤 했었다 따라서 「마전터」는 옷감을 마전하는 장소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풀이된다

3) 中 里

옛 명칭도 역시 中里로서 글자 그대로 가운데 위치한 마을이다 우리말 이름은 「중말」이다

① 고래골 (고래실) - 중 2 리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아 기름진 논을 「고래실」이라 하는데 골담 고래담·고래실논이 모두 같은 뜻의 어휘다⁷⁾ 고래골·고래실이 모두 기름진 논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생각되며 다음

註 6) 이희승『국어대사전』

7) 신기철·김용철編 『새우리말큰사전』

과 같은 지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고 있다

지금은 설봉산에서 발원하여 이천읍의 북판을 흐르고 있는 시냇물이 옛날에는 고래골을 지나 공설운동장 앞으로 흘렀다고 한다. 옛날 을축년 장마에 설봉산 앞 자락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려 물길이 막혀 버리고 고래골 일대의 물이 흐르던 자리가 옥토로 변했다. 그때부터 이 일대를 고래골, 또는 고래실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② 동사장터 - 중 1 리

옛날 한량들이 모여 활을 쏘던 射場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이다.

4) 曾日里

우리말 명칭은 「증일(또는 정일)」이다. 설봉산 기슭에 위치하여 해가 일찍 떠오르고 일찍 지는 마을이라 하여 「曾日里」라 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확실치는 않다. 또 다른 마을의 이름은 「무례기」인데 어원 및 유래를 알 수 없다.

5) 安興里

陽村 權近이 지은 『利川新置鄉校記』에 의하면 조선 개국초인 辛巳年(1401) 봄 監務로 부임하여 온 辺仁達이 安興精舍에서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중의 집을 학교로 둘 수 없다〉하여 利川鄉校를 건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安興精舍는 옛날 安興里지역에 있었던 安興寺라는 절을 말하는데, 「安興里」는 이 安興寺의 존재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흥이」와 「새터」라고도 부르는데 안흥이는 安興里의 우리말 호칭이며 새터는 新村・新垆의 뜻이다

6) 陳里

「陳里」는 우리말 명칭인 「진말」의 한자표기이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옛날 이곳에 군사들이 진을 쳤던데서 유래된 명칭으로 풀이되고 있다

7) 葛山里

옛 명칭은 「新葛山里」였다 우리말 명칭은 윗갈미(갈산 1리)와 아랫갈미(갈산 2리)인데 갈대가 우거진 산이라는 뜻의 「갈피」 또는 「가리피」가 세월이 지나면서 갈미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8) 增浦里

우리말 명칭은 「배증개」와 「요꼴」이다 정신문화원 소장본『利川郡邑誌』에 첨부된 관내지도에는 「梨增浦」라 표기되어 있고, 「增浦里」는 이 梨增浦에서 따온 지명이다 배증개의 訓借가 梨增浦인 셈이다

① 배증개

배진개라고도 하며 북하천의 지류인 한내(옛 명칭은 梨樹川)가 굽어드는 지점이다 옛날 이천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진상미를 서울로 수송하려면 배증개에서 짐을 꾸려서는 玄方里를 거쳐 여주 천양나루에서 배에 실려 서울로 갔다고 한다 배증개는 뱃짐을 매던 곳이라는 뜻의 어휘인 「뱃짐피」가 변형된

지명이라고 한다

한편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개」라 하는데⁸⁾ 우리말 지명중에는 아오개·그지개·삼정개와 같이 어미에 「개」가 붙는 지명이 적지 않다 옛날 북하천을 거슬러 온 작은 배들이 이곳까지 드나들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며, 처음 명칭은 「뱃집개」였던 것이 배진개→배증개로 음운변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 요꼴

褥谷 또는 凹谷·蓼谷 등 여러가지 어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마을의 경우는 지형상 움푹 들어간 곳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에 凹谷에서 온 명칭으로 풀이된다

9) 栗峴里

옛 명칭은 「乾川里」 또는 「松峴里」라고도 했고 戶法面에 예속되어 있다가 1938年 利川縣에 편입되었다

「栗峴里」는 글자 그대로 「밤고개」인데 利川縣에서 戶法面 西山里로 넘어가는 얇으막한 고개이름을 옛부터 밤고개라고 했다

자연부락 명칭으로 「은맥이」와 「아랫 무례기」가 있는데 어원 및 유래 모두 미상이다

10) 沙音里

옛 명칭은 切音里(또는 節音里)라 했으며 新屯面에 속해있다가

〔 8 〕 신기철 신용철 『 새우리말큰사전 』

행정구역 개편시 利川邑에 예속되었다 「沙音里」의 명칭은 사기막골의 「沙」와 切音里의 「音」자를 따서 개칭된 이름이다

① 기치미 - 사음 1 리

기치미고개와 냇고개에 관련된 임진왜란때 申, 申 장군의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 전설은 오히려 지명이 생겨난 뒤에 지명의 음을 소재로 하여 생겨난 전설로 보아야 타당하다

「기치미」는 荒野를 뜻하는 말인 「거친피」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추정되나 근거는 분명치 않다

② 사기막골 새터 - 사음 2 리

「사기막골」은 조선시대의 민수용 백자를 굽던 사기막이 있었다고 하여 유래된 명칭이며, 지금도 沙音窯・靑坡窯・灯谷窯 등의 가마들이 자리잡고 있어 우리 전통도예의 맥을 잇고 있는 마을이다

「새터」는 새로 자리잡은 마을 즉 新垆이다

③ 한내 - 사음 3 리

新屯面 竜眼里에서 발원하여 增浦里를 거쳐 북하천으로 합류하는 내의 이름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한문으로는 「寒川」이라 쓰고 문헌에 나타난 옛 명칭은 「梨樹川」이었다

11) 松亭里

옛날에는 新屯面에 「松亭里」와 「牙里駅里」였다가 1938年 松亭里로 통합되면서 이천읍에 편입되었다

① 아리 - 송정 1 리

옛날 牙里驛이 있던 마을로 옛 명칭은 「牙里驛里」였다 牙里驛은 光武 3 年刊 『 邑誌 』 驛院條에 의하면 〈 在府北 六里 新洞面 〉이라 하여 牙川驛으로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이곳이 넓고개 (廣峴) 에서 아리산을 뒤로 돌아 夫鉢面 鷹岩里 (파발막) 에 이르는 중요한 역로였다고 한다 「아리」의 어원은 알 수 없다

② 능안말 - 송정 2 리

「능안말」에 대해서는 옛날 世宗大王이 승하하자 처음 이곳을 능자리로 잡았으나 터가 비좁아 지금의 영릉으로 옮겼다는 전설이 있다 능이 아니어서 「능안」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능」 안(內)쪽 마을이라는 의미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

③ 구자골 - 송정 3 리

오래 전에 생긴 마을이란 뜻의 「구작골 (舊作谷) 」이나 국자처럼 길고 오목한 마을이란 뜻의 「국자골」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추정되나 확실치는 않다

나 長湖院邑編

1) 長湖院里

『 東國輿地勝覽 』 陰竹縣編 驛院條에 의하면 「長海院」은 현 동쪽 13 리라 해서 옛날 長海院이란 역원이 자리했던 곳이었다 光武 3 年 發行 『 陰竹邑誌 』에는 「長湖院」이라고 하여 「邑誌」의 발행

연대인 1899 年 이전부터 이미 장호원이란 명칭으로 불리웠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연대 및 유래는 알 수 없다

그 후 「坪村里」와 「石橋村」을 병합하여 오늘의 「長湖院里」가 되었다

① 구시장-장호원 1 리

『陰竹邑誌』 市場條에 보면 〈長海院場은 4 日과 9 日에 열리며 관문 남쪽 15 里에 있다〉고 했는데 이 시장이 열리던 곳이다 장호원읍에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마련되고 이곳을 「구시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② 서문거리-장호원 2 리

西門路에서 유래된 마을이름으로 추정된다

③ 평말(坪村)-장호원 3 리

옛 명칭은 「坪村里」였다 글자 그대로 넓고 편편한 들 가운데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이다

④ 동석교촌·서석교촌-장호원 4 5 리

옛 명칭은 「石橋村」이었다 『邑誌』 橋梁條에 보면 南面 長海院 石橋라고 해서 〈長 21 尺, 廣 3 尺 自官門 15 里〉라 나온다 이 다리의 존재에서 石橋村이란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동쪽 마을이 동석교촌(장호원 4 리), 서쪽 마을이 서석교촌(장호원 5 리)이다

2) 方楸里

옛날에는 「方角洞」과 「楸洞」이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시 양쪽

부락명에서 한 글자씩 따다가 「方楸里」라 명명되었다

① 구추지촌(구가래울)

한자어로는 「楸洞」이라 쓰며 마을에 楸木(가래나무)이 많았다고 하여 처음엔 「가래울」이라 불리우다가 「구가래울」이 되었다고 한다

② 방가골(方角洞)

옛 명칭은 「方角洞」으로 나오는데 方家谷의 변형일 것이다
옛날 方씨들이 처음으로 이 마을에 들어와 터를 잡았다고 하여 「방가골」이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3) 梧南里

옛날에는 「梧倉里」와 「南川洞」이었는데 「梧南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새장터 - 오남 1 리

수 십년전 장호원리 구시장 자리에 있던 시장이 이 곳으로 옮겨오면서 「새장터」라 부르게 되었다

② 오창말·천방·국말 - 오남 2 리

조선시대에 오동나무로 지은 官倉이 있었기 때문에 「오창(梧倉)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천방」은 냇뚝을 의미하는 낱말인 川防으로 볼 수 있고 자점보에서 이어지는 청미천의 뚝이 있는 마을이란 뜻일 것이다
「국말」의 어원과 유래는 분명치 않으나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穴과 砂가 합하여 이룬 자리를 局이라 하는데,⁹⁾ 마을 뒤 백죽산에 있다고 하는 풍수지리상의 명당자리인 金盤形地의 전설과 관련하여 「局」위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③ 南川-오남 3 리

부락 남쪽에 청미천이 흐르고 있어 「南川」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본다

4) 大西里

옛날에는 「大井里」와 「近西里」였다 1941年 淸溪面이 長湖院邑으로 승격되면서 일부지역이 雪星面으로 분리되고 「大西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살개골(杏洞) - 대서 1 리

한자어로는 「杏洞」이라고 쓰며 마을주변에 살구나무(杏木)가 많아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살구골이 「살기골→살개골」로 변형되었을 것이다

② 한우물(大井) - 대서 2 리

옛 명칭은 「大井里」였으며 우리말 명칭인 「한우물」의 訓借로 볼 수 있다 옛부터 맑은 물이 샘솟는 큰 우물이 있어 한우물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註 9) 이회승 『국어대사전』

③ 근서 (近西) -대서 3 리

옛 명칭 역시 「近西里」였다 대정부락 서쪽에 새로 생긴 부락이라고 하여 近西라 부르게 되었다

5) 於石里

옛 명칭은 「於云洞」이었으며 우리말 명칭인 「어은」의 한자 차용어로 볼 수 있다

① 은골·어은-어석 1 리

옛날 마을 뒤에 있는 백족산에 아홉개의 암자가 있었고 선비들이 어지러운 세상을 등지고 이 곳에 은거했었다고 하여 「은(隱)골」 또는 「於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백족산 기슭에 자리잡은 외진 마을이란 뜻에서 은골이라 했을 것이다

② 미륵대이·새터-어석 2 리

부락 가운데 높이 5 m에 가까운 立像石佛이 있다 불상 주변으로 네 귀에 돌기둥이 남아있어 보호각을 세웠던 흔적으로 여겨지는데 「미륵대이」는 이 彌勒堂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볼 수 있다 (미륵당→미륵대이) -

「새터」는 新村의 의미이다

6) 松山里

옛 명칭은 「松谷里」와 「筆峴里」였다 「松山里」의 명칭은 행정구역 개편시 「松谷」과 「山垆」부락에서 한 글자씩 따다가 松山里로 명명되었다

① 소래울 (松谷) · 관절이주막 - 송산 1 리

「소래울」은 부락 주위에 노송이 울창하였기 때문에 소래울이라 이름했다고 하며 한자명은 「松谷」이다 (솔울→소래울)

솔개골이나 수리울로 그 어원을 추정해 볼 수도 있으나 근거는 분명치 않다

「관절이주막」은 官寺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② 빙정말 - 송산 2 리

관아에서 쓰는 어름을 저장하는 氷庫가 위치했었기 때문에 「빙정 (水亭) 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③ 붓고개 (筆峴) · 산대 - 송산 3 리

옛 명칭은 글자 그대로 붓고개의 訓을 따서 「筆峴里」라 했다 부락의 지형이 붓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붓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산대 (山臺)」부락은 옛날 처음으로朴씨가 조상의 묘를 이곳에 쓰고나서 시묘살이를 하느라고 막을 짓고 살다가 차츰 한 마을로 번창했는데 산에 생긴 부락이란 뜻에서 「산대」라 했다고 한다

7) 珍岩里

옛 명칭은 「珍村里」와 「階巖里」였다가 행정구역 개편시 「珍岩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진촌·둔촌-진암 1 리

한자어 표기는 珍村이라고 쓰나 「陣村」이라고 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陳村」·「屯村」이 모두 옛날 병사들이 주둔했던데서 유래된 명칭으로 추정되고 있다

② 계암(階巖)·못골-진암 2 리

옛 명칭은 「階巖里」였다 인근마을에서 집을 지을 때 이 마을의 돌을 주춧돌로 사용했다고 하여 階巖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지명유래가 채집되고 있으나 신빙성이 희박하며, 階巖에 대한 정확한 어원과 유래는 알 수 없다

「못골(池洞)」은 글자 그대로 옛날 부락 가운데 연못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목골」로도 호칭하고 있으나 못골의 와전일 것이다

③ 상계암 국말-진암 3 리

「上階巖」은 계암부락 윗 마을이란 뜻이고 「국말」은 吾南 2리의 국(局)말과 같은 풍수지리의 용어에서 나온 지명으로 풀이된다

8) 梨黃里

『陰竹邑誌』에 나타나 있는 里의 명칭중 「黃庭浦」와 「蘆洞」 「留春駅」이 이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원條에 留春駅은 〈自官門東距三里〉라 하여 대체로 지금 이황리의 위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梨黃里」의 명칭은 「梨亭」부락과 「黃庭」부락의 명칭에서

한 글자씩 따다가 명명된 것이다

① 배나무정 (梨亭) - 이 황 1 리

「배나무쟁이」라고도 하며 한자표기는 「梨亭」이다 옛날 어사 박문수가 암행길에 이 곳을 지나다가 피곤하여 한 그루의 나무 밑에서 잘 쉬고나서 떠날 때 보니 그 나무가 배나무였기 때문에 배나무정이란 동네이름을 지어주고 떠났다는 지명유래가 채집되고 있다 또 배나무로 기둥을 세운 정자가 도로변에 있어 오가는 길손들을 위한 요긴한 휴식처로 이용되었는데 이 정자의 이름이 梨亭이었기 때문에 배나무정이란 부락명칭이 생겨났다고도 한다

이 마을은 경충산업도로변에 위치하여 옛부터 우리나라 중앙부에서 한양에 이르는 중요한 길목으로 사람들의 - 왕래가 빈번했던 곳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명유래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② 윗황성 · 아래황성 - 이 황 2 리

옛 명칭은 「黃庭浦」이고 黃汀이라고도 했다 黃汀이란 명칭에 대해서는 옛날 이 부락에 있었던 연못의 물빛이 누런 빛깔을 띄고 있다하여 유래되었다고 하나 한자의訓에 맞게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거친 들을 뜻하는 荒城이나 荒庭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추정되지만 확실치는 않다

③ 갈월·노동(蘆洞) -이 황 3 리

옛 명칭은 「蘆洞」 또는 「蘆谷里」라 했다 부락 주위로 갈대가 무성하여 蘆洞이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전하며 「갈월」의 어원 및 유래는 미상이다

9) 瓦峴里

옛 명칭은 「皓峴里」와 「尾洞」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皓峴里는 狐峴里(京畿道誌)라고도 했으며 「瓦峴里」의 명칭은 「皓峴」과 「瓦洞」 양 부락명에서 한 글자씩 따다가 명명되었다

① 왜골·넘어말 -와현 1 리

「왜골」의 한자표기는 「瓦洞」이다 옛날 마을에 기와를 굽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라고 한다(와골→왜골)
「넘어말」은 산등성이 넘어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② 호현(皓峴)·새터 -와현 2 리

마을 근처에 작은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의 흙이 흰 빛깔이어서 멀리서 바라보면 고개 전체가 희게 보이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라고 전하나 「여우고개」라는 뜻의 「狐峴」이 와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새터」는 新村·新堡의 의미이다

10) 老塔里

옛날에는 「老坪里」와 「塔村」·「巨勿里」의 3개 부락이었다
行政區域 改編時 老坪里의 일부지역이 충청북도 음성군에 분할

예속되고 老坪과 塔村에서 한 글자씩 따다가 「老塔里」로 명명되었다

① 개자위·신대 - 노탑 1리

마을에 「개바위」라고 하는 구멍이 숭숭 뚫린 바위가 있는데 이 뚫린 구멍은 개 발자국이라고 하며 「개자위」라는 부락명이 이 바위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전한다. 개자위는 움푹 들어간 구덩이를 뜻하는 어휘인 「개자리」에서 변음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신대(新垔)」의 의미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② 금호·거머리 - 노탑 2리

옛 명칭은 「巨勿里」였다. 巨勿里는 우리말 명칭인 「거머리」의 音借로 볼 수 있고 옛날부터 마을주변의 논에 거머리가 많았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이라고 하나 신빙성이 희박하다. 토속신앙과 관련지어 신령을 뜻하는 어휘인 검+머리(筭)에서 유래된 지명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확실치는 않다.

「금호」의 어원 역시 미상이다

③ 탑거리(塔村)·노들(老坪) - 노탑 3리

옛 명칭은 「塔村」과 「老坪里」였다. 「탑거리」는 옛날 이 마을에 석탑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이다. 『陰竹郡邑誌』고적條에 〈長海院 有 石塔〉이라 해서 탑의 존재를 뒷바침하고 있는데, 이 탑이 언제 없어졌는지,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였는지 모두 알려지지 않고 있다.

「노들(老坪)」은 뜻 그대로 청미천, 변에 펼쳐진 넓고 기름진 벌판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이 부락에 대부분이 음성군으로 편입되고 청미천에 연한 일부 지역만 노탑리로 편입되었다

11) 豊界里

옛날에는 「豊土里」와 「赤界里」2개의 부락이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시 「豊界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풍토 홍시 - 풍계 1리

「豊土」는 기름진 농토의 뜻으로 풀이 된다

「홍시」의 어원 및 유래는 분명치 않으나 옛 명칭을 「赤界里」라 했으니 붉은 빛깔과 관계있는 지명으로 보아 그 -원래의 뜻을 紅市로 추정해 볼 수 있다 紅市란 陽地마을의 의미이다

② 수평말·텃골 - 풍계 2리

「수평말」은 넓고 평평한 들관 가운데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으로, 「텃골」은 「터전골」이나 「터주골」에서 나온 명칭으로 풀이된다

③ 용계·봉바위·원양이 - 풍계 3리

「용계」는 시냇물의 이름에서, 「봉바위」는 마을 뒷산에 있는 봉바위, 또는 말봉바위라고 부르는 바위명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원양이」의 어원 및 유래는 미상이다

12) 羅來里

『邑誌』에 나타난 옛 명칭 역시 「羅來洞」이었다

① 송촌(松村)·통리 - 나래 1리

처음 마을이 이루어졌을 때 주변에 소나무 숲이 울창하여 「송촌(松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통리」는 「統里」 또는 「筒里」의 뜻으로 추정된다

② 상곡 - 나래 2리

한자어로는 「桑谷」으로 표기하여 옛날 이 부락 주변으로 뽕나무가

많은 양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곡」이라 했다고 한다 한
편 이 마을이 옛 음죽현에 속한 모든 부락중에서도 제일 윗
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윗 마을이란 뜻으로 「上谷」이라
불렀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만하다

③ 월촌 - 나래 3 리

상곡 건너편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을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건너마을이란 뜻으로 「월촌(越村)」이라 했다고 한다

13) 善邑里

음죽군이 이천군으로 병합되기 이전까지 음죽관아가 자리잡아 현의 중
심지가 되었던 곳이다 옛날에는 縣內面에 속한 邑內里·南山里·鄉校
里·院下里·善興里 등 여러개의 부락명이 문헌에 나타나 있어 매우 번
창했던 마을이었으나, 군 제합과 함께 중심지가 장호원읍으로 옮겨지면서
한적한 전원마을로 변모되어 버렸다

행정구역 개편시 「善興里」와 「邑內」에서 한 자씩 따다가 「善邑
里」라 명명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南山里·鄉校里 등은 없어졌다 먼
저의 읍이 있던 곳이라는 뜻에서 「先邑里」라 표기해야 더 적
절한 명칭이 되겠다

① 원하(院下) - 선읍 1 리

선읍리에 음죽현 아문이 있던 시절, 이 부락 상단에 나라에
서 驛院을 두어 통행인의 편의를 도모했던 탓으로 「원」아래
위치한 부락이라 하여 「院下」라 했다

② 읍내(邑內)·죽곡(竹谷) - 선읍 2 리

「읍내」는 「음죽읍내(陰竹邑內)」라고도 부르며 음죽현 행
정의 중심지였던 마을지명인 邑內里에서 유래되었다

「죽곡」은 옛날 마을주변에 대나무가 무성했기 때문에 유래
된 지명이라고 한다

다. 新屯面 編

1) 水廣里

1905년 행정구역 개편시 「水北」과 「廣峴」 두 부락의 명칭에서 한 글자씩 따다가 「水廣里」로 개칭되었다 수광리에 위치한 조선 世祖 때 호조판서를 지낸 月川君 金吉通의 묘비 내용 중에 「水出里」라는 지명이 보이고 있어 수광리의 옛 명칭을 水出리라 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다른 문헌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다

① 미나리 섬말-수광 1리

「미나리」는 한자표기가 「水北」인데 한내(寒川)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란 뜻에서 水北이라 했다고 본다 미나리의 어원은 「밀나리」로서 내(川)의 옛말이 「나리」인데 한내 북쪽 밀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밀나리라 부르다가 밀나리→미나리로 음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섬말」은 부락 앞에 연못이 있고 그 가운데 섬이 있었다고 하여 섬말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지명유래가 채집되었으나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부락을 감싸안고 있는 앞으막한 동산이 섬(島)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으로 추정되며 한자명은 「島村」이다

註 10) 백사중학교 전조웅 『利川郡誌』편찬자료

② 나무가지 - 수광 2 리

옛날 마을 앞으로 송림이 울창하여 나무가지 사이로 마을이
들여다 보였기 때문에 「나무가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한자명은 「木枝村」이다

③ 광현 (廣峴) - 수광 3 리

한자어로는 「廣峴」이라 쓰고 이천군과 광주군의 경계를 이루
는 「넙고개」바로 밑에 위치한 마을이란 뜻에서 유래된 지명
이다

임진왜란 때 충주 달래강 전투에서 전사한 도원수 申砬의 시
신을 운구하는데 이 고개 위에서 장군의 혼백이 아주 육신을
떠났다고 하는 「기치미고개와 넙고개」의 전설에서 유래되어
흔히 「넙고개 (魄峴)」라는 속명으로 불리워 지고 있으나, 옛
문헌에는 모두 廣峴으로 표기되어 있어 넙고개로 호칭해야 맞
는다

2) 水南里

옛 명칭 역시 「水南里」로서 屯之山面에 속해 있었다 한내
남쪽에 있다고 하여 水南里라 이름했을 것이다 우리말 지명은
「둔터」와 「정문고개」인데 둔터는 병정들의 주둔지와 관계된
지명으로 풀이된다

수남리 부락 상단에 竹山朴氏 旌閭門이 있다 박씨 부인은 청
주인 韓儉의 처로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시댁인 수남리로 피난
을 나와 있던중 남편 韓儉이 남한산성 싸움에서 전사했다는 소
식을 듣게 되었다 통분한 마음을 참지 못한 박씨 부인은 마침

적 군 수명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남편의 뒤를 따라 자결했다 후일 박씨 부인에게 나라에서 정문을 내렸는데 부인의 정려 자이 있는 고개라 하여 「정문고개」라는 지명이 생겨났다

3) 高尺里

옛 명칭 역시 「高尺里」로서 우리말 지명인 「고жат말」의 음과 뜻을 따서 한자화한 명칭이다 통일신라 때 縣衙를 두었던 유서깊은 마을이기도 하다

① 고жат말 - 고척 1리

「고жат말」 또는 「고жат골」이라 하여 이에 대한 한자표기를 「高尺里」로 쓰고 있는 경우는 이 마을 외에도 울면 고당리의 예가 있다 「고자」, 또는 「고жат」의 어원은 다음의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하나 어느것이 맞는 어원인지는 분명치가 않아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A. 「골짜기말」 또는 골짜기의 방언인 「고재기말」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추정.

B. 鼓子들이 살던 마을이란 뜻에서 「鼓子말」이라 하지 않았나 한다

C. 상투처럼 높은 지대에 자리잡고 있어 「고작말」¹¹⁾이라 했다가 「고жат말」로 변음된 것으로 추정.

註 11) 「고작」 상투의 속어 - 이희승 『국어대사전』

D. 「城」 또는 「재」를 뜻하는 '옛말이 「자」 또는 「갓」이다¹²⁾ 따라서 고자(高尺)는 「高城」을 의미하는 우리 말이다

E. 후삼국으로 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관직과 부역도 없이 떠돌아 다니며 사냥을 하거나 고리를 만들어 파는 등의 천업에 종사하던 무리들을 「揚水尺」 또는 「禾尺」이라고 했다 우리말로 「무자리」라 불렀고 「水尺」도 비슷한 뜻이다 이들이 살던 마을이라 하여 「高尺里」라 했을 가능성도 있다

② 학암동(鶴岩洞) - 고척 2리

마을 뒷산에 주변경치가 수려한 鶴巢岩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명에서 「학암동(鶴岩洞)」이란 마을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학소암」의 유래는 옛날 어느때부터인지 한 쌍의 학이 날아들어 이 곳에 서식하면서 자웅이 서로 어우르며 넘나드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학소암이라 했다는 것이다

옛날 고척리에 楓潭 李崇慶이란 학자가 은거했는데 그 학문이 높고 성품이 고결하여 못 선배들의 추앙을 받았으므로 마장면 관리에 은거했던 栗亭 李寬義와 함께 <一高尺 二冠洞> 이란 찬사가 생겨났다 李崇慶은 全義人으로 호를 丹丘道라 하기도

註 12) 南廣祐 編 『古語辭典』

했는데 고척리에 머물며 당대의 명현인 牛溪 成渾, 淸江 李齊臣과 더불어 학소암에 올라 자웅의 학이 노니는 정경을 감상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학암동」이란 마을이름은 이들 선비들을 통해 유래되었을 것이다

③ 새 말 - 고척 3 리

「新村」의 뜻이다

4) 龍眼里

『利川郡邑誌』에 첨부된 관내지도에 의하면 옛 명칭을 「龍坪」이라 했다

우리말 명칭으로는 「용면(용민이)」과 「쌍촌」이 있다 「용면」은 羊角山의 산자락이 줄기차게 북으로 뻗어 차츰 내려간 형국이 마치 용이 조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龍眼이라 했을 것이다 「쌍촌」은 나란히 자리잡은 두개의 마을, 즉 雙村의 뜻이다

5) 印後里

옛 명칭은 「後洞里」 즉 뒷말이다 행정구역 개편시 「인배」와 「후동」의 부락명에서 한 자씩 따다가 「印後里」로 통합 개칭되었다

① 인배 - 인후 1 리

한자어로는 「印埗」라 쓰고 있다 인후리와 광주군 사이에 산맥이 가로놓여 있고 그 중간에 성황당이 있는데 이 성황당을 경계로 광주쪽을 「광주인배」, 이천쪽을 「이천인배」라 부르고 있다 옛날 이 고개에 산도적들이 많아 광주를 거쳐

한양으로 가는 길손들이 산·밀·동네에서 기다렸다가 무리를 지어 넘어갔기 때문에 인배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후세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마을의 지형이 배의 모습과 같아 인배라 했다고도 한다

② 후동(後洞) - 인후 2리

「後洞」이라 표기하며 글자 그대로 「뒷말」이다

6) 馬橋里

『邑誌』 관내지도에는 「馬橋」라 명시되어 있다 우리말 명칭은 「마다리」로서 마다리의 訓借가 馬橋里이다

마다리를 「말다리」로 풀이하여 옛날 이 동네를 지나가던 말 한필이 개울을 건너지 못하고 절절 매다가 다리를 놓고서야 지나갔다고 하여 마다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지명유래가 채집되고 있으나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한내 상류에 자리잡은 부락이란 뜻의 「맞나리」나 「말나리」의 어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7) 小亭里

『邑誌』 관내지도 역시 「小亭里」로 표기하고 있다 「소정」은 옛날 이 부락에 있던 조그만 정자(小亭)의 존재에서 유래된 명칭이라고 한다 우리말 명칭으로 「새쟁이」라 부르기도 한다 (소정→소정이→새쟁이)

8) 水下里

옛 명칭 역시 「水下里」였다 水北·水南里와 같이 寒川 하류에 연한 마을이란 뜻에서 水下里라 이름한 것으로 본다 우리

말 호칭은 「새울」인데 새울은 「새, 벌」에서 나온 말로 새터
(新垆)·새말(新村)의 뜻과 동의어이다

9) 道岩里

옛 명칭은 「道月岩」이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시 「道岩里」가 되었다

① 도월암 금산이·벌말 - 도암1리

「도월암(道月岩)」은 부락 동쪽 산에 있는 반달처럼 생긴 바위의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금산이」는 부락 뒷 산의 명칭인 「金山」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옛날 이 산에서 금을 캐었기 때문에 金山이라 했다고 한다

「벌말」은 벌판 가운데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으로 坪村과 같다

② 노가지골(老柯洞) - 도암2리

한자로는 「老柯洞」이라 쓰며 우리말 명칭인 「노가지골」의 訓借로 생각된다 마을 주위에 노간주나무가 많으므로 노가지골이라 했다고 한다

10) 支石里

옛 명칭 역시 「支石里」였으며 동구 앞 벌판 가운데 있는 支石墓의 존재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남방식 형태인 이 지석묘가 있는 곳은 행정구역 개편시 水下里에 편입되어 지금의 위치상으로는 수하리지역이 된다

우리말 호칭은 「핀돌(고인돌)」이라 부르고 속칭 「권들」로 발음되는데 핀돌이 변음된 말이다

支石里 뒷 산인 소당산(鼎蓋山) 골짜기에는 「성안」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지금도 이 곳에서 부락민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산신제를 지내고 있어 신령스러운 장소를 일컫는 「성안(聖內)」의 뜻으로 붙여졌다.

11) 南井里

『邑誌』 관내지도에는 「南井洞」이라 나와있다

① 남정골 - 남정 1리

「남정골」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성처사라는 사람이 벼슬을 버리고 이 마을로 낙향했는데 당시 마을에서는 식수가 매우 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본 성처사가 마을사람들에게 일러주는 대로 마을 남쪽에 우물을 팠더니 맑은 물이 샘솟아 식수난을 해결하게 되었으며, 그 후부터 마을이름을 남정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② 한성부·점말 - 남정 2리

「한성부」의 어원 및 유래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한자명을 「漢城府」라고 추정했을 때 옛날 풍수지리상의 도읍설과 연관된 지명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단정을 내리기엔 미흡하다. 「점말」은 옛날 절그릇을 굽던 마을, 즉 店村이다.

12) 長洞里

선사시대부터의 주거지로 당시의 분묘가 발견되기도 했고 고려중기에는 永昌縣 衙門을 설치했던 유서깊은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沙北面 長洞里였다가 1914년 군면 통폐합시 新屯面에 편입되었다.

① 장골 - 장동 1리

지금도 한자표기를 「長谷」이라 하여 긴 골짜기의 뜻으로 쓰이고 있으나 「場谷」으로 표기해야 옳을 것으로 본다 이천군과 광주군과의 경계를 이루는 원적산에서 이어진 고개이름을 지금도 「장재」라고 부르는데 옛날 이 곳은 인근지역 사람들이 모여 물물교환을 하는 장터였다고 하며 지금도 그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고 한다

② 하남촌 - 장동 2리

「河南村」이라 하여 하천 남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13) 道峰里

옛 명칭 역시 「道峰里」였고 행정구역 개편시 長洞里와 함께 沙北面에서 新屯面으로 편입되었다

① 윗도봉이 · 아랫도봉이 - 도봉 1리

「윗도봉이」 · 「아랫도봉이」라고도 부르며 道峰里를 「도봉이」로 호칭한 것으로 본다

② 윗벌 - 도봉 2리

벌판 윗마을로서 上村 上坪의 동의어이다

라. 栢沙面編

1) 玄方里

옛 명칭은 「黑岩里」와 「溫方里」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

편시 「玄岩」과 「溫方」의 두 부락명에서 한 글자씩 따다가 「玄方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검바위(玄岩) - 현방 1리

일제 때 현방리를 중심으로 빈민구제 등의 자선사업을 편 독지가 李敏應씨가 永安府院君 金祖淳을 제향했던 玄巖書院 자리에 다 주민들을 위한 휴식처로 만들었다는 현방리公園 안에는 「철성바위」라 부르는 검은 바위들이 놓여 있다 이 바위에서 「검바위」라는 부락명이 유래되었다고 하나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옛 명칭인 「黑岩里」의 뜻 자체가 검바위의 訓借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다른 명칭인 「玄岩」의 뜻 또한 같다

「검」은 신령을 지칭하는 우리말로써 「검바위」는 토속신앙에 대상물이 되는 신령스러운 바위(靈石)가 이 마을에 있었음으로 해서 유래된 지명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단정을 내리기엔 미흡하다 또 「玄」은 검은 색이며 방위는 北方을 나타낸다 이 마을이 이천군의 제일 북쪽에 위치하여 여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관계를 추정해 볼 수도 있으나 역시 근거가 미흡하다

② 온방 - 현방 2리

한자어로는 「溫方」이라 쓰며 옛 명칭도 같다 어원 및 유래는 분명치 않으나 「양달마을(陽村)」과 같은 의미로 풀이해 볼 수 있다

2) 松末里

옛 명칭은 「末谷里」였다 天德峰에서 북으로 뻗어 나간 원적산 줄기 끝자락에 감싸인 마을이란 뜻에서 末谷리라 했을 것이다

① 송곡 - 송말 1리

우리말의 「솔울」 또는 「솔골」이며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② 안메일 내하 - 송말 2리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로 「안메일」은 산 안쪽 고을이란 뜻의 「안메골」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본다 안메골이 모음동화현상에 의해 안메길로 다시 안메일(「모음하」탈락)로 변형되었을 것이다¹³⁾

「내하」는 냇물 안쪽 마을이란 뜻에서 내하(內河)라 했을 것이다

③ 두들기·삼상 - 송말 3리

옛날 마을 가운데 유기를 만드는 공방이 있어 매일처럼 쇠망치로 유기그릇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기 때문에 「두들기」라 했다고 하는 지명유래가 채집되고 있으나 두들기를 「두들긴다」는 동사로 풀어 후세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두둑이나 둔덕을 지칭하는 옛말인 「두듭」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두듭→두듭이→두들기)

「삼상」은 원래가 「三姓」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지명유래

註 13) 백사중학교 전조웅 - 『利川郡誌』 편찬자료

가 채집되었다 옛날 마을어구에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날 마침 과거를 보러가던 선비 셋이 한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의기가 투합되어 통성명을 하게 되었다 이들의 성씨가 金・李 朴씨로서 그 후 과거에 나란히 급제한 세사람이 다시 주막에서 반갑게 해후를 하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마을이름을 삼성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역시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의 냄새가 짙다 마을의 세거성씨가 세 성씨였기 때문에 「삼성」이라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세월이 지나면서 삼성이 「삼상」으로 모음동화에 의해 음운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3) 新垆里

옛 명칭도 역시 「新垆里」 또는 「新垆洞」이라 했다 우리말 명칭은 「새터」와 「벌터」인데 新垆里는 글자 그대로 새터와 벌터를 합쳐 한자화한 지명이다

4) 牟田里

옛 명칭은 「黍田里」였으며 『邑誌』 관내지도에는 지금과 같은 「牟田里」로 표기되어 있다 牟田은 우리말 지명인 「큰벌」의 한자 借用語인 셈이다

① 점촌 — 모전 1리

「店」이란 옛날 도자기나 용기를 만들어 굽던 곳을 말하며 「店村」의 의미도 같다 실제로 십수년전까지도 이 마을에 용기가마가 있어 그릇을 생산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점촌이란 지명만 남았다

② 도구머리·두곡·버리앗 - 모전 2 리

店村을 우리말로 「독골」 「사기골」 「사기실」등으로 불렀는데 「도구머리」란 점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마을이란 뜻의 「독머리」에서 변음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두곡」은 「독골」이란 우리말이 「도골」로 변음된 후 한자어로 차용된 지명으로 풀이할 수 있다

「버리앗(별이앗·보리앗)」은 별판과 연관된 지명으로 생각되며 어원상 다음 몇가지의 원형을 손 꼽을 수가 있다

- A. <별밭> 밭의 옛말이 「앗」이며 「별밭」은 넓은 들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별밭→별앗→버리앗)
- B. <별앞> 별판 앞 마을이란 뜻으로 별앞→별이앞→버리앗의 변형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C. <별곶> 「별앞」과 같은 경우로 별판 옆 마을의 의미이다 (별곶→별곶→별이곶→버리앗)

③ 방축골·안말·곰말 - 모전 3 리

방축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방축골」이라 했을 것이다 안쪽에 있는 「안말」에 대하여 「곰말」은 뒷 마을이다

5) 道知里

『邑誌』에 나타난 옛 명칭은 「道知谷里」였으며 道知谷은 우리말 지명인 「도지울」의 한자차용어로 볼 수 있다

① 도지울 - 도지 1 리

「도지울」의 어원 및 유래는 알려진 것이 없다 賭地농토가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도지울이라 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확

실치는 않다

② 금성 - 도지 2 리

마을 뒷 산인 虎岩山에서 옛날 금을 캐어냈기 때문에 「金城」이라 했다고 하며 속칭 「금생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말 지명인 「쇠울(金谷)」을 金城으로 訓借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6) 助邑里

옛부터의 명칭이 「助邑洞」인데 뜻을 풀이하자면 읍을 돕는 마을, 즉 이천읍의 보조역할을 하는 마을이 助邑里이다 우연의 일치이겠으나 현재 이곳에 공설공원묘지가 들어서면서 이천읍민들의 대부분이 이 묘지를 이용하고 있어 助邑의 기능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① 자리골 자옥 - 조읍 1 리

옛날 이 마을 사람들이 주로 「뚝자리를 엮어」 팔아서 생계를 이었기 때문에 「자리골」이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뚝자리의 재료에는 논에서 재배한 왕골과 짚, 그리고 켜녕쿨이나 노끈 등이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간혹 어느 집에는 자리를 매던 기구의 일부가 남아있다고 한다 일설에는 임금님이 쉬어간 자리라 하여 「자리골」이라 불리운다고 하나 어원상 신빙성이 없다 「자옥」은 옛날 이 마을에서 가까운 烏山이란 곳에서 붉은 옥을 캐어냈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紫王洞」이라 부른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② 상동 점촌말 - 조읍 2리

글자 그대로 「윗마을」이며 「점촌말」은 응기점의 존재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7) 道立里

옛 명칭 역시 「道立里」였으며 우리말 지명인 「도니피」의 音借를 道立이라 표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관내에 있는 영월 엄씨의 문화 유씨의 묘비내용을 보면 「墨坊里」라는 지명이 나온다 또 반란을 일으켰던 평안병사 李适이 관군에게 쫓겨 도주하던 도중 이천의 墨坊里에서 부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문헌상의 기록도 있어 옛날에는 도립리(또는 천방리) 일대를 墨坊리라 불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① 도니피(도피) - 도립 1리

조선 중종때 기묘사화의 화를 피해 낙향한 南唐 嚴用順이 이 마을에 은거하여 그 후 영월 엄씨의 마을을 이루었다 남당은 마을 앞에 초당을 짓고 당대의 명현으로 이름높은 慕齊 金安國을 비롯한 선비들과 교유하여 <槐亭 6 처사>의 일화를 남겼으며, 여섯그루의 고목에 둘러싸인 六槐亭이 지금도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어 있다

「도니피」의 어원은 분명치 않으나 戶法面 - 梅谷里 「도니실」의 유래나 남당의 일화에서 보듯 어지러운 세상을 등진 선비들의 은거사실과 연관된 지명으로 생각된다

② 어산이 - 도립 2리

마을주변 산의 모습이 물고기와 같아 「魚山」이라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8) 京沙里

옛날에는 「京士堡里」와 「沙北里」의 2개 부락이었다 京士堡里는 京仕堡·京沙堡 등 문헌에 따라 약간씩 표기에 차이가 있고 沙北里는 「沙王里」로도 나온다 행정구역 개편시 「京沙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경기터 (경사터·경대) - 경사 1리

옛날 이 곳에다 도읍을 정하려고 했다가 지형이 협소하고 강이 너무 멀어서 포기한 뒤 「경기터」란 마을이름만 남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경기터와 경사터·경대가 모두 같은 뜻을 지닌 어휘들로서 신둔면 남정리 「한성부」의 경우와 같이 풍수지리상의 도읍설과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② 사옥 (沙玉) 장개터 - 경사 2리

한자표기는 「沙玉」이며 옛날 이 부락에 모래가 무척 많았는데 어느날 모래 속에서 흰 구슬이 나왔기 때문에 사옥이라 불리우게 되었다는 지명유래가 채집되었으나 신빙성이 희박하다 옥같이 희고 고운 모래라는 뜻에서 사옥이라는 지명이 생겨났을 것이다

「장개터」는 장개라는 장수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이라고 하나 역시 믿기 어렵고, 원래는 「장가 (張家) 터」였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장개터로 음운변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9) 牛谷里

옛 명칭 역시 「牛谷里」였다

① 거지개 (그지개) - 우곡 1 리

마을에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거지개」에 대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이 마을에는 옛날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원래는 「거부개」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의 마을뿐만 아니라 건너편 산 밑으로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이 즐비하였다는 것이다

건너편 산 기슭에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다 - 이 노인의 집 대청마루에서 보면 지금의 마을 뒷 산에 있는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 바위의 형상이 제비가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제비바위」라고 불렀다

노인이 워낙 소문난 구두쇠여서 집에 거지들이 찾아오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다 하루는 어느 고승이 찾아와 대청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스님, 이 마을에 거지들이 찾아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노인이 물었다 그러자 고승이 “그거야 간단하오.” 하며 일러주기를 저 앞 산에 보이는 제비바위 주변에 독을 쌓으면 된다고 했다 노인은 당장 일꾼들을 동원하여 고승이 일러준대로 제비바위 주변에 독을 쌓았다 그러자 노인의 집을 비롯한 마을의 부자 집들이 하나 둘씩 망하여 마을을 떠나가고 나중에는 가난한 농부들의 초가집들만 남게 되었다 그후부터 마을이름을 거지개 (그지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노인이 쌓은 독의 모

습이 뱀이 제비바위를 물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② 메쟁이 - 우곡 2리

어떤 큰 부자가 마을에 살았는데 거지들이 하도 많이 찾아와
어느날 뱃돌장수에게 물었더니 마을 뒤로 새로 길을 만들어
이으면 된다고 대답했다 부자가 그대로 따라했더니 집안이
망해 버렸기 때문에 그 후부터 거지들이 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지개」와 비슷한 유래가 전해오고 있다

뱃돌장수의 마을이란 뜻에서 「메쟁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
나 믿기 어렵고 메쟁이의 어원은 분명치가 않다

③ 호암(虎岩) - 우곡 3리

마을 뒤 道知里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虎岩山의 산명에서 유
래된 지명으로 본다 『邑誌』 관내지도에 표시된 호암산의
옛 명칭은 「高山」이었다

11) 內村里

『邑誌』 坊里편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관내지도에는 「內村」이라
명시되어 있어 옛 명칭 역시 內村里였다 우리말 명칭은 「소
골」 또는 「쇠일」·「소가산」이 있는데 산의 형국이 소의 모
습과 같아 소가산이라 부르고 마을이름을 「소골」이라 하였다
한다 「쇠일」은 소골이 쇠골로, 다시 쇠질(모음동화)→ 쇠일
(자음탈락)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¹⁴⁾

註 14) 백사중 전조웅 『利川郡誌』 편찬자료.

「쇠일」의 원형은 「쇠골」로 金谷의 뜻을 가진 우리말일 것이다 쇠골의 訓借를 「牛谷」으로 표기하여 원래 이 부락은 牛谷里에 속해 있었으나 어느 시기엔가 內村里로 분리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 上龍里

『邑誌』 관내지도에는 「上洞里」로 나와 있으니 즉 윗말이다 행정구역 개편시 「上村」과 「龍村」의 부락명에서 따다가 「上龍里」가 되었다

자연부락명으로는 「윗거리」 「용머리」 「암말」이 있다

「윗거리」의 한자명은 上村으로 上洞과 같다 「용머리」는 龍村인데 마을 뒷 산의 형세가 용의 모습과 흡사하여 「龍山」이라 했다 옛날 용산의 허리부분에 살던 부자집들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해버려 모두 집을 헐고 지금의 마을로 이주하여 새로운 마을이 이루어졌는데, 그 위치가 용의 머리부분에 해당되므로 「용머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암말」은 옛날 이 마을에서 암송아지를 많이 길렀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이라고 하나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한자로는 「越村」으로 표기하여 건너말이 되는데 앞말이 암말로 와전되어 전해진 것으로 본다

12) 白隅里

우리말 명칭은 「한머루」 또는 「햇모루」이다 村老들에 의하면 이 마을 주변에는 원래 나무가 별로 없고 땅이 하얗다 하여 「白」자를 쓰고 모퉁이를 돌아가야 마을이 보인다 하여

「隅」자를 써서 「白隅里」라 명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모루」·「머루」는 고개의 뜻을 지닌 마루(嶺)에서 변형된
 말이고 「햇」·「한」은 흰(白)의 음이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햇모루」·「한머루」란 하얀 산 모퉁이라는 뜻
 의 지명으로 풀이할 수 있다¹⁵⁾

마 夫鉢面編

1) 茂村里

옛 명칭은 「巨次牙里」였으며 우리말 명칭인 「거치라리」의 한
 자·차용어로 볼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시 무촌부락의 명칭
 을 빌어다가 「茂村里」라 이름했다

① 거치라리 - 무촌1리

옛날 여주방면에서 서울을 가려면 이 마을을 거쳐가야 했다고
 하여 「거치라리」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원상 근거가 희박
 하다 그런데 이 마을 뒤로 북하천이 흐르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옛날에는 치수가 안되어 냇물을 건너 다니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이며, 그래서 거친 냇물(荒川) 또는 숲이 무성한
 냇물이란 뜻의 「거칠나리」라 붙여진 지명이 세월이 지나면서
 「거치라리」로 음이 변화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¹⁶⁾

註 15) 『利川郡誌』 편찬자료

16) 『利川郡誌』 편찬자료

② 하낙말 - 무촌 2리

한자로 「下落말」이라 하여 나주 羅씨가 사는 윗 마을에 대하여 경주 金씨가 사는 아랫 마을쪽을 「하낙말」이라 칭했다고 한다 낮은 지대에 자리잡은 마을이기 때문에 「下落말」이라 했을 것이다

(2) 竹堂里

옛 명칭은 「注洞里」였다 행정구역 개편시 「竹谷」의 竹자와 「堂岾」의 堂자를 따서 「竹堂里」라 칭했다

① 죽골(竹谷) - 죽당 1리

옛날 마을에 대나무가 무성했기 때문에 「죽골」이라 이름했다고 한다

② 당재(堂岾) - 죽당 2리

옛날 마을로 들어오는 고개 위에 당집이 있어서 「당재」라 이름했다

3) 新元里

옛 명칭은 「元寂洞里」였다 「新垔洞」과 「元積골」 두 부락의 머릿글자를 합하여 「新元里」로 개칭되었다

① 신대동·평촌 - 신원 1리

「신대동(新垔洞)」은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새로 자리잡은 터전이란 뜻에서 유래된 지명이며 「평촌(坪村)」은 넓고 평평한 벌판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이다

② 원적골·대거리 - 신원 2리

옛 명칭은 「元寂洞里」·「元積골」이라 하여 옛부터 부락민들

의 생활이 넉넉하여 집집마다 노적거리가 수북수북 쌓여 있어
원적골이라 했다고 하나 어원상 일치하지 않는다 新垔洞에
대하여 원래의 마을(本洞)이란 뜻으로 원적골이라 하지않았나
생각된다

「대거리(大距里)」는 큰 거리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
다 처음에는 한 두집이 있었을 뿐이었으나 수십년전 많은
집들이 이주해 와서 큰 거리를 이루게 되었다

③ 광평·사누터 - 신원 3 리

들판이 매우 넓으므로 1945年 경에 이 곳으로 이주해 온 주
민들이 광평(廣坪)이라 이름했다고 한다

「사누터」의 어원 및 유래는 확실치 않으나 밝은 빛이 비치
는 별판(光坪)의 의미로 풀이된다

④ 신성골 - 신원 4 리

어원 및 유래를 알 수 없다 토속신앙에서 나온 제사터와
관련되어 「神聖골」이라 이름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근거가
분명치 않다

4) 高白里

원래의 명칭은 「高寺里」였다 高寺는 우리말 지명인 「높은절
이」의 訓借로 생각되며 행정구역 개편시 「高白里」로 개칭되
었다

① 높은절이 - 고백 1 리

한자명은 「高寺」이다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옛날부터 寺址
로 알려진 곳이 있어 이 절의 이름이 高寺였기 때문에 「높

은절」이라는 지명이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② 행기실 두무재 - 고백 2 리

「행기실」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탓에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원상 신빙성이 없고 「행촌(杏村)」, 또는 이와 유사한 지명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형된 것으로 여겨진다 「두무재」란 한자로 杜舞라 하여 옛날 중국 당나라 때의 시성 杜甫가 우리나라를 여행하다가 이 고개 위에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 전설이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또 일설에는 백사면 圓寂山 중에 金盤形地라는 명당자리가 있어 이 곳에 묘를 쓰면 36 대 將相이 나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여 옛부터 이 명당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방방곡곡으로 부터 모여들었다고 한다 옛날 杜時春이라는 지관이 금반형지를 찾아 인근지역을 헤메다가 마침내 이 고개 위에서 멀리 원적산 중에 있는 금반형지를 발견하고는 하도 기쁜 마음에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고 하여 「杜舞재」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전설은 신빙성이 희박하며 또 사실이라 하여도 이를 고증할 길이 없다 두무재는 「둔재(屯峴)」 또는 「뚝재」와 같은 지명이 세월이 지나면서 음운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5) 大冠里

옛 명칭은 「大旺里」였다 우리말 명칭은 「대왕이」인데 마을 뒷 산에 왕에 무덤이 있어 대왕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하나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마을이 처음 생겼을때 크게 융성 하라는 뜻에서 大旺부락이라 이름했을 것으로 본다

6) 馬岩里

옛 명칭 역시 「馬岩里」라 했다 우리말 명칭은 「마라위」 (또는 마라우)이다

「마라」는 「崇」 또는 「大」를 의미하는 우리말로서 마라재하면 大城을 뜻한다 마라위는 큰 골짜기(大谷)를 의미하는「마라울」이 마라우→마라위로 음운변화한 것을 말바위의 의미로 풀어 「馬岩」으로 訓借표기했을 것이다

7) 山村里

옛 명칭 역시 「山村」마을이라 했다 孝養山 기슭에 위치한 산간마을이라 하여 유래된 명칭으로 보인다 『邑誌』의 坊里로 夫毛谷面에 「所里藪里」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관내지도에는 지금의 산촌리와 죽당리의 중간지점 쯤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所里藪里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고 앞으로 더 조사되어야할 과제다

8) 新河里

옛 명칭은 「梅花谷里」였다 행정구역 개편시 「新村」과 「福河」에서 한자씩 따다가 「新河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복하 - 신하 1 리

약 300여년전 모가면 진가리로 부터 이주해온 柳씨 일가가 최초로 이 마을을 개척했다고 하며 복하천 옆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福河」라 했다

② 새말 - 신하 2 리

廣州 李씨를 비롯한 여러 세대가 새로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면서 「새말(新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③ 매곡(매지울) 비석거리 - 신하 3 리

옛날 마을에 유난히 매화나무가 많아서 봄철이면 매화꽃이 만발하기로 「매곡(梅谷)」 「매지울」 「매화지」 등으로 불리우다가 일정시대 초기에 와서 행정구역을 개편한 후 「梅谷里」가 되었다

「비석거리」는 조선시대 중기에 와서 길 옆에 비석이 세워짐으로서 비석거리라 불리워 지게 되었다고 하며, 이천읍에서 장호원을 거쳐 충청도로 통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오가는 길손들을 위한 주막이 들어서면서 점차 마을을 이루어 「비석마을」이 되었다

9) 加佐里

옛 명칭은 「加佐洞里」였다 자연부락 명칭은 「가재울」인데 뒷 산 개울에 가재가 많음으로 가재울이라 부르다가 한자 차용어인 「加佐洞」이 되었다고 한다

새말이란 뜻의 「가지울」에서 가재울로 변음된 것이 아닌가 추정되지만 확실치는 않다

10) 牙美里

『邑誌』 坊里에는 「蛾眉垔里」 또는 「蛾美垔里」라 나와있다

① 아미랏 - 아미 1 리

약 300여년전 通訓大夫 軍資監正을 지낸 辛聖佐란 분이 처음 터를 잡아 그 후 영월 신씨들의 씨족마을을 이루면서 마을이름을 「아미대」라 했다고 한다

마을의 생김새가 사람의 어금니처럼 생겼다고 하여 「아미랏」(또는 애미릿)이라 부르게 된 것이라는 구전이 채집되고 있으나 어원상 신빙성이 없다 마을의 형국이 사람의 눈썹(蛾眉)과 같은 반달모양이란 뜻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② 뒷고실(두고실) - 아미 2 리

옛부터 기름진 벌판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마을을 이루어 한 쪽을 「뒷고실」이라 부르고 다른 한 쪽을 「니재울」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두 마을을 합하여 뒷고실이라 부르며 속칭 「두고실」이다 기름진 벌판 뒷마을이란 뜻의 「뒷고실」 또는 「뒷기습」이 뒷기실→두고실로 음운변화 되었을 것이다

11) 水井里

옛날부터 「水井」부락으로 불리웠으며(『邑誌』 관내지도) 우리 말 명칭은 「물우물」이다 이 부락은 일찌기 약 600여년 전에 이천 徐씨들이 터를 잡아 마을을 이루게된 곳으로, 마을을 이룰 때 한 곳에 식수용 우물을 파니 그 속에서 이상한 바위가 나오고 바위 밑에서 맑은 물이 솟아올라 그 물맛을 보니 차고 좋았다 샘물이 솟는 바위이름을 「용바위」라 했으

며 그 후 마을이 커져감에 따라 군데군데 우물을 파게되니 우물마다 물이 잘 나고 물맛이 좋아 마을이름을 「물우물」이라 부르게 되어 水井里가 되었다고 한다

가뭄이 심한 해에는 용바위가 있는 웅덩이에 물을 퍼내고 소를 잡아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하며, 요즈음도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에 마을에 있는 우물마다 우물제사를 지내고 있다

수정리 부락의 다른 명칭으로 「골골」(또는 곤골)이 있다 옛날 이곳에 예조판서를 지낸 申叟의 묘를 쓰고 그 일족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듯 했다. 지금의 마을 주변일대가 모두 신씨들의 땅이었다 하여 「골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골골의 어원은 알 수 없다

부락내에 수백년 묵은 화나무가 한그루 있는데 양반에게 불경한 죄인들을 잡아들여 이 나무에 매달아 놓고 불기를 쳤다고 하여 지금도 「불기나무」라 부르고 있다 「곤골」은 이처럼 곤장을 치는 마을이란 뜻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하나 역시 어원상 신빙성이 부족하다

12) 松溫里

『邑誌』 관내지도에는 「松溫洞」으로 나와 있다 우리말 명칭은 「소론동」(또는 소릉동)인데 마을의 지세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고 하여 처음에는 「소누운동」이라 부르다가 「소론동」으로 변음되었으며 이를 한자어로 음역하여 松溫洞으로 표기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13) 柯山里

옛 명칭은 「초山里」였다 행정구역 개편시 「柯木洞」과 「초山」의 양 부락명에서 한 글자씩 따다가 「柯山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월량골·말산

옛날 柳熙烈이란 선비가 이 곳에 은거했는데 하루는 한 밤중에 글을 읽다가 밖에 나와보니 달이 환하게 골짜기를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고요한 정취에 감탄하여 「월량골」이라 이름지었다는 유래가 구전되어 오고 있다 「月涼」 또는 「月浪」으로 그 뜻을 생각할 수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말산」은 마을 뒤에 있는 작은 동산의 이름인 초山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② 가목동(柯木洞)

부락 주변에 피나무(椶木)가 많아 椶木洞이라 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柯木洞」이 되었다고 하는데, 신둔면 수광리 「나무가지」와 비슷한 지명으로 추정된다

③ 장승이

옛날 張씨 들이 처음 들어와 이루어진 마을이라 하여 「장성부락」·「장성리」라 부르다가 「장승이」로 변음된 것이라고 한다 장승(長丞)이 있는 마을이란 뜻의 「장승리」가 장승이로 변음된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14) 鷹岩里

옛 명칭 역시 「鷹岩里」였다 지금은 무너지고 없으나 마을

뒷 산에 매의 모습과 흡사한 鷹岩이란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라고 하며 이 바위가 머리를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음으로 해서 마을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고 전한다

경충산업도로에 연한 마을이 「파발막」, 또는 「주막거리」이다 이 마을은 옛날부터 한양에서 우리나라 중앙부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이었으며, 擺撥幕은 글자 그대로 파발마들을 위한 역참이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수십년전까지도 마구간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파발꾼과 오가는 길손들을 위해 자연히 주막이 형성되어 「주막거리」가 되었다

바 戶法面編

1) 酉山里

옛 명칭은 「酉良谷里」였다 廣州 李씨들이 주성을 이루고 있으며 조선 世祖때 형조판서를 지낸 廣城君 李克堪의 5대 손인 李民彝가 이 곳에 은거하여 스스로를 酉山處士라 했다

① 양달말·유산 - 유산 1리

마을의 위치가 남향반이 양지바른 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양지마을」·「양달말」이라 했으며 「유산(酉山)」은 마을 근처에 있는 산이름이 酉山이라 했던데서 유래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② 떡정머리·달개실→ 유산 2 리

이 마을에 처음 터를 잡은 사람이 떡장수였기 때문에 「떡정머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어원상 신빙성이 없고 떡정머리의 정확한 어원은 불명이다

「달개실」은 마을 뒷 산이 닭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이라고 하며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의 묘를 이천읍 증일리 「무례기」에 있는 지네혈에 썼더니 손이 끊어져 집안이 망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고 있다 닭과 지네는 상극이어서 닭이 지네를 잡아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개실」은 비탈진 기슭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의 「달기슭」이 음운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달기슭→달기실→달개실)

③ 족장골 큰말 장동 - 유산 3 리

마을이 산기슭을 따라 옆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발바닥처럼 긴마을이라 하여 「족장(足掌)골」 또는 「장동(長洞)」·「큰말」과 같은 지명이 생겨났다

④ 오미 - 유산 4 리

마을에 있는 오동나무의 열매 맛이 좋아 「梧味」라 했으며, 일설에는 마을 생김이 자라꼬리와 같다고 하여 「鰲尾」라 했다고 하나 오미에 맞는 한자어를 끌어다 붙여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평지 보다 낮고 수초가 자라며 늘 물이 피어 있는 곳을 지칭하는 말이 「오미」인데, 이 마을이 삼면이 산으로 둘러 싸인 오목한 터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마을이름을 오미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17)

2) 安坪里

옛 명칭은 「安古里」였으며 우리말 지명인 「안고니」의 音借어로 생각된다 安古里的 「安」과 윗들(上坪)의 「坪」자를 따서 「安坪里」가 되었다

① 안고니 — 안평 1리

토지가 농사를 짓는데 적합하여 다른 곳보다 가뭄이나 풍수해가 적고 안고하다고 하여 「안고니」라 했다고 하나 한자어인 安古의 뜻을 억지로 풀이하여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된다 內村 內谷을 뜻하는 「안골」의 음이 변화되어 안고니가 되었을 것이다

② 윗들 안윗들 — 안평 2리

하천 상류에 있다고 하여 「윗들」, 윗들 안쪽 마을이라고 하여 「안윗들」이 되었다

3) 厚安里

『邑誌』에 나타난 옛 명칭은 「厚美村里」였다

① 후미촌 — 후안 1리

북하천 상류에 이어진 기름진 농토를 끼고 옛부터 부유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厚美村」이라 했다고 한다 또 윗 산에 있는 바위가 두툼고 아름답다 하여 후미촌이라 했다는 설도 있으나 모두 후미의 뜻을 「厚美」로 풀이하여 지어낸 이야기

註 17) 이희승 『국어대사전』

일 것이다

산기슭이나 물가의 휘어져 들어간 곳을 우리말로 「후미」라고 한다 후미촌은 「후미골」이나 「후미기슭」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마을은 임진왜란이나 구한말의 혼란기, 6.25 사변과 같은 전란시에도 이렇다할 변고를 겪지 않았다고 하며, 그 이유는 큰 길에서 멀리 떨어져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었던 탓이라는 것이다 후미진 곳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후미촌」이라 이름했을 것이다

② 무태골 — 후안 2 리

마을 주변에 산림이 무성하여 「茂台골」이라 칭하였다고 하나 「물엿골」 즉 하천과 멀리 떨어진 지대의 마을이란 뜻의 고유한 우리말 명칭을 한자로 차용하여 茂台라 했던 것으로 본다

③ 용머리 — 후안 3 리

「용머리」에는 지명에 알킨 다음과 같은 전설이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한 나무꾼이 있어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청명하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시커먼 구름장 하나가 차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놀란 나무꾼이 바위뒤에 몸을 숨기고 몰래 바라보고 있자니 땅 위에 까지 내려와 잠시동안을 멈춰 있던 구름장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사이로 커다란 뱀과 같은 물체가 보이는 것이어서 놀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용이 하늘로 오를 때는 아무도 보아서도 안되고 소리를 질러서도 안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벌어진 일이어서 나무꾼은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나무꾼의 소리가 나자 용은 비명을 지르면서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하며 용머리가 떨어진 곳이 지금의 마을 이라고 한다 일설은 용의 머리가 떨어진 곳은 마을 앞 산으로 그 산의 형태가 용머리를 닮아 「용머리」라는 부락명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마을의 지세가 지붕의 용마루를 닮아 「용마루」라 했던데서 유래된 명칭이 아닌가 추정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4) 丹川里

『邑誌』에 나타난 옛 명칭 역시 「丹川里」였다

① 윗단내·아랫단내 - 단천 1 2 리

단천 1리를 「윗단내」, 단천 2리를 「아랫단내」라 부르며 『邑誌』 관내지도에는 東丹川과 西丹川으로 나와 있다 마을 앞을 흐르는 내의 이름이 「단내」인데서 유래된 지명으로, 물밑에 자갈과 모래가 산화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물빛이 붉게 보였기 때문에 단내라 부르지 않았나 한다

② 토끼실 - 단천 2 리

우리말의 「터기습」이 변음된 명칭으로 풀이된다 (터기습 → 터기실 → 토끼실)

5) 梅谷里

옛 명칭은 「土谷里」로서 마장면에 속해 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시 호법면에 편입되면서 「梅芍里」와 합하여 「梅谷里」라 호칭하였다

① 돈실(도니실) - 매곡 1리

「도니실」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 어느 고매한 인격을 갖춘 선비가 의를 좇아 세상을 숨어 살기로 작정하고 이 마을에 낙향하여 초당을 짓고, 당호를 「趣義室」(혹은「遁義室」이라고도 함)로 이름하여 학문을 쌓기에만 전념하니 인근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존경해 마지않았다고 한다 그 후부터 마을이름이 「돈의실」로 굳어져 세월이 지나면서 「돈실」·「도니실」로 변음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고래실·토끼실·사기실·포기실 새실과 같이 어미에 「실」이 붙는 지명은 실의 뜻이 끝·울과 같이 마을을 의미하는 순수한 우리말이나, 고유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室·實 등의 차용어가 사용되었다 「趣義室」도 원래는 「도니실」이란 우리말 지명의 뜻과 음을 동시에 살린 한자 차용어로 생각된다

도니실의 「도니」는 돌아다니다의 옛말인 「도니다」나 「돌다」에서 나온 말로 보이며, 돈실은 숨어 사는 마을이란 뜻에서 나온 지명으로 볼 수 있다

② 매지기(매작)·평촌(평장들) - 매곡 2리

옛 명칭은 「梅芍里」로서 『邑誌』 坊里 항목에는 나와있지 않고 관내지도에만 명칭이 보이고 있다

「매지기」는 매를 길들이는 사람, 즉 매지기가 살던 마을이라

하여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마을 뒷 산 봉우리를 「관진
 뫼」라 하여 한자로는 觀津峰으로 쓰고 있다 평사냥을 하는
 매를 「지니」라고 하는데 길들인 매를 「수지니」, 길들이지
 않은 야생의 매를 「날지니」라고 부른다 관청에서 기르는
 매를 「관지니」라 부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따라서 관진봉은
 「관지니뫼」가 변음된 명칭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옛날에
 는 특히 평사냥이 성행하여 고려 때에는 鷹坊이라고 하는 관
 청까지도 설치했던 기록이 있다 18)

「매작골」은 마을에 매화와 작약이 많았기 때문에 梅芍골이라
 칭했다고 한다

「평촌(坪村)」은 평평하고 넓은 들 가운데 마을이며, 「평장
 들」 역시 평평하고 긴 들판이란 뜻의 평촌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6) 東山里

옛 명칭은 「東山色里」였다

① 오동촌·상촌 피촌 — 동산 1 리

마을에 오동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梧桐村」이라 했다고 한다
 「상촌(上村)」은 윗 마을, 「피촌」은 槐村으로 느티나무가
 있어 불리워 지게된 지명일 것이다

② 자개울 요팔 — 동산 2 리

마을 냇가에 구슬과 같은 조개돌이 많아 「자개울」이라 했다

註 18) 利川郡廳 韓勝男씨의 조사자료.

고 하나 어원상 신빙성이 희박하다 「울」은 벌·골과 같은
우리말이며 자개울은 「жат울」 「жат골」이 음운변화된 지명으로
추정되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요꼴」은 지형이 요를 펼쳐 놓은듯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7) 珠珀里

옛 명칭은 「珠珀村里」였으며 마을 뒷 산에 구슬처럼 생긴 바
위가 있어 「珠珀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믿기 어렵다
우리말 지명은 「주바구니」와 「장터」인데 주바구니는 한자명인
「주박리」가 거꾸로 주박니→주바^니니로 음운변화한 것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 『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향토사 관계문헌을
보면 이천의 특산품으로 白玉과 陶器를 들고 있는데 <白玉出戶
法里>라 하여 호법면 어디에선가 백옥을 생산했던게 틀림없다
주박리는 이 백옥과 관련된 지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장터」란 지명은 옛날 시장이 서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
름이라고 한다

8) 珠美里

마을 뒷 산에 아름다운 구슬이 있어 「珠美里」라 했다고 하는
데 珠珀里와 함께 白玉구슬의 산지와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우리말 명칭은 「양달주바구니」인데 珠珀里(주바구니)와 구별하
기 위해 양지 쪽에 있다고 하여 양달주바구니라 했을 것이다

9) 松葛里

大陽面의 「松葛山里」, 暮山面의 「石塘村里」가 1914년 행정구

역 개편시 戶法面으로 편입되면서 「松葛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송갈미 - 송갈 1리

「송갈미」가 세월이 지나면서 「송갈미」로 변음되었을 것이다
옛 명칭은 「松葛山里」로서 松葛은 주변 산에 소나무와 뽕나무
꽃이 많아 붙여진 명칭으로 추정된다.

② 윗돌댕이·아랫돌댕이 - 송갈 2리

옛 명칭은 「石塘村里」였으며 아랫 마을과 윗 마을을 각각
「아랫돌댕이」, 「윗돌댕이」라 부른다 「石塘」(돌로 쌓은
연못)의 우리말 명칭인 돌당이 돌댕이로 변음된 것으로 본다
이 마을에는 옛날 石川邑이 있었다는 전설이 구전되어 내려오
고 있다 심지어는 石川고을 수령의 직인을 어린 시절에 보
았다는 노인들도 있는데, 「鄉校골」과 「아전이들」(衙前들로
추정)과 같은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어 흥미를 자아낸다¹⁹⁾

『三國史記』에 위치를 알 수 없는 지명중에 「石川」이란 지
명이 있다고 하여 石川邑의 전설을 이 것과 결부시키려는 주
장도 있으나, 단정을 내리기엔 미흡하여 이는 앞으로 더 연구
되어야 할 과제이다

註 19) 韓勝男씨의 조사자료

사 麻長面糰

1) 午川里

옛 명칭은 「呑川里」였고 『東國輿地勝覽』이천도호부 驛院條에 보면呑川驛이 이곳에 있었다 「五川」으로 표기된 문헌도 있으나呑川의 잘못된 듯 싶다 陽村里와 冠里에서 발원하여 오천 북쪽에서 용인쪽의 시내와 합류되어 북하천으로 흘러드는 내의 이름을呑川이라 하여 유래된 마을명칭이 아닌가 추정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이천이 왕의 할머니인 신씨의 고향이라고 하여 그때까지 永昌縣이었던 것을 南川郡으로 승칭하면서 관아를 이곳에 이전했었다 이때의 방위가 南方인 午方이기에 마을이름을 「午川」이라 했다는 주장도 있으나呑川이 午川으로 개칭된 것은 한일합방 뒤에 실시된 행정구역 개편 후의 일이니 근거없는 이야기다

자연부락 명칭으로는 「윗말」과 「응달말」·「당거리」가 있는데 윗말과 응달말은 글자 그대로 上村과 陰地말의 뜻이다 「당거리」는 옛날 이 곳에 당집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으로 볼 수 있다

2) 陽村里

옛 명칭은 기록에 나와있지 않아 근래에 와서 오천리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루어진 마을로 생각된다 남향반이 산기슭에 연한 마을로 午川里의 응달말에 대해 양지쪽에 자리잡은 양지마을이란

뜻에서 「陽村里」라 했을 것이다 ,

3) 冠里

옛 명칭은 「冠洞里」였다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예의를 숭상하는 마을이란 뜻에서 冠洞이라 했다고 하는데 조선 성종 때 사람으로 학문이 뛰어나 徐熙·金安國과 함께 雪峰書院에 제향된 廣州人 栗亭 李寬義가 이 마을에 살았다

① 큰가마골 작은가마골 - 관 1 리

「가마골」이라 하여 옛날 도자기를 굽던 마을로 추정되었으나 현지조사 결과 釜谷과 같은 뜻의 지명임이 확인되었다 마을 노인들에 의하면 마을이 나즈막한 야산으로 둘러싸여 가마솥을 걸어놓은 것처럼 움푹 들어간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가마골이라 했다고 한다

② 무지기·뒷말 주막거리·군량 - 관 2 리

「뒷말(後洞)」·「주막거리」의 유래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다

「무지기」는 무지개의 방언으로 「무지개골」의 변음이 아닐까 추정되지만 확실치는 않으며 「군량」의 어원 및 유래는 알 수 없다

③ 유다리 - 관 3 리

冠리에 은거했던 李寬義의 호가 栗亭인 것과 관련하여 「栗橋」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추정되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율다리→유다리)

④ 송침 오미·압실·개배울 장지울 - 관4리

「송침」은 술고개라는 뜻의 「술치미」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압실」은 앞 동네라는 뜻의 「앞실」로 볼 수 있고, 「오미」는 호법면 유산4리의 경우와 같이 오목한 터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일 것이다

「장지울」은 李寬義의 은거사실과 관련하여 옛날 長者가 살던 마을이란 뜻의 「장자울」에서 유래된 마을명으로 추정되며, 「개배울」은 「괴배울」이라고도 하는데 어원 및 유래가 분명치 않다

4) 灰億里

옛 명칭은 「億萬里」였다 우리말 명칭은 「억만이」인데 이천의 대표적인 전설로 손꼽히는 孝養山 금송아지 이야기 중에 금송아지를 찾으러 먼 길을 온 중국사신에게 노인이 길을 가르쳐주는 대목인 <억만이 고개를 넘어, 보름다리를 지나, 이천역을 지나, 억억다리를 건너서, 구만리 벌판을 지나가야 한다>는 데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금송아지의 전설 자체가 지명의 음을 따서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회다리」와 「억만이」 두 지명에서 한 글자씩 따다가 「灰億里」로 개칭되었다 「회다리」는 회(灰)로 만든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5) 長岩里

옛 명칭은 「長壽旺里」와 「門岩里」였다 행정구역 개편시 두

부락의 명칭에서 한 글자씩 따다가 「長岩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문바위 (門岩) - 장암 1 리

한자로는 門岩이라고 표기하며 마을 뒤 도드람산 기슭에 있는 문처럼 생긴 바위의 명칭에서 유래되어 「문바위」라 했다고 한다

② 장생이 - 장암 2 리

마을 동구에 太平興國 6年(고려 景宗 6년·서기 981)의 銘文이 있는 마애보살반가상이 있으며, 『東國輿地勝覽』에는 「長水旺」으로 명칭이 나오는 유서깊은 마을로서 그 후 「長壽旺」으로 개칭되었다

동구에 長丞이 있었기 때문에 「장승이」라 했다가 「장생이」로 음운변화된 것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장수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장생(長生)이라 했다고 하나 長壽旺의 뜻을 적당히 풀이한 말일 것이다

6) 木里

옛 명칭은 「木洞」으로 『邑誌』 관내지도에만 명칭이 수록되어 있다 주변 산에 나무가 무성하여 「목동」이라 했다고 한다 이 부락의 우리말 지명인 「주막거리」의 유래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마을 앞으로 해서 장암리를 지나 신둔면 고척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옛 길 중에 하나였다

7) 標橋里

『邑誌』 관내지도에는 木里 아래 쪽에 「屯田里」가 나와있어 「標橋里」의 옛 지명이 屯田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옛날 科

田法에 따라 각 지방 주둔군의 군량을 자급하거나 또는 관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할당되었던 토지를 「屯田」이라 했다. 屯田里는 이 屯田이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유래된 지명일 것이다.

넷물에 물이 불어났을 때 수위를 재기 위해 눈금을 표시한 측정기구를 설치했던 다리가 水標橋이다. 「標橋里」는 옛날 마을 앞을 흐르는 넷물 위에 水標橋가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이를 증명할만한 고증이 없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① 안보름다리 바깥보름다리 - 표교 1 리

지금의 수원국도를 끼고 흐르는 梨峙川을 사이에 두고 남쪽 산동네 마을을 「안보름다리」, 넷물 건너편 마을을 「바깥보름다리」라 하는데 보름다리의 어원과 유래는 미상이다.

② 터꼴·정악골 - 표교 2 리

「터꼴」은 本洞과 같은 의미이며 「정악골」은 옛날 이 골짜기에 있었던 定兵寺라는 절이름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東國輿地勝覽』에 <定岳寺在 猪鳴山>이라 했는데 지금은 정악골의 지명과 함께 寺址의 흔적만 남아있다.

8) 梨峙里

『邑誌』 坊里편에 나타난 옛 지명 역시 「梨峙里」였으며 우리 말 지명인 「배고개」의 訓借이다.

① 고락골·대왕이 - 이치 1 리

「고락골」은 고래골 고래실과 같은 뜻을 지닌 지명으로 생각

되며, 「대왕이」는 마을이 크게 왕성하라는 뜻에서 「大旺」이라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② 안배터·벌배터 - 이치 2·3 리

이치 2리가 「안배터」, 이치 3리가 「벌배터」이다

아주 옛날에는 오천리의 동서 간으로 큰 강이 흘렀다고 한다 강물이 산을 들이받고 옆으로 흘러 굽어드는 지점을 우리말로 「베루꽃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베루꽃이산」이란 지명이 남아 있다 「배터」라는 지명은 강이 흐르던 시절에 배를 타던 곳이라고 하며, 지금도 이·근방을 깊이 파헤쳐 보면 강변에서나 볼 수 있는 모래가 넓게 깔려 층을 이루고 있어 예전에 강이 흘렀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²⁰⁾

마을의 지형이 배의 모습과 같아 「배터」라 불리우게 되었다는 설도 있는데, 강이 흘렀다는 전설은 믿기 어렵고 아마도 옛날에는 梨峙川에 수량이 많아 이들 마을이 작은 배들이 드나드는 나루터가 되었음직도 하다

벌판쪽 마을이 「벌배터」이고 그 안쪽 마을이라 하여 「안배터」이다

9) 各坪里

옛 명칭은 「各氏洞里」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각시(各氏)울」과 「벌말(坪村)」의 머릿글자를 따다가 「各坪里」로 개칭되었다

註 20) 利川郡教育廳 發行 『향토학습자료』

우리말 지명으로는 「각시울」 「별말」 「새말」이 있는데 시집 안간 색시(각시)들이 많은 마을이라 하여 각시울이라 했다고 하며, 별말은 坪村, 새말은 新村이다

10) 泥坪里

옛 명칭 역시 「泥坪里」였는데 이평 1리의 자연부락명인「진들」을 의역하여 泥坪리라 한 것이다

① 진들 - 이평 1리

땅이 매우 진 곳이라고 하여 「진들」이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② 삼승이 - 이평 2리

마을 뒷 산의 형국이 마치 중 셋이 나란히 서서 염불을 하며 내려오는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삼승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하며, 마을 앞에 있는 뽕죽한 산봉우리가 「목탁봉」이다 또 옛날 마을의 세거성씨가 셋이었기 때문에 「삼성(三姓)」이라 했던데서 유래된 명칭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삼성→삼승이)

11) 德坪里

옛 명칭 역시 「德坪里」라 했는데 우리말 지명인 「덕들」의 한자의역이 德坪이다

① 덕들 - 덕경 1리

가뭄을 타지않고 농사가 잘 되므로 고루 덕을 받은 들이라는 뜻에서 「덕들」이라 하였다 또 마을 서북간으로 산이 높게 위치하여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도 덕들이라 부르게된 이유중에 하나라고 한다

② 뒯들(後坪) - 덕평 2리

「덕들」에서 볼 때 뒯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뒯들(後坪)」이다

各坪里 安坪里 泥坪里·德坪里 등 「坪」자가 들어가는 지명을 가진 마을 모두가 북하천 상류에 위치하여 내를 끼고 논이 발달한 지역이다

12) 蟹越里

『邑誌』 坊里에는 나와있지 않고 관내지도에만 「蟹越」이라는 부락명이 명기되어 있다 蟹越은 「게넘이」라는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의역한 명칭이다

「게넘이」는 옛날 오천리 앞으로 강이 흐르던 시절 무수한 게들이 무리를 지어 산을 넘은 일이 있고나서, 그 후부터 게넘이라 불리우게 되었다는 지명유래가 구전되어 오고 있으나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용인쪽 稼倉里에서 게가 넘어와 엮드린 형국 이어서 「게넘이」로 불리우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산을 넘어온데서 유래된 지명이라는 설도 있다 자연부락으로 「사기실」과 「점촌」이 있는데 모두 乾芝山(410.7m)과 巢鶴山(309.3m) 사이에 깊숙이 자리잡은 산간마을로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 쪽 부락 모두 부근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백자를 굽던 가마자리가 발견되었다 도자기를 굽던 마을이기 때문에 사기실·점말이란 지명이 생겨났음이 분명하다

13) 苟村里

옛 명칭은 「雀別里」였다 효양산 금송아지 전설에서 유래되어 금송아지를 가지러온 중국사신이 이 곳에서 길을 묻고는, 농부가 일러주는 말을 곧이듣고 남은 일정이 너무 아득하여 포기하고 (작별하고) 돌아간 곳이기 때문에 「작별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으나 신빙성이 희박하고 「작별이」에 대한 뚜렷한 어원은 알 수 없다

작촌리에는 「나라모르기」라는 재미있는 지명이 있는데 사방이 첩첩이 중첩된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분지로서 英祖 4년(1728) 李仁佐의 난에 연루되어 처형된 李思晟이 여기에 은신하여 전답을 개간하고 양병조련에 힘쓴 곳이라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신임사화로 실각했던 노론세력이 영조의 즉위와 함께 다시 집권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소론 李仁佐가 鄭希良 金寧海 등과 공모하여 密豐君 坦을 추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니 이른바 李仁佐의 난이다 李仁佐는 우선 청주를 습격하여 병사 李鳳祥을 죽이고 스스로 대원수를 사칭하며 무리를 이끌고 진천을 거쳐 죽산 안성으로 진격했다 때마침 용인에 은거하고 있던 소론의 원로 崔奎瑞가 이를 조정에 고변하여 도순무사 吳命恒이 거느린 관군에 의해 반란이 진압되었으며, 李仁佐를 비롯한 주모자들이 한양으로 압송되어 참형되었다

이 때 평안도관찰사 겸 병마절도사로 있던 李思晟도 소론의 일파로써 반란에 가담했다 하여 함께 처형되었다

李思晟은 五王선생 李聖任의 6세 손으로 대월면 군량리에서 태

어나 자라면서 무술을 연마했는데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한 장사의 기품이 있었다고 한다. 마장면과 신둔면의 경계를 이루는 양자산 산중에는 馳馬臺라 부르는 바위가 있는데 李思晟이 말을 달리며 무술을 연마한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이처럼 군내 여러지역에서 李思晟과 관련된 전설이 채집되고 있어 비록 그가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고는 해도 기이한 행적을 많이 남긴 빼어난 인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작촌리의 「나라모르기」는 나라에서도 알지 못하는 궁벽한 땅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마. 大月面編

1) 丹月里

옛 명칭은 「丹月川里」였으며 단월 2리의 우리말 명칭인 「단드래」의 한자 차용어로 생각된다.

① 사거리·공다리미 - 단월 1리

「사거리」는 글자 그대로 십자로의 뜻이다. 「공다리미」에는 다음과 같은 지명유래가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이곳에 주막이 하나 있어 과부가 「달이」라는 외동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주막은 영남지방에서 과거를 보려고 한양을 오가는 선비들이 자주 유숙하는 곳으로서, 과부의 행실이 양전하고 손끝이 여물어 주막에 대한 평판이 높았다. 달이의 성이 孔씨였는데 공달이네 주막이란 뜻에서 「공달이」

라 부르다가 그 밑의 마을을 「공다리밑」으로 부르게 된것이
공다리미가 되었다고 한다

「공다리미」는 덩그렇게 뜬 달이 비치는 산이라는 뜻의 「공
(空)달의 뒤편」에서 변형된 명칭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공달뒤편→공달미→공다리미)

② 단드래 - 단월 2리

村老들이 마을 앞 북하천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해가 진 후 귀
가하면서 보니 둥근 달이 동산 위에 떠올라 붉은 달빛이 마
을을 환히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단드래」라 속칭하였다
고 하나 한자어인 「丹月」의 뜻을 풀이하여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단달내(丹月川)」 또는 「단들내(丹野川)」가 속음화된 명
칭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2) 大浦里

『邑誌』 坊里편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관내도에는 옛 명칭이「大
浦川里」로 되어 있다

① 황그내·소도니 삼정개 - 대포 1리

약 300여년 전 영천李씨들이 대포천 건너에다 처음 마을을
건설했을 때는 내 건너 마을이란 뜻에서 「한전내」 또는
「한개내」라 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황그내」로
변음된 것이라고 한다 黃씨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여
황그내라 했다고도 하나 어원상 신빙성이 부족하고 「荒川」,
또는 「黃川」의 뜻이 「황그내」로 변음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소도니」(혹은 쇠도니)는 마을 뒤에 있는 뽕죽한 산봉우리의 명칭인 「소도니봉」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본다 三韓時代に 天神을 제사하던 지역을 蘇塗라고 했다 각 고을에 있는 이 지역에 신단을 베풀고 그 앞에 방울과 북을 매단 큰 장대를 세우고 제사를 올렸다 소도는 우리말의 「숫대(立木)」나 혹은 높은 터를 의미하는 「숫터」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소도니봉의 한자명이 鼎鳴山이어서 「쇠돌이봉」으로도 풀이되며 이것은 숫대 끝에 매단 쇠방울이 딸랑 딸랑 울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도니」 혹은 「쇠도니」라는 지명은 숫대나 쇠돌이가 그 어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¹⁾

「삼정개」의 「삼정」은 농삼장(三丁)이라고도 하여 상자²²⁾를 넣는 삼노를 꼬아 엮은 망태²²⁾를 의미하는 말로 풀이된다 「개」는 배증개와 같이 냇가에 위치한 마을을 지칭하는 우리 말이다 삼정개는 냇가에 자리잡은 망태처럼 우묵한 지형의 마을이란 뜻일 것이다

② 홍촌 새말 - 대포 2리

약 400여년 전 남양 홍씨들이 처음 터를 잡아 마을을 이루고 번성한 곳으로 홍씨들의 마을이란 뜻에서 「洪村」이라 했

註 21) 利川郡廳 韓勝男씨 조사자료

22) 이희승 『국어대사전』

다고 한다 그 후에 새로 이루어진 마을이 「새말(新村)」이다

3) 高潭里

옛 명칭은 「高垔岩里」로서 「고뎨이」라는 우리말의 한자 차용어이다 이 한자명에서 유래되어 약 300여년 전 한 풍수장이가 이르기를 집터를 높은 곳에다 잡으면 마을이 번창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두들 높은 터에 집을 지어 마을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후부터 高垔岩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구전이 채집되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高潭里」로 개칭되었는데, 그 후 마을 윗쪽인 해룡산과 원통산 사이를 막아 저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高潭이 이루어졌으니 명실상부한 高潭里가 된 셈이다 저수지 아래쪽의 「안고뎨이」(고담 1리)에 대하여 별판 -쪽의 마을이 「별고뎨이」(고담 2리)이다

4) 長錄里

옛 명칭은 나와있지 않으며 마을의 지세가 사슴이 누워있는 형국이라고 하여 「長鹿」이라 했다가 행정구역 개편 후 「長錄里」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말 지명은 「장록이」 또는 「장노기」로 불리우고 있다.

5) 道理里

옛 명칭은 「道理洞里」였다 우리말 지명은 「도니울」인데 도니울은 둘러놓은 마을이란 뜻이라고 한다 6.25 동란시에 북괴군이 이 지방을 지나가면서 마을이란 마을은 모두 쑥밭을 만들었으나 이 동네만은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탓에 모르고 그냥

지나쳐 갔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는 것이다

「도니울」이나 「도니실」(호법면 매곡 1리) 「도니피」(백사면 도립리) 등의 마을에 공통점은 임진왜란, 또는 6.25 사변과 같은 전란시에 적에 침입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들 마을의 공통된 점이 큰 길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며 바로 질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빙 돌아 들어가야만 하는 후미진 마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道理」·「道立」이란 지명은 우회한다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인 「돌다」에서 유래된 한자 차용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²³⁾

6) 九時里

옛 명칭은 「九時洞里」였는데 「九時」라는 한자어의 유래는 알려진 것이 없다.

자연부락명으로 「용지머리」(또는 용두머리)와 「다래촌」이 있다 「용지머리」는 마을 앞에 큰 못이 있어서 이름을 「龍池」라 했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이라고 하며 「용두머리」는 마을형국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다래촌」은 부락이 높은 지대에 자리잡고 있어 농작물을 운반할 때 달아올려야 했다고 하여 다래촌이라 했다는 지명 유래가 채집되고 있으나 「다래」의 뜻을 달아올리다로 풀어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달래촌」 또는 「달촌(月村)」이 음운변화된 지명으로 풀이된다

註 23) 栢沙中學校 전조웅 - 『利川郡誌』 편찬자료

7) 郡梁里

옛날에는 「上郡梁里」와 「下郡梁里」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말 지명이 「윗군들」과 「아랫군들」이다 행정구역 개편시 양 부락을 합하여 「郡梁里」가 되었다 지금은 없어졌으나 군내에서 가장 큰 돌다리가 있었다고 하여 「군량」이라 이름했다고 하나 어원상 맞지 않는다 넓고 기름진 들판이 군내의 대들보와 같다고 하여 郡梁이라 이름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① 아랫군들·윗군들 — 군량 1·2 리

「아랫군들」(군량 1리)에 대하여 군량 2리를 「윗군들」 또는 「안골」이라 호칭하고 있다 군들의 어원은 확실치는 않으나 고려 숙종 때 주둔군의 식량 및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軍屯田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군들」이란 지명이 생겨나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 있다

군량 2리에 「군들장터」란 지명이 있는데 옛날 이 곳에서 장(郡梁市)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다

② 새말·뒷말 — 군량 3 리

각각 「新村」과 「後洞」의 뜻이다 뒷말에 「이만이재」라는 지명이 있는데 군량리에서 태어난 李思晟이 군사 2만을 거느리고 용병훈련을 한 곳이라 하여 유래된 명칭이라고 한다 (마장면 작촌리 「나라모르기」의 지명유래 참조)

8) 松羅里

옛 명칭은 「松羅谷里」였다 우리말 명칭은 「소래울」인데 松羅谷은 소래울의 음과 뜻을 딴 한자 차용어일 것이다 마을에

송림이 울창하여 「소래울」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솔고개」 「솔골(松谷)」 또는 「솔개울」이 소래울로 음운변화했을 것이다

9) 長坪里

옛 명칭은 「夫皇洞里」였고 『邑誌』 관내지도에는 「長坪洞」으로도 나와 있다 夫皇洞은 우리말 지명인 「봉골터」의 차용어일 것이다

① 봉골터(범골) — 장평 1리

옛부터 산림이 울창한 지역으로 옛날에는 범이 많아 「무섭다 범골」이라 불리웠다고 한다 또 마을을 등글게 산이 에워싸고 있는데 제일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마을을 굽어보면 마치 범이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하여 「범골」이라 불리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봉골」은 범골, 또는 부엉골이 음운변화된 지명으로 생각된다

② 원뎡이 새터말·넘말 — 장경 2리

「원뎡이」는 옛날 죽은 사람의 화상이나 위패를 모신 願堂이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원답(原沓)」이나 「원터(原垓)」의 음이 원뎡이→원뎡이로 변화된 지명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새터말」은 新垓洞, 「넘말」은 넘어마을 즉 越村이다

10) 夫必里

『邑誌』 坊里에 나타난 옛 명칭은 「富必里」였다 관내지도를 보면 富必里와 부발면 鷹岩里 사이에 「釜蓋洞」이란 지명이 나

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말하는 지명인지는 분명치가 않다

시대는 알 수 없으나 옛날 국정이 몹시 어지럽던 시절 간신들의 모함으로 궁지에 몰린 어떤 충신이 이 마을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 충신의 부인이 또한 남편에 뒤를 따라 스스로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정절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때부터 「夫必里」라 호칭하게 되었다는 지명유래가 구전되어 오고 있으나, 夫必이라는 한자의 뜻에 맞게 후세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앞서 든 바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명칭은 「夫必」이 아닌 「富必」里였기 때문이다

우리말 지명은 「비피리」인데 아마도 마을이 처음 생기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꼭 부자가 되라는 염원을 담아 「富必里」라 했을 것이고, 부필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비피리로 변음되었을 것으로 본다

11) 草芝里

『邑誌』에 나타난 옛 명칭은 「草枝谷里」였으며 「草芝谷」이라는 표기도 눈에 띈다 자연부락 이름은 「등안이」와 「새실」이 있는데 「등안이」는 장등 넘어에 있는 안쪽 마을을 장등안이라는 뜻에서 등안이라 했을 것이다

「새실」은 제비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다고 하나 신빙성이 부족하고 「새기슭」 또는 「새말」의 동의어로 볼 수 있다

12) 巳洞里

『邑誌』 坊里에는 부락명이 나타나 있지 않고 관내지도에만 「巳洞」으로 표기되어 있다 구전에 의하면 「白洋洞」이란 명칭으로 불리우기도 했다고 한다

巳洞은 우리말 지명인 「뱀골」의 訓借인데 마을을 둘러싼 산줄기의 지세가 뱀과 같다고 하여 뱀골이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세 마을이 있어 새로 이루어진 마을이 「새뱀골」, 그 보다 작은 마을이 「작은말」이다

13) 大垆里

옛 명칭은 알 수 없고 우리말 명칭은 「한터」와 「아래한터」인데 한터의 訓譯이 곧 「大垆」이다 옛날 어느 大人이 살던 터였기 때문에 한터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하나 믿기 어렵고 크고 넓은 터라는 뜻에서 한(大)터라 했을 것이다

14) 大興里

옛 명칭은 「大洞里」와 範興里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양 쪽 부락의 머릿글자를 따서 「大興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범흥이 - 대흥 1리

옛날 해룡산 밑에 「뽕남말」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약 200여 년 전 지금의 마을로 이주하여 오면서 「範興里」라 했다고 하며 우리말 호칭은 「범흥이」이다 마을을 이룰 때 크게 흥하여 모범이 되라는 뜻에서 「범흥리」라 이름했을 것으로 본다

② 큰골 - 대홍2리

해룡산 기슭에서 제일 큰 골이라 하여 「큰골」이라 했다가 골짜기가 여주군 가남면까지 연결되어 그 길이가 족히 십리에 이른다고 한다

자 暮加面編

1) 陳加里

옛 명칭은 「加洞里」 또는 「芑麻洞里」라 했다 행정구역 개편시 「陳內(진안)」와 「加洞里(갈매울)」 두 마을의 머릿글자를 따다가 「陳加里」로 개칭되었다

① 갈매울 터골 - 진가1리

옛날 어느 장수가 타던 말이 목이 몹시 말라 죽은 곳이라고 하여 「渴馬울」이라 불리워 오다가 「갈매울」로 변음되었다는 지명유래가 구전되어 오고 있으나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갈매나무가 많아 「갈매울」이라 했거나 「갈피골」이 음운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터골」은 원터(元堡), 또는 本洞의 의미와 같다

② 진안 - 진가2리

한자로는 「陳內」라 쓰고 마을주변에 축성년대가 밝혀지지 않은 토성의 흔적이 지금도 일부 남아있다 이 토성의 존재로 미루어 이 마을은 한 때 많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머물렀던 지역이었음이 틀림없고 「진안」이란 지명은 兵營안과 같은 의

미로 군사들이 진을 쳤던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본다 태조 李成桂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한 때 이곳에 머물
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근거를 알 수 없다

2) 西垆里

『邑誌』 坊里에는 나와있지 않고 관내지도에만 「西垆」이란 명
칭이 표기되어 있다 우리말 지명인 「쇠경들」의 한자 차용어
로 보인다

① 쇠경들 벌말 공말 - 서경 1리

「쇠경들」은 마을 뒤에 산세가 소가 밭을 갈고 있는 형국이
라고 하여 유래된 명칭이라 전한다 그 후 마을의 선비들이
중국에 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서경이란 고을에 이름을 빌어다
가 「西垆」이라 명명했다는 것이다

「벌말」은 벌판 가운데 있는 마을(坪村)이며, 「공말」의 어
원 및 유래는 분명치 않으나 둥근 지형의 마을, 또는 「곰말」
에서 유래된 지명일 것이다

② 보뜰 - 서경 2리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예전에 들 가운데 보(伏)가 있었기
때문에 「보뜰」이라 했다고 한다

3) 山內里

옛 명칭 역시 「山內里」였으며 우리말 명칭은 글자 그대로
「산안」이다

조선 中宗朝에 우의정을 지낸 忠成公 權鈞의 墓가 이 마을 상
단에 있으며 그 후손들인 安東 權씨들이 터를 잡아 마을을 이

루게 되었다 마옥산 주봉에서 좌우로 뻗은 산 줄기가 감싸
분지를 이루고 있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산간 마을
이라 하여 「산안」이란 지명이 생겨났다

4) 松谷里

옛 명칭 역시 「松谷里」였으며 우리말 지명인 「솔울」의 한자
명이다

① 소리울·병목안 — 송곡 1리

「소리울」은 마을주변에 송림이 울창하여 붙여진 松谷이란 뜻
의 「솔울」이 소리울로 변음되었을 것이다 「병목안」은 마
울로 들어가는 입구가 양 쪽이 산이 막혀있어 병의 목과 같
이 좁고 길쭉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② 굿배미·인두배미·황새벌 — 송곡 2리

「굿배미」는 움푹 패인 구덩이가 있는 논배미라는 뜻에서 유
래된 지명이라고 하는데 구덩이를 뜻하는 우리 옛 말에 「굿」
(또는 「굴」)이 있다²⁴⁾ 또 굿덕대·굿막 굿웃·굿문과 같
이 주로 鑛山에서 쓰는 용어로서 「굿」이 구덩이나 坑道를
의미하는 말로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굿은 배미라는
뜻에서 「굿배미」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두배미」의 「인두」의 어원이나 유래는 미상이며, 「황새벌」
은 글자 그대로 황새들이 많이 날아와 앉는 벌판이란 뜻이라
고 한다

註 24) 신기철·신용철 편저 『우리말 큰 사전』

5) 梁坪里

옛 명칭은 「郡梁里」였으며 인접 마을인 大月面 郡梁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시 「梁坪里」라 개칭했을 것이다. 우리말 명칭은 「구은들」인데 마을 뒤에 있는 산등성이에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龜隱」이라 불렀던 데서 유래된 명칭이라고 하나 신빙성이 희박하다. 매월면 군량리의 「군들」의 경우와 같이 軍屯田의 존재에서 유래된 지명이거나, 해마다 풍년을 비는 뜻에서 「水愿들」이라 이름했을 것으로 본다.

6) 素沙里

『邑誌』에 나타난 옛 명칭 역시 「素沙里」였다. 우리말 호칭은 「소새」인데 고어에서 「沙」는 「새」로 발음되었으므로 소새는 흰모래를 뜻하는 素沙의 동의어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마을명인 「텃골」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던 바와 같다.

7) 院頭里

옛 명칭은 「元頭里」라 했으며 우리말 지명인 「원머리」의 한자 차용어일 것이다.

① 원머리 - 원두 1리

고려 때 驛院을 설치했던 곳이기 때문에 「원머리」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하나 옛 명칭은 「元頭里」였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원머리는 「터골」이나 「本洞」과 같은 뜻을 가진 지명으로 풀이된다.

② 미리울·아랫미리울 - 원두 2 . 3 리

옛날 '어떤 사람이 상을 당하여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못미처서 '미리 운 곳이라고 하여 「미리울」이라 했다고 하는데 미리울의 뜻을 「미리 울다」로 풀어 그럴듯 하게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다

「미리울」(원두 2 리)에 대하여 원두 3 리가 「아랫미리울」이며 한자로는 上尾谷 下尾谷으로 쓰기도 한다 미리울의 어원은 밑에 골의 뜻인 「밑울」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8) 所古里

옛 명칭은 「所古之里」였으며 우리말 지명인 「소고지」에 대한 音借표기일 것이다

① 소고지 - 소고 1 리

마한시대의 제사터인 「숫대(蘇塗)골」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추정되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소고지」가 소도와 관련된 지명일 경우 한자명인 「所古之」는 원래의 뜻이 「蘇高地」또는 「蘇鼓地」라 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所古之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점촌 쇠골·밤나무골 - 소고 2 리

「점촌」은 웅기를 굽던 웅기점이 있어 店村이라고 했다

「쇠골」은 건너 편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소가 누워있는 형국 이어서 쇠골이라 했다고 하는데 한자명은 「金谷」으로 표기하고 있어 소(牛)가 쇠(金)의 뜻으로 변한 것으로 본다

「밤나무골」은 글자 그대로 마을주변에 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유래된 이름이다 지금도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밤나무 한 그루가 남아있어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지금은 고목이 다 되었지만 이 밤나무에 열린 밤을 먹으면 장수한다는 속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② 새말 - 소고 3리

약 100여년 전 사람들이 이주해 음으로서 새로 생긴 마을이다

9) 薪葛里

大陽面 「葛山里」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暮加面으로 편입되면서 大月面 松葛里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薪葛里」라 했다

① 큰갈미 - 신갈 1리

갈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뜻의 「갈피」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大月面 松葛里의 「송갈미」에 대하여 큰 마을이라 하여 「큰갈미」라고 이름했을 것이다

② 넘말 - 신갈 2리

등성이 넘어의 마을, 즉 越村의 뜻이다

10) 於農里

『邑誌』 坊里에 나타난 옛 명칭은 「於農洞里」였다

① 어농골 - 어농 1리

옛날 어느 도승이 이 곳을 지나면서 말하기를 용이 승천한 곳에다 농사를 지으면 부귀영화를 누리리라고 하여 「어농」이

라 이름지었다는 지명 유래가 채집되고 있으나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한자명은 「於陵洞」인데 유래를 알 수 없는 古墳이 있어 이 무덤과 관련된 지명으로 생각된다 「어릉굴」이 「어농굴」로 변음되었을 것이다

② 어릉굴 - 어농 2 리

용이 승천한 곳이라는 전설에 따라 「어릉굴」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어농리에 「사슬터고개(粧峴)」라는 지명이 있는데 궁예가 원주의 양질에게로 갈 때 이 고개를 넘었다는 전설이 있다

③ 풍덕말 - 어농 3 리

옛날 이 마을에 살던 한 부자가 마을사람들에게 크게 선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웃마을에서 이 곳을 덕이 많은 마을이라 하여 「豐德말」이라 부르기 시작한데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11) 豆美里

옛날에는 「侍美洞里」와 「豆亦里」 두 개의 마을이었다 또 지금의 두미 1 리와 2 리 사이에 「五里洞里」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고 그 정확한 위치도 미상이다 侍美洞과 豆亦에서 한 글자씩 따다가 「豆美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미록댕이 - 두미 1 리

옛 날에는 「신적리」라 했다고 하나 출전이 분명치 않다 마을 한 쪽에 느티나무가 있고 그 밑에 마멸이 아주 심한

조그만 석불이 있는데 「미륵대」는 이 석불의 존재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어원은 「미륵당」이다

옛날 마을 뒷 산에 난폭한 산적이 살고 있어 걸핏하면 마을에 내려와 재물을 빼앗고 양민들을 괴롭히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 어느날 힘센 장사가 들어와 이 산적을 내쫓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 미륵불을 만들어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내려 오고 있다

② 시미골(시무골) - 두미 2리

속칭 「시무골」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侍美洞」은 「시미골」의 音借일 것이다

마을 뒤 고개가 삼국시대에 적을 방비하기 위해 木冊을 설치했던 곳으로 전해오고 있다 적을 방비하는 일처럼 시급한 일이 없으리라는 뜻에서 「時務골」이라 이름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근거가 부족하고, 깊은 골이라는 뜻의 「심골」, 또는 「샘골」에서 음운변화된 명칭으로 추정되고 있다

(샘골→새미골→시미골)

차 雪星面編

1) 金堂里

옛 명칭은 「松三洞」이었으며 지금의 금당 2리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금성(金城)골」의 金자와 「堂前」부락의 堂자를 따서 「金堂里」로 개칭되었다

① 금성골 - 금당 1 리

한자명은 「金城골」인데 어원 및 유래미상이다 金城은 우리 말인 「쇠울」의 借用語일 수도 있고 金씨 마을이란 뜻의 「金姓골」로 추정해 볼 수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② 당앞(堂前) 전촌 송삼 - 금당 2 리

옛날 마을 뒤에 堂집이 있어 당 앞마을이라 하여 「당앞(堂前)」이라 했고 「전촌」은 錢村으로 표기하여 이 마을에 있던 주막의 이름에서 유래된 명칭이라고 하나 믿기 어렵다 전촌은 「前村」의 뜻이 와전되었을 것이다

「松三」은 노승 세그루가 부락에 있어 松三이라 했다고 전한다 또 덕망이 높은 李씨 성의 세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松三이란 지명이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의 누이가 조선에 가면 소나무를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왜군들이 이 마을에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모두 피해 갔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2) 長陵里

옛 명칭은 알 수 없다 행정구역 개편시 「장수골」과 「장울」의 長자와 「능골」의 陵자를 따서 長陵里로 개칭되었다

① 장수골·장군벌 - 장릉 1 리

마을 앞에 수원이 풍부한 긴 골짜기가 있어 「長水골」이라 했다고 한다 또 오래 장수하라는 뜻으로 「長壽골」이라 이름했을 가능성도 있다

「장군벌」은 마을 뒷 산에 함안 李씨 문중의 墓가 있는데

이 墓자리가 <將軍大坐>인 데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일설에는 옛날 이 곳에서 뛰어난 무장이 태어났기
때문에 장군벌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고도 전한다

② 능골 — 장릉 2 리

애기능이라고 불리운 오래된 墓가 마을 근처에 있어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오래된 고분이나 주인이 실전된 失名人 의
墓를 시골에서는 흔히 능이라 부르고 있다 능골 역시 이와
같이 오래된 墓의 존재에서 생겨난 지명이다

③ 장률 — 장릉 3 리

지금은 없어지고 말았지만 마을 앞으로 긴 밤나무숲이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장률(長栗)」이라 불리워 지게 되었다고 한
다

3) 行竹里

옛날에는 「興錄洞」과 「行尋村」、「分竹里」의 3개 부락이었다
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行尋村과 分竹里의 부락명에서 한글
자씩 따다가 「行竹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분디기 개여울(개넘어) — 행죽 1 리

행죽 1리의 옛 명칭은 「分竹里」와 「興錄洞」이다 「분디기」
의 한자명은 「分竹」으로 예전에는 이 마을이 陰竹郡과 竹山
郡의 경계지점이었기 때문에 分竹이라 호칭하였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분주기→분지기→분디기로 변음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여울」은 「개넘어」라고도 하며 어원 및 유래가 분명치
않다

② 행심촌 - 행죽 2 리

속칭 「한심촌」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韓씨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한심촌」, 행인들이 자주 찾아드는 마을이라고 하여 「行尋村」이라 이름했다고 하나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마을 앞에 있는 들판 가운데 마을사람들이 모두 이용하는 커다란 샘이 있다 이 샘은 심한 가뭄에도 수량이 줄어 드는 일이 없이 맑은 물이 용솟음쳐 솟아올라 양수기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하며, 여름에는 어름처럼 차고 겨울에는 따듯하여 마을 아낙네들은 엄동설한에도 이 곳에 와서 빨래를 한다는 것이다 이 샘물에서 연유되어 마을이름을 큰 샘이란 뜻에 「한샘」이라 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한심 또는 행심으로 변음되어 「行尋」이란 차용어가 생겨나지 않았나 본다

4) 諸蓼里

옛날에는 「諸葛村」·「蓼谷里」·「尺文里」 등이었다 『陰竹邑誌』 坊里편과 관내지도에는 「新興洞」이 서 쪽으로 10 리 지점에 있다고 하여 대략 蓼谷과 諸葛村 사이에 그 위치를 나타내고 있어 新興洞 역시 제요리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14 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諸葛과 蓼谷에 머릿글자를 따서 「諸蓼里」가 되었다

① 제갈·반월성 - 제요 1 리

옛날에 諸葛씨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諸葛村」이라 불리우게 되었으며 뒷 산의 형국이 반달을 닮아 「半月城」이라 이름하게 되었다고 한다 반월성이 「반오성」으로 변음(르탈락

단음화) 되어 불리우기도 한다

② 여귀울·면화골 — 제요 2 리

마을 주변에 여귀풀이 많아 「여귀울」이란 지명이 생겨났다고 하며 한자명은 「蓼谷」이다 그 밖에 목화가 잘 되는 곳이라고 하여 「면화골」이라 했고 면화골이 「미내골」로 음운변화되어 불리우기도 한다

③ 종태봉 — 제요 3 리

마을 뒷 산을 어느 왕의 태를 묻은 곳이라고 하여 「宗胎峰」 또는 「三胎峰」이라 부르는 데서 유래된 지명이다

宗胎峰의 「宗」은 鐘의 誤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마을 앞에 넓은 宮田이 있어 많은 일꾼들을 동원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종을 매달아 놓고 이 것을 올려 일꾼들을 통제했던 데서 유래된 지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²⁵⁾

④ 자무니 — 제요 4 리

한자명은 「尺文」이라 하여 「자무니」의 訓借로 표기하고 있다 옛날 이 부락에는 張씨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張씨 문중에 장자문이란 유력자가 있어 유래된 명칭으로 전해 오고 있으나 근거가 분명치 않아 믿기 어렵다

자무니의 어원은 분명치 않으나 처음엔 尺門이었던 것이 자문 → 자무니로 음운변화된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 城門을 뜻하는 옛말인 「갓문(자문)」이 그 어원일 가능성도 있다

註 25) 利川郡廳 韓勝男씨 조사자료

5) 新筆里

『陰竹邑誌』에 나타난 옛 명칭은 「細筆里」였다 「新楸洞」의 新자와 「細筆」의 筆자를 따서 「新筆里」로 개칭되었다

① 새가래울 - 신필 1 리

옛날 마을에 가래나무가 많아 「가래울」이라 불리우게 되었는데 「구가래울」과 「새가래울」이 있어 새가래울을 한자로 「新楸洞」으로 표기했다

② 세붓(細筆) - 신필 2 리

지형이 가는 붓처럼 생긴 탓에 「세붓(細筆)」이라 이름하게 되었다고 한다

6) 長泉里

옛날에는 「長角洞」과 「寒泉洞」의 2 개 부락이었다가 1914 년 행정구역 개편시 「長泉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긴뿔이 - 장천 1 리

마을의 생긴 모양이 누운 소의 긴뿔과 같다고 하여 「긴뿔이」가 되었고, 한자명을 「長角洞」으로 의역하여 표기했다

② 왜거리(瓦洞) - 장천 2 리

옛날 마을에 기와를 굽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瓦洞」이라 불리웠다 「와거리」가 「왜거리」로 변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찬샘물 - 장천 3 리

마을에 있는 샘에서 유래되어 「찬샘물」이라고 했으며 한자로는 「寒泉洞」으로 표기했다

돌틈에서 솟고 있는 이 샘물은 차고 맑기가 이룰데 없으며 한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고 한다 매년 음력 정월에 걸일을 택해 소머리를 제물로 하여 우물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는 샘속에 물이 넘치지 않게 계속 퍼낸다 이 때 물을 퍼내는 사람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속설이 전해오고 있다

④ 독정이 - 장천 4 리

항아리처럼 생긴 우물이 있어 「독정(井)」이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독쟁이」라고도 부르는데 대장쟁이·침쟁이·땀쟁이의 --경우와 같이 독 짓는 사람을 독쟁이(독장이)라 했으니 독쟁이의 지명은 웅기를 굽는 사람의 마을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7) 自石里

옛날에는 「自隱洞」과 「黑石里」였다가 행정구역 개편시 「自石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자은동 - 자석 1 리

옛날 土亭선생 李之蒸이 아산현감으로 부임하여 가던 길에 이 마을에서 잠시 쉬다가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여 살만한 땅이라고 하여 「自隱洞」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떠났다고 하며 그때부터 자은동이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② 검은돌 - 자석 2 리

마을 뒷 산에 검은 빛깔의 돌들이 있어 「검은돌(黑石)」이란 마을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8) 岩山里

옛 명칭은 「垂巖里」와 「九山洞」이었는데 행정구역 개편시 두 부락명의 가운데 글자를 따서 「岩山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두름바위 - 암산 1리

부락 서쪽에 있는 산이름이 「돌팍재」인데 이 산중에 병풍처럼 드리워진 「두름바위」(혹은 「드렁바위」라고도 함)라는 바위가 있어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돌팍재의 한자명이 垂巖山으로 산 밑에 마을이 「垂巖里」이다

② 거북피 - 암산 2리

마을 앞 산 꼭대기에 거북이의 형상을 한 큰 바위가 있어 「거북피」 또는 「거부미」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이 거북바위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깨뜰여 없애버렸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온다

한자명인 「九山里」는 거북피의 뜻인 龜山의 誤記일 것이다

9) 松界里

옛날에는 「上八界」·「下八界」와 「松洞」 「直山洞」의 네 부락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松洞과 八界里에서 한 글자씩 따서 「松界里」로 개칭되었다

① 상팔계·직산동 - 송계 1리

「八界里」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팔경이란 명당자리가 있다고 하여 유래된 명칭이라고 한다 맨 위 부락이 「上八界」이며 「直山洞」은 앞 산의 모습이 직선을 이룬 형태로 直山 이라 이름했던데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② 중팔계 · 하팔계 — 송계 2 리

八界里 세 부락 중 가운데와 아래 쪽에 위치한 부락이 「中八界」와 「下八界」이다

③ 송골 — 송계 3 리

마을 주변에 울창한 소나무숲이 있어 「송골(松谷)」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10) 上峰里

『陰竹邑誌』에 나타난 옛 명칭은 「高峰里」였다

① 귀골 — 상봉 1 리

속칭 「제골」이라고도 하며 옛날 마을에 계수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제골이라 하였다고 하나 신빙성이 희박하다 陰竹縣의 귀통이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에서 「귀골」이라 하지 않았나 본다 또 구유처럼 생긴 지형의 마을이란 뜻의 「구유골」이 귀골로 변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② 당골 — 상봉 2 리

마을 가운데 당집이 있었기 때문에 「당골」이란 지명이 생겨났다

③ 고봉 반월 — 상봉 3 리

뒷 산 봉우리가 우뚝하게 솟아있어 「고봉(高峰)」이라 불리운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반월」은 마을의 지세가 반달처럼 생겼다고 하여 반월이라 했는데 차츰 경음화되어 「뽕월」·「빨월」로 호칭되고 있다

11) 樹山里

옛 명칭은 「樹谷里」와 「鶯山洞」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樹山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앵산동 - 수산 1리

마을 앞에 鶯峰이란 산이름에서 유래되어 「鶯山洞」이 되었다고 하는데 앵봉은 『陰竹邑誌』 관내지도에는 白山峰으로 표기하고 있다

② 우무실 - 수산 2리

유명한 우물이 있어 「우무실」이라 했다고 하나 어원상 신빙성이 희박하고 우묵한 지형의 마을이란 뜻에서 우무실이라 했을 것으로 본다

③ 중계울·별담 - 수산 3리

마을 앞에 맑은 시내가 있는데 옛날 졸삼녀라는 여자가 매일 목욕한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맑은 시내라는 뜻에서 「激溪」라 했다고 하며 계곡 중간에 위치한 마을이란 뜻에서 「중계울」이라 했을 것으로 본다

「별담」은 글자 그대로 별판 가운데의 마을이다

12) 大竹里

옛 명칭은 「大山洞」이었다 「大山」의 大와 孝竹의 竹자를 따서 「大竹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중담 궁리 - 대죽 1리

중간에 위치한 마을이란 뜻에서 「중담(中里)」이라 했고 마을의 지세가 활처럼 둥글게 자리잡았다고 하여 「궁리(弓里)」

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② 효대배기(孝竹)·황새말 — 대죽 2리

옛날 이 마을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는데 효자가 난데는 대나무가 난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어 「孝竹」이라고 했으며 孝竹에서 「효대배기」란 우리말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
「황새말」은 마을형국이 <黃鸝抱卵形>인데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전한다

③ 무릉촌·대산동 — 대죽 3리

옛날에는 마을에 복숭아나무들이 많아 봄이면 복숭아꽃으로 뒤덮이곤 했는데 어느 선비가 陶淵明의 武陵桃源에서 따다가 「무릉촌」으로 이름지은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대산동」은 마옥산 기슭에 자리잡은 큰 산중마을이란 뜻에서 大山洞이라 했다

④ 한정골 — 대죽 4리

마을에 커다란 우물이 있어 「한정(大井)골」이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카. 栗面編

1) 高塘里

옛 명칭은 「高尺里」와 「池谷里」(혹은 池洞)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高尺의 高와 池洞의 池를 塘으로 바꿔 「高塘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고작골 - 고당 1리

고령朴씨가 처음 터를 잡은 마을이라 하여 「고작골」이라 했다고 하나 어원상 믿기 어렵다 고작골을 「高尺」으로 訓借하여 표기하고 있으나 높은 터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일 것이다 또 新屯面 高尺里의 경우와 같이 「고재기말」 「鼓子말」등의 어원을 가정해 볼 수도 있다

② 못골 연화동 - 고당 2리

옛날에는 마을 앞으로 큰 연못이 있었기 때문에 「못골(池洞)」이라 했고 그 연못에 연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었으므로 「蓮花洞」으로 불리워 지게 되었다고 한다

2) 新楸里

옛 명칭은 「上楸洞」과 「下楸洞」이었다가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新楸里」로 개칭되었다

① 원터 - 신추 1리

옛날 이 일대는 인가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오가는 행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院堡」라 부르다가 「원터」가 되었다고 한다 驛院의 존재와 관계된 지명이거나 原堡 또는 元堡의 의미로서 원터라 했을 것이다

② 새터 - 신추 2리

마을의 지세가 백로처럼 생겼기 때문에 「새터」라는 지명이 생겨났다고 하나 어원상 신빙성이 없다 새터는 新堡의 뜻으로 풀이된다

③ 부로동 - 신추 3 리

원래의 지명은 「富驚洞」이었는데 이는 마을형국이 飛驚形이라 하여 표기상 비슷한 음을 취한 명칭이라고 전한다

3) 北斗里

옛 명칭은 「北頭里」였다 마을의 산세가 북두칠성처럼 생겼다고 하여 「北斗里」로 개칭했다고 하나 믿기 어렵고 北頭의 어원은 미상이다

① 연촌 우영말 · 못안말 · 샘말 - 북두 1 리

연못이 있어 「연촌」이라 했다고 하는데 「淵村」과 「蓮村」·「燕村」등 어원상 여러가지의 풀이가 가능하다.

「우영말」은 우령말이나 부영말·구령말 등으로 어원을 추정해 볼 수 있고, 「못안말」은 연못 안 쪽 마을, 즉 연촌의 안마을이다

「샘말」은 샘이 있어 샘말이라 호칭했을 것이다

② 지시랭이 · 용머리 - 북두 2 리

마을 앞 산의 모습이 나비처럼 생겼기 때문에 「지시랭이」라 이름했다고 하나 어원상 신빙성이 희박하다 기슭의 가장자리, 또는 지붕의 처마끝을 일컫는 우리말이 「기스락」이고 기스락의 사투리가 지스랭이이다²⁶⁾ 지시랭이는 산 기슭 가장자리로 길게 마을이 자리잡고 있어 이 기스락에서 변형된 지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註 26) 이희승 『국어대사전』

「용머리」의 뜻 역시 마을이나 주변 산의 지형에서 유래된 이름일 것이다

4) 山陽里

옛 명칭은 「龍山洞」이었다 「龍山」과 「陽阿」 두 부락명에 서 한 글자씩 따서 「山陽里」로 개칭되었다

자연부락명으로는 「용산동」과 「양아리」가 있다 「용산동」은 마을 뒤에 있는 馬耳山으로부터 용이 나와 승천한 곳이라고 하여 「龍山」이라 이름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양아리」는 약 500여년 전 權陽阿라는 학문이 높은 선비가 은거했던 마을이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라고 - 하나 출전이 분명치 않고 인물에 대한 내력도 알 수 없다

5) 石山里

옛 명칭은 「石橋村」이었다 석교촌과 산양리 양아부락 사이를 흐르는 石院川, 지류에 지금도 돌다리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다리는 옛날 우리나라 중앙부에서 안성군과 용인군을 거쳐 한양에 이르는 중요한 길목이었다고 한다 石橋村은 이 돌다리의 존재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① 바깥불암이 · 안불암이 - 석산 1 · 2 리

석산 1 리를 「바깥불암이」, 석산 2 리를 「안불암이」라 부르며 外石山 內石山으로 쓰고 있다 마을 뒷 산이 바위만으로 이루어진 산이어서 「石山」이라 부르지 않았나 생각되며, 「불암이」는 부처의 모습을 한 바위라는 뜻의 「佛岩」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본다

② 석교촌 - 석산 3리

돌다리의 존재에서 유래되어 「石橋村」이라 했다 이 석교는 <안장사 다리>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안씨 성을 가진 장사가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청상과부로서 양아리에 사는 외간남자와 눈이 맞아 매일 밤이면 아들 몰래 내를 건너 양아리를 찾아가곤 했다 열다섯살이 된 아들이 이 사실을 눈치 채고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발을 벗고 내를 건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몇일을 두고 산에서 돌을 날라 두었다가 어머니가 내를 건너간 사이를 틈타 하루밤만에 다리를 놓은 것이 이 석교이며, 그 뒤로 마을사람들이 다리이름을 안장사다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6) 山星里

옛 명칭은 「八星里」와 「石院洞」 「下山洞」 「上山洞」의 여러 부락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山洞과 八星에서 한 글자씩 따다가 1913년 「山星里」로 개칭되었다

① 돌원 - 산성 1리

신미양요 때 강화도 광성진싸움에서 순절한 忠壯公 魚在淵 장군이 태어난 마을로 장군의 생가와 향사를 받드는 忠壯祠가 있다

조선시대에 마을 앞으로 驛路가 지나고 있어 역을 두고 그 이름을 「石院」이라 했기 때문에 「돌원」이란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돌원장이 서던 마을이기도 하다

② 산골·정문말 - 산성 2 리

八星山 골짜기에 자리잡은 글자 그대로 「산골」이며 옛날에는 「下山洞」 「上山洞」이라 했다 「정문말」은 마을에 旌門이 있어 유래된 지명이다

7) 五城里

옛 명칭은 「尺五里」와 「長城洞」이었으며 尺五의 五와 長城의 城자를 따서 「五城里」로 통합개칭되었다

① 장성골 - 오성 1 리

마을 위에 있는 팔성산 줄기가 길게 성을 쌓아놓은 모습과 흡사하여 「長城골」이라 했다고 전한다 「장승골」 또는 「장생골」의 어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윗자위리·아랫자위리 - 오성 2 리

마을 위치가 아래 쪽에 있기 때문에 「자위리」라 했다고 하나 어원상 신빙성이 없다 자위를 의역하여 「尺五」로 표기했는데 자위나 尺五의 어원은 알 수 없다 능소화꽃을 紫巖라고도 하여 이 꽃이름과 관련된 지명이 아닌가 생각 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8) 本竹里

옛 명칭은 「本栗洞」과 「竹栗洞」이었으며 행정구역 개편시 두 부락명에 머릿글자를 따서 「本竹里」로 개칭되었다

글자 그대로 우리말 명칭은 「밤골」이며 옛날에는 「열두밤골」이라 하여 12 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동녘말·중터말 학교말 터고개 상원암 아랫모퉁이 점말 두집말 응달말의 아

홉개가 남아 있을 뿐으로 이를 통털어 「밤골」이라 부르고 있다

옛부터 안동 金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옛날 이 金씨 문중에 고부간에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한 집이 있었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며느리가 어느날 지나가던 중이 매일 밤 다섯알씩을 조석으로 삶아 시어머니에게 드리면 일년이 못 가서 죽게 되리라고 일러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일년이 지나가자 죽을 것이라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피둥피둥 살이 찌고 며느리의 지성에 감동한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를 지극히 위하게 되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전설이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9) 月浦里

옛 명칭은 「都月里」와 「洞門里」 「退浦里」의 3개 마을이었다 행정구역 개편시 都月과 退浦의 명칭에서 따다가 「月浦里」가 되었다

① 안도달미·바깥도달미 - 월포 1리

약 400여년 전 柳씨들이 처음 터를 잡았을때 복숭아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桃月」이라 이름지어 내려오다가 「都月里」로 변형되었다고 한다 「도달미」는 복숭아나무가지에 걸린 달을 의미하는 「도(桃) 달(月) 되」의 뜻이라고 하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② 옥야촌 - 월포 2리

왜정말에 마을이 새로 생기면서 「沃野村」이라 이름했다고 하

는데 기름진 옥토를 낀 마을의 의미로 풀이된다

③ 무지기·골문리 - 월포 3 리

무지개의 사투리가 「무지기」인데 「무지개골」이 무지기로 음운변화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골문리」의 한자명은 「洞門里」로서 옛날 마을어구에 자연석으로 이루어진 石門이 있어 洞門이라 이름하게 된 것이 「골(洞)문」으로 변음된 것이다

④ 퇴포 - 월포 4 리

마을 앞을 흐르는 청미천과 연관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어느 때인가 큰 홍수로 인하여 마을 바로 앞을 흐르던 냇물의 물길이 달라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후부터 「退浦」라 하지않았나 본다

10) 叢谷里

옛 명칭- 역시 「叢谷里」였으며 자연부락으로 「포기실」 「윗샘골」·「성황당이」 「도리미」가 있다

「포기실」은 포기골·포기기슭의 동의어로서 그 訓借가 「叢谷里」이다 「윗샘골」은 샘이 있는 윗 마을, 「성황당이」는 성황당의 존재에서 유래된 명칭일 것이다

「도리미」는 「돌뢰」·「돛뢰」 「桃李뢰」 등의 여러가지 어원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맞는 합당한 어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附 錄〉

○ 各 里 別 自 然 部 落 名

○ 利 川 文 化 院 會 員 名 單

여

백

〈附錄〉

各 里 別 自 然 部 落 名

邑面別	里 別	自 然 部 落 名	옛 명 칭
利 川 邑	倉 前 里	○ 1 里 ○ 2 里 - 사거리 ○ 3 里 - 이포사거리 ○ 4 里 - 북새말 ○ 5 里 - 장 터 ○ 6 里 - 동새말	倉 前 里 司 庫 前 里
	官 庫 里	○ 1 里 - 사장 (射場) 거리 ○ 2 里 - 개배미 ○ 3 里 - 신배미 · 마전터	官 後 里
	中 里	○ 1 里 - 중말 · 동사장터 ○ 2 里 - 고래골 (고래실)	中 里
	曾 日 里	○ 증일 무레기	曾 日 里
	安 興 里	○ 안흥이 · 새터	安 興 里
	陳 里	○ 진말 · 새다리	陳 里
	葛 山 里	○ 1 里 - 윗갈미 ○ 2 里 - 아랫갈미	新 葛 山 里
	增 浦 里	○ 배증개 · 요꼴	(梨 增 浦)
	栗 峴 里	○ 밤고개 은뼉이 · 아랫무레기	乾 川 里 · 松 峴 里

邑面別	里 別	自 然 部 落 名	옛 명 칭
利 川 邑	少 音 里	○ 1里 - 기치미 ○ 2里 - 사기막골·새터 ○ 3里 - 한내 (寒川)	節 音 里 (切 音 里)
	松 亭 里	○ 1里 - 아리 (牙里) ○ 2里 - 능안 ○ 3里 - 구자팔	松 亭 里 牙 里 駅 里
長 湖 院 邑	長湖院里	○ 1里 - 구시장 ○ 2里 - 서문거리 ○ 3里 - 평말 (坪村) ○ 4里 - 동석교촌 ○ 5里 - 서석교촌	長 海 院 坪 村 里 石 橋 村
	方 楸 里	○ 구추지촌 (구가래울) 방가골	方角洞·楸洞
	梧 南 里	○ 1里 - 새장터 ○ 2里 - 오창말·천방·죽말 ○ 3里 - 남천 (南川)	梧 倉 里 南 川 洞
	大 西 里	○ 1里 - 살개골 (杏洞) ○ 2里 - 한우물 (大井) ○ 3里 - 근서 (近西)	大 井 里 近 西 里
	於 石 里	○ 1里 - 은골·어은 ○ 2里 - 미륵댕이·새터	於 云 洞

邑面別	里 別	自 然 部 落 名	옛 명 칭
長 湖 院 邑	松 山 洞	○ 1里 - 소래울·관절이주막	松 谷 里 筆 峴 里
		○ 2里 - 빙정말	
		○ 3里 - 산대·붓고개(筆峴)	
	珍 岩 里	○ 1里 - 진촌·둔촌	珍 村 里 階 巖 里
		○ 2里 - 계암 못골(池洞)	
		○ 3里 - 상계암·국말	
	梨 黃 里	○ 1里 - 배나루정(梨庭)	黃 庭 浦 蘆 洞 留 春 駅 (?)
		○ 2里 - 윗황성·아랫황성	
		○ 3里 - 갈월·노동	
	瓦 峴 里	○ 1里 - 왜골·넘어말	狐峴里(皓峴里) 尾 洞
		○ 2里 - 호현·새터	
院 邑	老 塔 里	○ 1里 - 개자위·신대	老 坪 里 巨 勿 里 塔 村
		○ 2里 - 금호 거머리	
		○ 3里 - 탑거리·노들	
	豐 界 里	○ 1里 - 홍시·풍토	豐 土 里 赤 界 里
		○ 2里 - 수평말·덧골	
		○ 3里 - 용계·봉바위·원양이	
邑	羅 來 里	○ 1里 - 송촌(松村)·통리	羅 來 洞
		○ 2里 - 상곡(桑谷)	
		○ 3里 - 월촌(越村)	

邑面別	里 別	自 然 部 落 名	옛 명 칭
長湖院邑	善邑里	○ 1里 - 원하(院下) ○ 2里 - 읍내·죽곡(竹谷)	邑內里·南山里 鄉校里 院下里 善興里
新 屯 面	水廣里	○ 1里 - 섬말, 미나리 ○ 2里 - 나무가지 ○ 3里 - 냇고개, 광현	(水北)(島村) (水出里?) (廣峴)
	水南里	○ 둔터, 정문고개	水南里
	高尺里	○ 1里 - 고갯말 ○ 2里 - 학암동(鶴岩洞) 3里 - 새말	高尺里
	竜眼里	○ 용면(용민이)·쌍촌(雙村)	(竜坪)
	印後里	○ 1里 - 인배 ○ 2里 - 후동(뒷말)	後洞里 (印培)
	馬橋里	○ 마다리	(馬橋)
	小亭里	○ 쇠쟁이(소정)	(小亭里)
	水下里	○ 새울	水下里
	道岩里	○ 1里 - 도월암·금산이·벌말 ○ 2里 - 노가지곶(老柯洞)	道月巖里
	支石里	○ 권돌(권들)	支石里
	南井里	○ 1里 - 남정골 ○ 2里 - 한성부·점말	(南井洞)

邑面別	里 別	自 然 部 落 名	옛 명 칭
新 屯 面	長 洞 里	○ 1里 - 장골 ○ 2里 - 하남촌	長 洞 里
	道 峰 里	○ 윗도봉이 (도봉이) · 아랫도봉이	道 峰 里
栢 沙 面	玄 方 里	○ 1里 - 검바위 (黑岩) ○ 2里 - 온 방 (溫方)	黑 岩 里 溫 方 里
	松 末 里	○ 1里 - 송곡 (松谷) ○ 2里 - 안베일 · 내하 ○ 3里 - 두들기 삼상	末 谷 里
	道 立 里	○ 1里 - 도니피 (도피) ○ 2里 - 어산이	道 立 里
	新 垜 里	○ 새터 · 벌터	新 垜 里
	牟 田 里	○ 1里 - 점촌 (店村) ○ 2里 - 도구머리 (두곡) · 버리앗 ○ 3里 - 방축골 · 안말 · 곰말	茶 田 里
	道 知 里	○ 1里 - 도지울 ○ 2里 - 금성	道 知 谷 里
	助 邑 里	○ 1里 - 자리골 · 자옥 ○ 2里 - 상동 (上洞), 점촌말	助 邑 洞 里
	京 沙 里	○ 1里 - 경기터 (경사터) · 경대 ○ 2里 - 사옥 장개터	京 土 垜 里 (京仕垜里) 沙北里 (沙玉里)

邑面別	里 別	自 然 部 落 名	옛 명 칭
栢 沙 面	牛 谷 里	○ 1 里 - 그지개	牛 谷 里
		○ 2 里 - 매쟁이	
		○ 3 里 - 호암	
	內 村 里	○ 쇠일 (소일)	(內 村)
面	上 竜 里	○ 용머리 (竜村) · 윗거리 (上村) · 암말	上 洞 里
	白 隅 里	○ 한머루 (햇모루)	
夫 鉢 面	茂 村 里	○ 1 里 - 거치라리	巨 次 牙 里
		○ 2 里 - 하낙말	
	竹 堂 里	○ 1 里 - 죽골 (竹谷)	注 洞 里
		○ 2 里 - 당재 (堂峴)	
	新 元 里	○ 1 里 - 신대동 · 평촌 (坪村)	元 寂 洞 里
		○ 2 里 - 원적골 · 대거리	
		○ 3 里 - 사누터 · 광평 (廣坪)	
		○ 4 里 - 신성골	
	高 白 里	○ 1 里 - 높은절이	高 寺 里
		○ 2 里 - 행기실 · 두무재	
	大 冠 里	○ 대왕이	大 旺 里
	馬 岩 里	○ 마라위	馬 岩 里
	山 村 里	○ 산촌	(山 村)
	新 河 里	○ 1 里 - 복하 (福河)	梅 花 谷 里
		○ 2 里 - 신촌 (新村)	
		○ 3 里 - 비석거리 · 매곡 (매지울)	

邑面別	里 別	自 然 部 落 名	옛 명 칭
夫 鉢 面	加 左 里	○ 가재울	加 佐 洞 里
	牙 美 里	○ 1 里 - 아미랏 ○ 2 里 - 뒗고실 (두고실)	峨 眉 垜 里
	水 井 里	○ 물우물 · 골골	水 井 里
	松 溫 里	○ 소론동 (소룡동)	(松 溫 洞)
	柯 山 里	○ 가목동 · 월랑골 (말산) 장승이	耆 山 里
	鷹 岩 里	○ 파발막 · 응암 · 주막거리	鷹 岩 里
戶 法 面	西 山 里	○ 1 里 - 양달말 · 유산 ○ 2 里 - 달개실 · 떡정머리 ○ 3 里 - 죽장골 (장동) · 큰말 ○ 4 里 - 오미	西 良 谷 里
	安 坪 里	○ 1 里 - 안고니 ○ 2 里 - 윗 들 · 안윗들	安 古 里
	厚 安 里	○ 1 里 - 후미촌 ○ 2 里 - 무대골 ○ 3 里 - 용머리	厚 美 村 里
	丹 川 里	○ 1 里 - 윗단내 ○ 2 里 - 아랫단내 · 토끼실	丹 川 里
	梅 谷 里	○ 1 里 - 돈실 (도니실) ○ 2 里 - 매지기 (매작) · 평촌 (平村)	土 谷 里

邑面別	里 別	自 然 部 落 名	옛 명 칭
戶 法 面	東 山 里	○ 1里 - 오동촌·상촌 피촌 ○ 2里 - 자개울·요팔	東 山 色 里
	珠 珀 里	○ 주바구니·장터	珠 珀 村 里
	珠 美 里	○ 양달주바구니	
	松 葛 里	○ 1里 - 송갈미 ○ 2里 - 윗돌댕이·아랫돌댕이	松 葛 山 里 石 塘 村 里
麻 長 面	午 川 里	○ 응달말·당거리·웃말	呑 川 里
	陽 村 里	○ 양촌	
	冠 里	○ 1里 - 큰가마골·작은가마골 ○ 2里 - 무지기·윗말·주막거리·군량 ○ 3里 - 유다리 ○ 4里 - 송침·오미 압실·장지울	冠 洞 里
	灰 億 里	○ 회다리·억만이	億 萬 里
	長 岩 里	○ 1里 - 문바위 (門岩) ○ 2里 - 장생이	長 壽 旺 里 門 岩 里
	木 里	○ 목동 (木洞)·주막거리	(木 洞)
	標 橋 里	○ 1里 - 안보름다리·바깥보름다리 ○ 2里 - 터골 정악골	屯 田 里 (?)
	梨 峙 里	○ 1里 - 고락골·대왕이 ○ 2里 - 안배터 ○ 3里 - 벌배터	梨 峙 里

邑面別	里 別	自 然 部 落 名	옛 명 칭
麻 長 面	各 坪 里	○ 각시울 벌말·새말	各 氏 洞 里
	泥 坪 里	○ 1里 - 진들 ○ 2里 - 삼승이	泥 ,坪 里
	德 坪 里	○ 1里 - 덕들 (德坪) ○ 2里 - 뒗들	德 坪 里
	蟹 越 里	○ 계념이 (기니미) · 사기실 · 점말	(蟹 越)
	芍 村 里	○ 작별이 · 나라모르기	渚 別 里
大 月 面	丹 月 里	○ 1里 - 사거리 · 콩다리미 ○ 2里 - 단드래	丹 月 川 里
	大 浦 里	○ 1里 - 황그내 소도니 · 삼정개 ○ 2里 - 홍촌 · 새말	(大浦川里)
	高 潭 里	○ 1里 - 안고샘이 ○ 2里 - 벌고샘이	高 垜 岩 里
	長 錄 里	○ 장록이 (장노기)	
	道 理 里	○ 도니울	道 理 洞 里
	九 時 里	○ 다래춘 · 용지머리 (용두머리)	九 時 洞 里
	郡 梁 里	○ 1里 - 윗군들 ○ 2里 - 아랫군들 ○ 3里 - 새말 · 뒗말	上 郡 梁 里 下 郡 梁 里
	松 羅 里	○ 소래울	松 羅 谷 里

邑面別	里 別	自 然 部 落 名	옛 명 칭
大 月 面	長 坪 里	○ 1里 - 봉골터 (범골) ○ 2里 - 원맹이 · 새터 · 념말	夫 皇 洞 里 (長 坪 洞)
	夫 必 里	○ 비피리 · 아래비피리	富 必 里
	草 芝 里	○ 1里 - 새실 ○ 2里 - 등안이	草 枝 谷 里
	已 洞 里	○ 뱀골 · 새뱀골 · 작은말	(已 洞)
	大 垈 里	○ 한터 · 아래한터	
	大 興 里	○ 1里 - 범흥이 ○ 2里 - 큰 골	範 興 里 大 洞 里
暮 加 面	陳 加 里	○ 1里 - 갈매울 터골 ○ 2里 - 진안 (陳內)	加 洞 里 (芑 麻 洞 里)
	西 垈 里	○ 1里 - 쇠경들 벌말 · 공말 ○ 2里 - 보들	(西 垈)
	山 內 里	○ 산안 (山內)	山 內 里
	松 谷 里	○ 1里 - 소리울 · 병목안 ○ 2里 - 굿배미 인두배미 · 황새벌	松 谷 里
	梁 坪 里	○ 구은들 (군들)	郡 梁 里
	素 沙 里	○ 소새 · 텃골	素 沙 里
	院 頭 里	○ 1里 - 일머리 ○ 2里 - 미리울 ○ 3里 - 아랫머리울	元 頭 里

邑面別	里 別	自 然 部 落 名	옛 명 칭
暮 加 面	所 古 里	○ 1里 - 소고지	所 古 之 里
		○ 2里 - 점촌·쇠골·밤나무골	
		○ 3里 - 새말	
	薪 葛 里	○ 1里 - 갈미	葛 山 里
		○ 2里 - 넘말	
	於 農 里	○ 1里 - 어농골	於 農 洞 里
		○ 2里 - 어룡골	
		○ 3里 - 풍덕말	
	豆 美 里	○ 1里 - 미륵대이	侍 美 洞 里 豆 亦 里
		○ 2里 - 시미골	
雪 星 面	金 堂 里	○ 1里 - 금성골	松 三 洞
		○ 2里 - 당앞(堂前)·전촌·송삼(松三)	
	長 陵 里	○ 1里 - 장수골·장군벌	未 詳
		○ 2里 - 능골	
		○ 3里 - 장률	
	行 竹 里	○ 1里 - 분더기·개여울(개너머)	行 興 分 尋 祿 竹 村 洞 里
		○ 2里 - 행심촌(行尋村)	
	諸 蓼 里	○ 1里 - 제갈·반월성(半月城)	諸 葛 村 蓼 谷 里 尺 文 里
		○ 2里 - 여뀌울·면화골	
		○ 3里 - 중대봉	
		○ 4里 - 자무니	

邑面別	里 別	自 然 部 落 名	옛 명 칭
雪 星 面	新 筆 里	○ 1里 - 새가래울 (新楸洞) ○ 2里 - 세붓 (細筆)	細 筆 里
	長 泉 里	○ 1里 - 긴빨이 (長角) ○ 2里 - 왜거리 ○ 3里 - 찬샘물 (寒泉) ○ 4里 - 독정이 (독쟁이)	長 角 洞 寒 泉 洞
	自 石 里	○ 1里 - 자은동 ○ 2里 - 검은돌 (黑石)	自 隱 洞 黑 石 里
	岩 山 里	○ 1里 - 두름바위 ○ 2里 - 거북뿔	垂 岩 里 九 山 洞
	松 界 里	○ 1里 - 상팔계 (上八界) · 직산동 ○ 2里 - 하팔계 · 중팔계 ○ 3里 - 송골	上 八 界 里 下 八 界 里 直 山 洞
	上 峰 里	○ 1里 - 귀골 (계골) ○ 2里 - 당골 ○ 3里 - 고봉 · 반월 (뽕월)	高 峰 里
	樹 山 里	○ 1里 - 앵산동 (鶯山洞) ○ 2里 - 우무실 ○ 3里 - 중계울 · 벌담	樹 谷 里 鶯 山 洞

邑面別	里 別	自 然 部 落 名	옛 명 칭
雪 星 面	大 竹 里	○ 1里 - 중담·궁리(弓里)	大 山 洞
		○ 2里 - 효대배기(효죽) 황새말	
		○ 3里 - 무릉촌·대산동	
		○ 4里 - 한정골	
栗 面	高 塘 里	○ 1里 - 고갯골 ○ 2里 - 못골(池洞)·연화동	高 尺 里 池谷里(池洞)
	新 楸 里	○ 1里 - 원터(院垵) ○ 2里 - 새터 ○ 3里 - 부로동(夫老洞)	上 楸 洞 下 楸 洞
	北 斗 里	○ 1里 - 연촌·우영말·못안말·샘말 ○ 2里 - 지시랭이·용머리	北 頭 里
	山 陽 里	○ 1里 - 용산동 ○ 2里 - 양아리(陽阿)	竜 山 洞
	石 山 里	○ 1里 - 바깥불암이 ○ 2里 - 안불암이 ○ 3里 - 석교촌(石橋村)	石 橋 村
	山 星 里	○ 1里 - 돌원(石院) ○ 2里 - 산골·정문말	八 星 里 · 上山洞 下山洞 · 石院洞
	五 城 里	○ 1里 - 장성골 ○ 2里 - 윗자위리·아랫자위리	尺 五 里 長 城 洞
	本 竹 里	○ 밤골(열두밤골)·점촌	本栗洞 竹栗洞

邑面別	里 別	自 然 部 落 名	옛 명 칭
栗 面	月 浦 里	○ 1 里 - 안도달미 · 바깥도달미 ○ 2 里 - 옥야촌 ○ 3 里 - 무지기 · 골문리 ○ 4 里 - 퇴포	都 月 里 洞 門 里 退 浦 里
	叢 谷 里	○ 포기실 · 윗샘골 · 성 황당이 · 도리미	叢 谷 里

〈附錄〉

利川文化院會員名單

職 位	姓 名	社 會 職 位	電 話	
			職 場	自 宅
院 長	柳 光 烈	海剛高麗青磁研究所長 韓國傳承陶藝協會 會長	신문 17 776-8898	신문 29
副院長	朴 義 俠	利川中央信協理事長・사법서사	2-2605	2-3057
理 事	金 久 雄	金久雄 외과의원 원장	2-2407	2-2151
"	김 병 숙	새마을축구 이천군 연합회장 金공무소 대표	2-4220	
"	宋 昌 植	경한실업주식회사 상무이사	2-5831	2-2970
"	李 奇 休	扶林窯 代表	신문 126	
"	李 泊 雨	새마을문고 이천군지부장 삼보정밀공업사 代表	2-3377	2-2880
"	李 殷 九	靑坡窯 代表	2-5792	2-3309
"	李 在 容	利川相互信用金庫 企劃室長	2-5871	2-3936
"	趙 誠 主	宝林陶苑 代表 韓國傳承陶藝協會 副會長	2-2623	
"	崔 榮 鎬	한양산업代表・利川 J・C 직전회장	2-3415	2-4174
監 事	姜 大 喆	彫 刻 家		385-9996
"	具 錫 萬	광학당 안경공사	2-2789	
會 員	金 明 東	明東美術學院 院長	2-3096	
"	金 守 煥	利川로타리클럽會長 경기여객 이천영업소장	2-2010 2-4043	

職 位	姓 名	社 會 職 位	電 話	
			職 場	自 宅
會 員	김 용 문	利川農高 教師	2-2638	
"	金 正 義	이천양정여자중학교 교사	2-2780	2-3094
"	金 亨 湘	陶 淵 代 表	2-3549	2-2984
"	梁 昌 煥	利川中央信協 部長	2-3015	
"	柳 炳 教	배아드리체	2-6990	2-5269
"	俞 炳 奎	프로스펙스 이천대리점	2-2666	2-3972
"	尹 泰 貞	윤모범약국	2-2216	
"	李 殷 永	일신주유소 代表	2-3822	2-3072
"	李 在 榮	틈보이대리점	2-5443	
"	李 贊 儀	미미사代表	2-3018	
"	李 治 雨	이천사회복지관 총무부장	2-2443	
"	이 호 영	사음농장	2-3422	
"	崔 文 雄	성창상회	2-2087	2-2317
事務局長	李 仁 洙	利 川 文 化 院	2-2316	
書 記	이 경 숙	利 川 文 化 院	2-2316	

〈 利川文化院 顧問 〉

金 寬 植 初代 四代院長 京畿道穀物協會 會長

金 昌 錫 前 文化院 監事 平統諮問會議 利川郡協議會長

李 種 九 三代院長 利川郡 山林組合長

여

백

 이천시립도서관



EM45992